

보도시점 2026. 10. 1.(목) 12:00 배포 2026. 10. 1.(목) 8:30

2026 고령자 통계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서영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이성숙 (042-481-2240)

일 러 두 기

-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인구,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고령자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공표된 통계 자료 및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이 다른 통계 자료 출처 및 대상 연령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 60세 이상
-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OECD, 「상대적 빈곤율」 : 66세 이상
 -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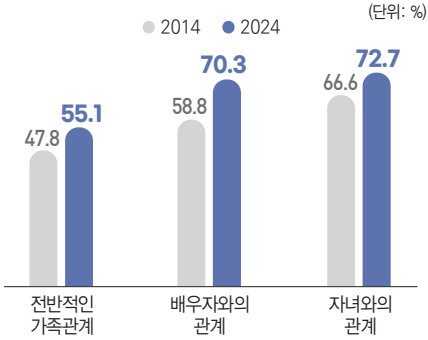
- 금년에는 특별기획으로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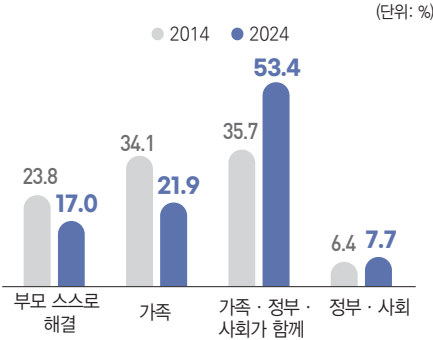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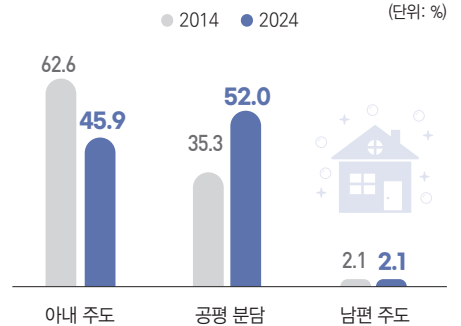
가족관계 만족도(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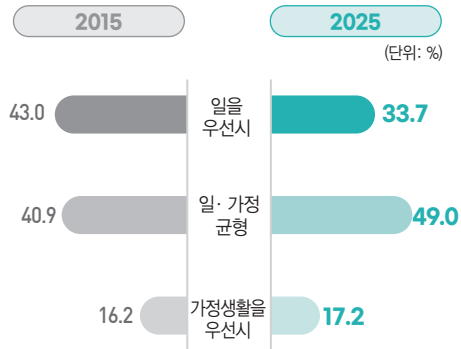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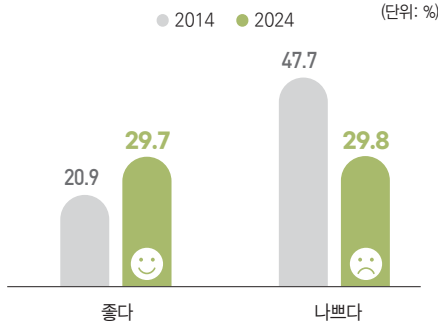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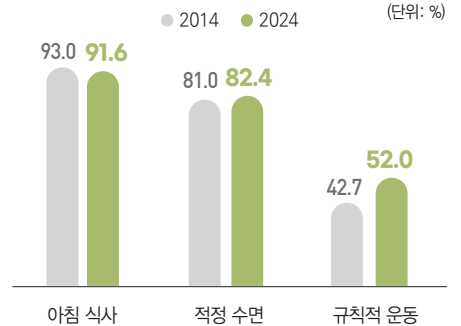


건강

건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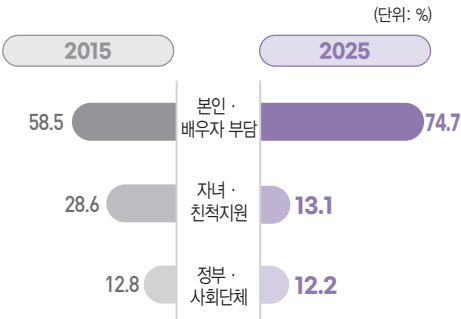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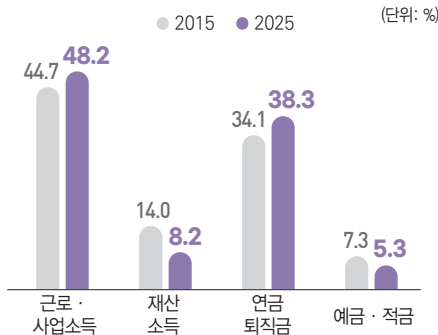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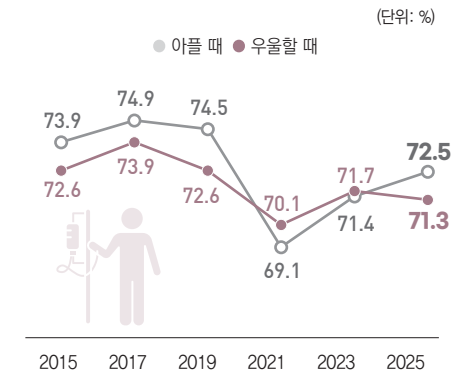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방법



본인, 배우자 부담 생활비 마련 주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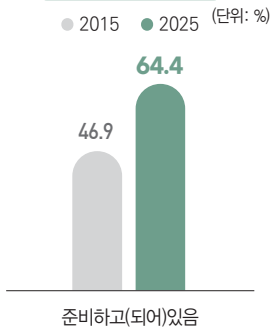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도움받을 사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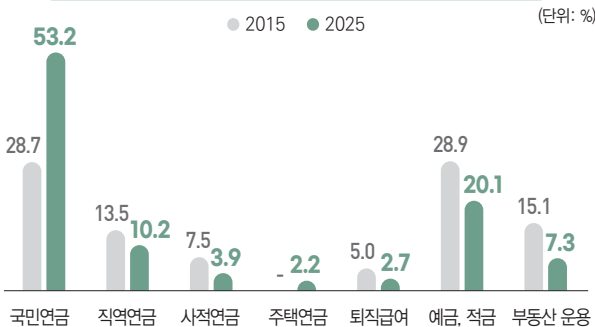


노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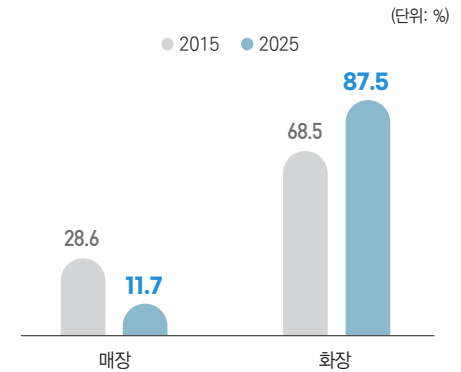
노후 준비 여부



노후 준비 방법(주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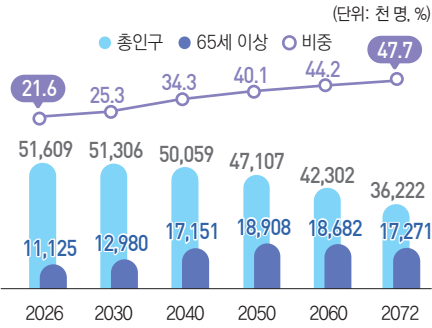
선호하는 장례 방법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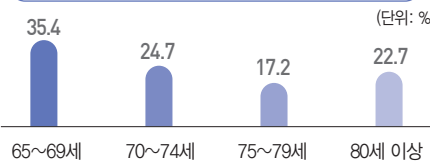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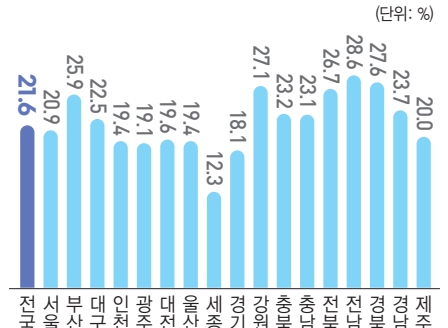
성별(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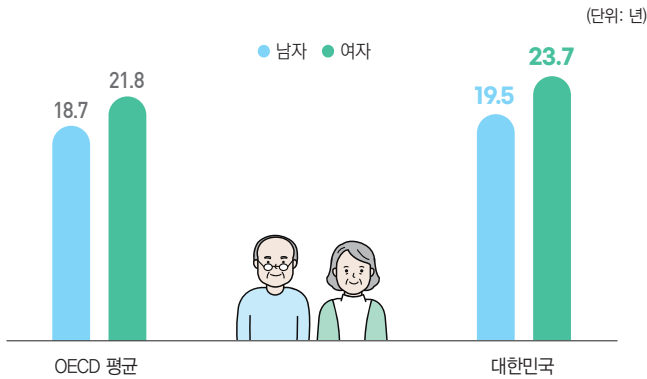
연령별(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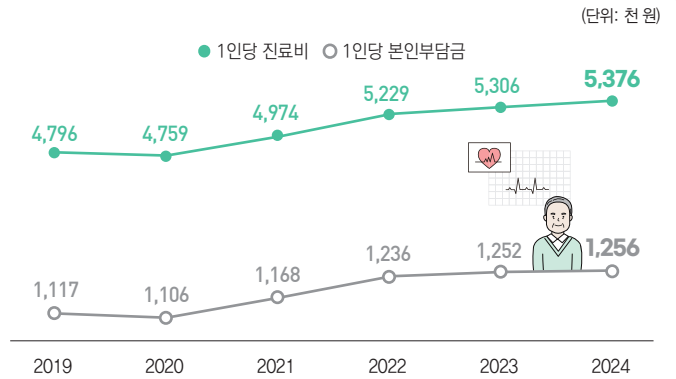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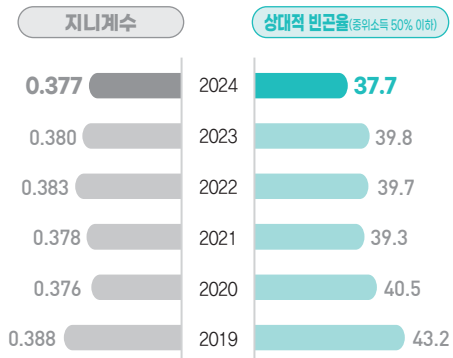
65세 기대여명(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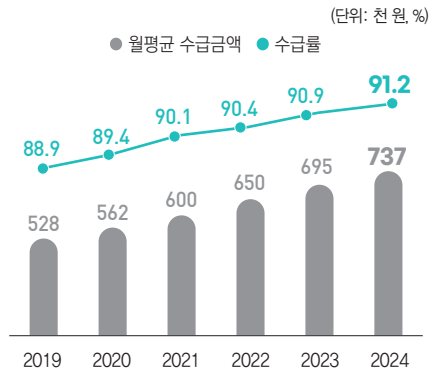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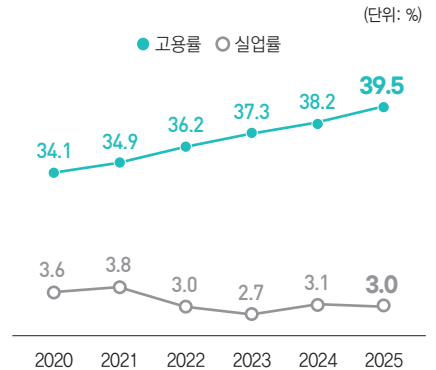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주요 소득분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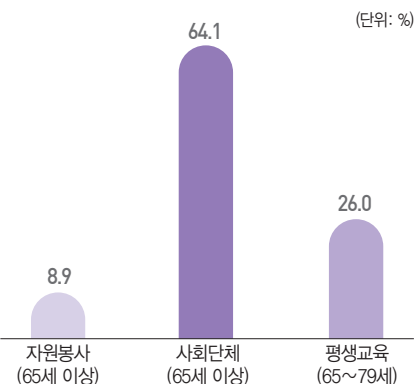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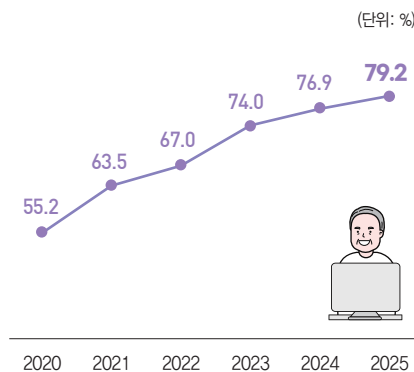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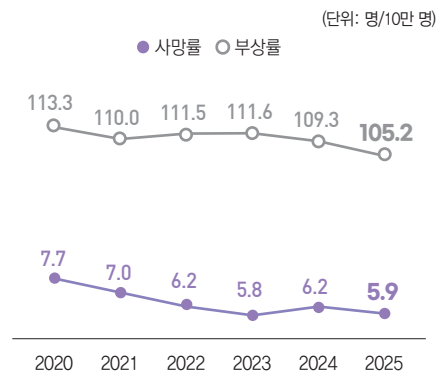
사회참여(2025)



인터넷 이용률



보험 교통사고 사망률·부상률



목 차

□ (특별기획)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1
□ 2026 고령자 통계	17
◇ 요 약	19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22
2. 지역별 고령인구	24
3. 고령자 가구	25
4. 이혼 및 재혼	26
5. 주택 소유율	27
II. 건강	
6. 기대여명	28
7. 사망원인별 사망률	29
8. 본인부담 의료비	30
9. 건강검진 수검률	31
10. 운동 실천율	32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33
12. 노인 복지시설	34
III. 소득보장	
13. 자산 소유액 및 구성	35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36
15.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37
16. 고용률	38
17.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40

IV. 사회참여·관계

1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41
19. 단체 참여율	42
20. 평생교육 참여율	43
21. 노인차별	44
22. 세대 갈등	45

V. 생활환경

23.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 목적	46
24.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및 이용 SNS	47
25. 인공지능 서비스 인지율 및 분야	48
26. 보행 안전성	49
27. 운전자 사고 비중	50
28.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51
29. 주거 만족도	52

VI. 주관적 웰빙

30. 삶에 대한 만족도	53
31. 성취에 대한 만족도	54

☐ 통계표	55
------------------------------------	----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91
2.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92

〈특별기획〉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요약)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10년간 17.7%p 증가,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과 일·가정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도 확대

- '24년 고령자의 53.4%는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10년 동안 17.7%p 증가함(4쪽)
-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52.0%로 지난 10년간 16.7%p 증가함(5쪽)
- '25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49.0%로 지난 10년간 8.1%p 증가함(6쪽)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고령자가 늘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은 9.3%p 증가하는 등 건강관리 강화

-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24년 29.7%로 지난 10년간 8.8%p 증가함(7쪽)
- '24년 건강관리는 아침 식사하기(91.6%), 적정 수면(82.4%), 규칙적인 운동(52.0%) 순이며, 지난 10년간 적정 수면은 1.4%p, 규칙적 운동은 9.3%p 증가함(8쪽)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74.7%로 확대, 소득소비 만족도도 상승

-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는 '24년 74.7%로 지난 10년간 16.2%p 증가, 자녀·친척 지원은 13.1%로 15.5%p 감소함(9쪽)
- 소득 만족도는 21.3%, 소비 만족도는 17.9%로 지난 10년간 각각 13.7%p, 8.1%p 증가함(10쪽)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10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노후 준비는 64.4%로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활용 확대, 화장 선호도 크게 확대

- '25년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72.5%,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71.3%로 지난 10년간 각각 1.4%p, 1.3%p 감소함(12쪽)
- '25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64.4%로 지난 10년간 17.5%p 증가함(15쪽)
 -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3.2%), 예·적금(20.1%), 직역연금(10.2%) 순이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24.5%p 증가한 반면, 예·적금은 8.8%p 감소함
- '25년 화장을 선호하는 고령자는 87.5%로 지난 10년간 19.0%p 증가, 매장 선호는 11.7%로 16.9%p 감소함(16쪽)

〈특별기획〉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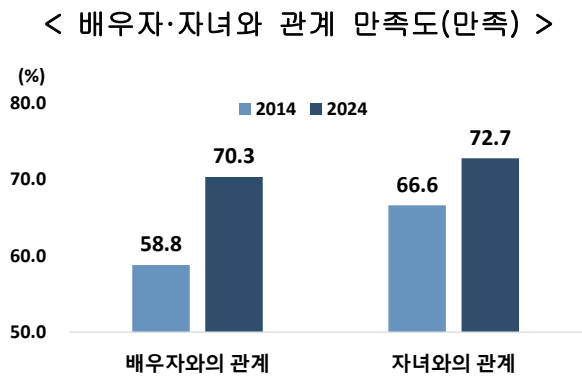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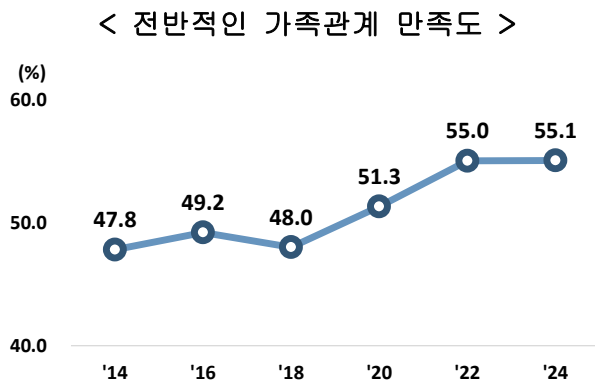
1. 가족관계 만족도

2024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55.1%이며, 지난 10년간 7.3%p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4~2024)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47.8%에서 55.1%로 7.3%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0.6%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5.8%p, 여자 8.3%p 각각 증가함

□ 가족관계별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 비중은 58.8%에서 70.3%로 11.5%p 증가하였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 비중은 66.6%에서 72.7%로 6.1%p 증가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가족관계 만족도 >

(단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65세 이상	2014	47.8	46.9	5.4	58.8	33.5	7.7	66.6	27.8	5.6
	2016	49.2	46.3	4.4	59.0	34.2	6.7	66.3	28.6	5.1
	2018	48.0	47.5	4.4	60.8	32.2	7.0	68.1	26.3	5.6
	2020	51.3	44.8	3.9	61.9	31.3	6.8	70.4	24.7	4.9
	2022	55.0	41.4	3.6	65.0	28.2	6.8	73.3	22.8	3.9
	2024	55.1	39.7	5.2	70.3	24.8	4.9	72.7	23.2	4.1
남자	2014	49.6	45.7	4.7	63.6	31.4	4.9	66.7	28.4	4.9
	2024	55.4	40.0	4.6	75.5	21.6	2.9	70.7	25.0	4.4
여자	2014	46.5	47.7	5.8	52.2	36.2	11.5	66.5	27.4	6.1
	2024	54.8	39.5	5.7	63.9	28.7	7.4	74.4	21.7	3.9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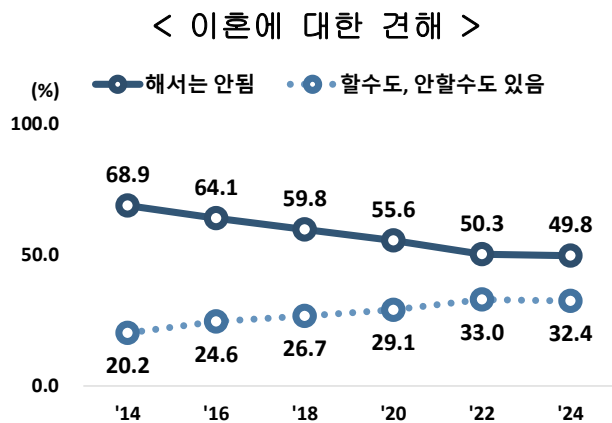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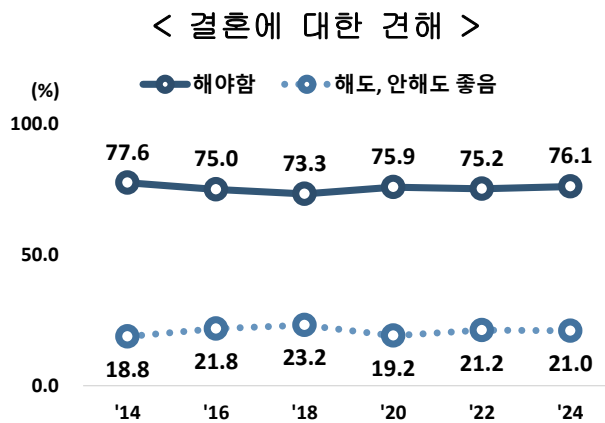
주: 1)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2)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2. 결혼, 이혼에 대한 견해

2024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76.1%로 지난 10년간 1.5%p 감소하였고,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49.8%로 지난 10년간 19.1%p 감소함

- 지난 10년간(2014~2024)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77.6%에서 76.1%로 1.5%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7.3%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0.4%p 증가한 반면, 여자 3.2%p 감소함
- 지난 10년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68.9%에서 49.8%로 19.1%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4.0%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16.9%p, 여자 20.9%p 각각 감소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결혼 · 이혼에 대한 견해 >

(단위: %)

		결혼				이혼			
		해야 한다 ¹⁾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²⁾	잘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된다 ³⁾	할수도있고 하지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65세 이상	2014	77.6	18.8	1.5	2.1	68.9	20.2	7.7	3.2
	2016	75.0	21.8	1.5	1.6	64.1	24.6	9.1	2.2
	2018	73.3	23.2	1.7	1.8	59.8	26.7	10.4	3.1
	2020	75.9	19.2	2.6	2.4	55.6	29.1	10.8	4.6
	2022	75.2	21.2	1.5	2.0	50.3	33.0	12.2	4.6
	2024	76.1	21.0	1.4	1.5	49.8	32.4	13.7	4.1
	2024	76.1	21.0	1.4	1.5	49.8	32.4	13.7	4.1
남자	2014	79.8	17.6	1.2	1.3	68.9	21.1	7.4	2.6
	2024	80.2	17.5	0.9	1.3	52.0	32.3	11.7	4.0
여자	2014	76.1	19.7	1.7	2.6	68.9	19.5	7.8	3.7
	2024	72.9	23.7	1.7	1.6	48.0	32.5	15.3	4.2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3)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임

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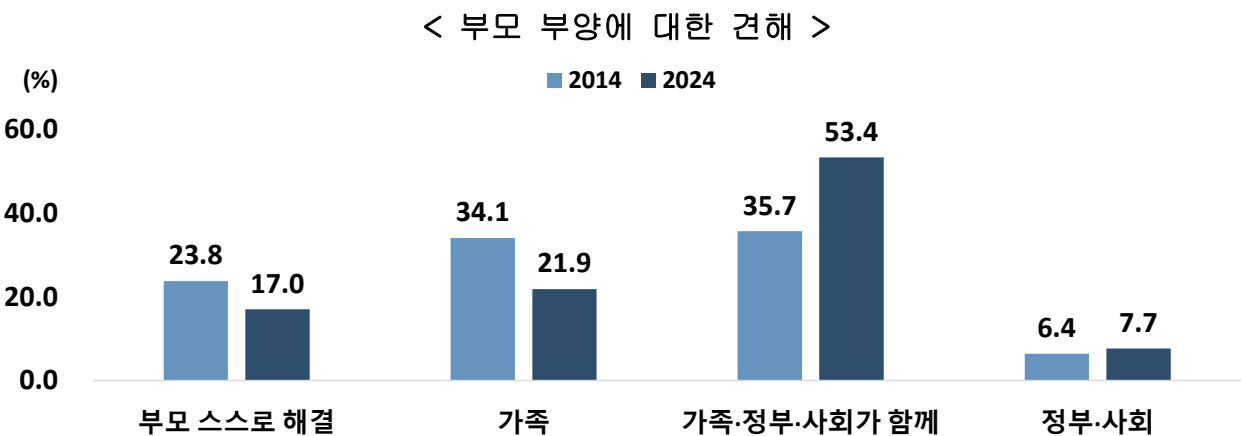
2024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정부·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53.4%로 지난 10년간 17.7%p 증가

□ 지난 10년간(2014~2024)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35.7%에서 53.4%로 17.7%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1.9%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20.1%p, 여자 15.8%p 각각 증가함

□ 지난 10년간 부모 부양을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23.8%에서 17.0%로 6.8%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1.9%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9.8%p, 여자 4.7%p 각각 감소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단위: %)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정부, 사회	기타
65세 이상	2014	100.0	23.8	34.1	35.7	6.4	-
	2016	100.0	27.2	32.6	32.6	7.6	0.0
	2018	100.0	24.9	29.7	37.1	8.4	0.0
	2020	100.0	17.0	27.3	49.9	5.8	0.0
	2022	100.0	13.0	23.6	54.7	8.6	0.0
	2024	100.0	17.0	21.9	53.4	7.7	0.0
남자	2014	100.0	27.9	32.4	34.3	5.4	-
	2024	100.0	18.1	21.1	54.4	6.4	-
여자	2014	100.0	20.9	35.3	36.7	7.1	-
	2024	100.0	16.2	22.5	52.5	8.6	0.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4.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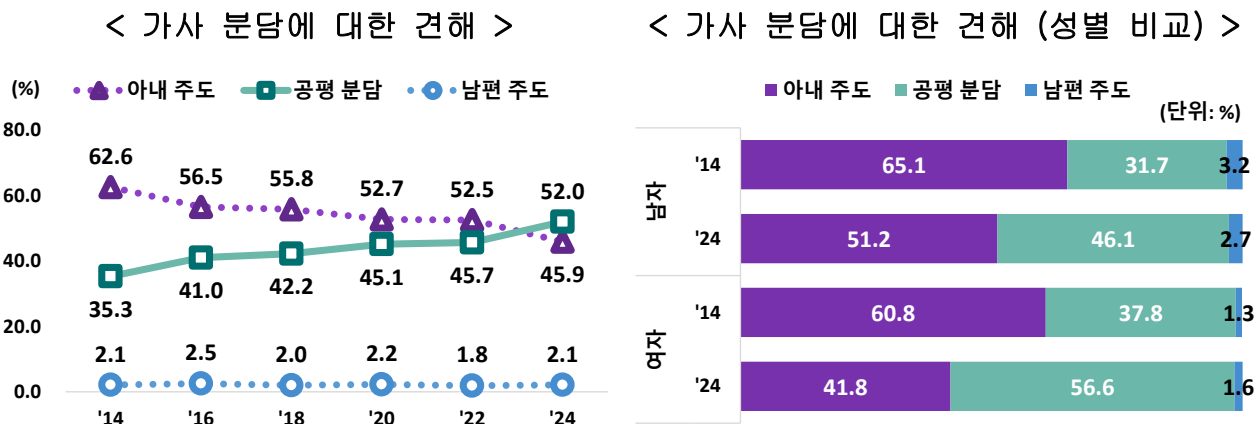
2024년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52.0%이며, 지난 10년간 16.7%p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4~2024)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35.3%에서 52.0%로 16.7%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10.5%p 낮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14.4%p, 여자 18.8%p 각각 증가함

□ 지난 10년간 아내가 가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62.6%에서 45.9%로 16.7%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9.4%p 낮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13.9%p, 여자 19.0%p 각각 감소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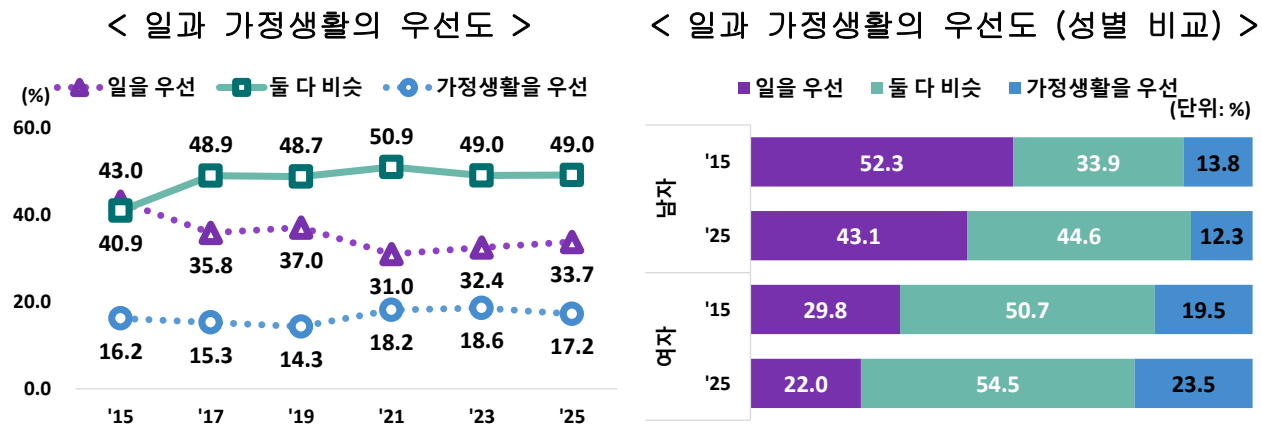
		계	아내가 주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65세 이상	2014	100.0	62.6	12.6	50.0	35.3	2.1	1.7	0.4
	2016	100.0	56.5	9.7	46.8	41.0	2.5	1.9	0.6
	2018	100.0	55.8	9.6	46.2	42.2	2.0	1.6	0.5
	2020	100.0	52.7	8.5	44.1	45.1	2.2	1.6	0.6
	2022	100.0	52.5	7.4	45.1	45.7	1.8	1.4	0.4
	2024	100.0	45.9	6.3	39.6	52.0	2.1	1.5	0.6
남자	2014	100.0	65.1	13.5	51.6	31.7	3.2	2.5	0.7
	2024	100.0	51.2	7.5	43.7	46.1	2.7	2.1	0.6
여자	2014	100.0	60.8	11.9	48.9	37.8	1.3	1.2	0.1
	2024	100.0	41.8	5.4	36.4	56.6	1.6	1.1	0.6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5.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2025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고령자는 49.0%이며, 지난 10년간 그 비중은 8.1%p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5~202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40.9%에서 49.0%로 8.1%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25년 남자가 여자보다 9.9%p 낮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10.7%p, 여자 3.8%p 각각 증가함
- 지난 10년간 일을 우선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43.0%에서 33.7%로 9.3%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25년 남자가 여자보다 21.1%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9.2%p, 여자 7.8%p 각각 감소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

(단위: %)

		계 ¹⁾	일을 우선시	우선	우선시 하는 편	둘 다 비슷	가정생활을 우선시	우선시 하는 편	우선
65세 이상	2015	100.0	43.0	21.7	21.3	40.9	16.2	10.7	5.5
	2017	100.0	35.8	17.6	18.2	48.9	15.3	12.3	3.1
	2019	100.0	37.0	16.8	20.2	48.7	14.3	11.9	2.4
	2021	100.0	31.0	12.3	18.6	50.9	18.2	14.1	4.1
	2023	100.0	32.4	12.6	19.9	49.0	18.6	13.4	5.2
	2025	100.0	33.7	12.6	21.1	49.0	17.2	14.3	3.0
남자	2015	100.0	52.3	25.3	26.9	33.9	13.8	8.6	5.2
	2025	100.0	43.1	15.1	28.0	44.6	12.3	10.2	2.1
여자	2015	100.0	29.8	16.6	13.2	50.7	19.5	13.6	5.9
	2025	100.0	22.0	9.5	12.5	54.5	23.5	19.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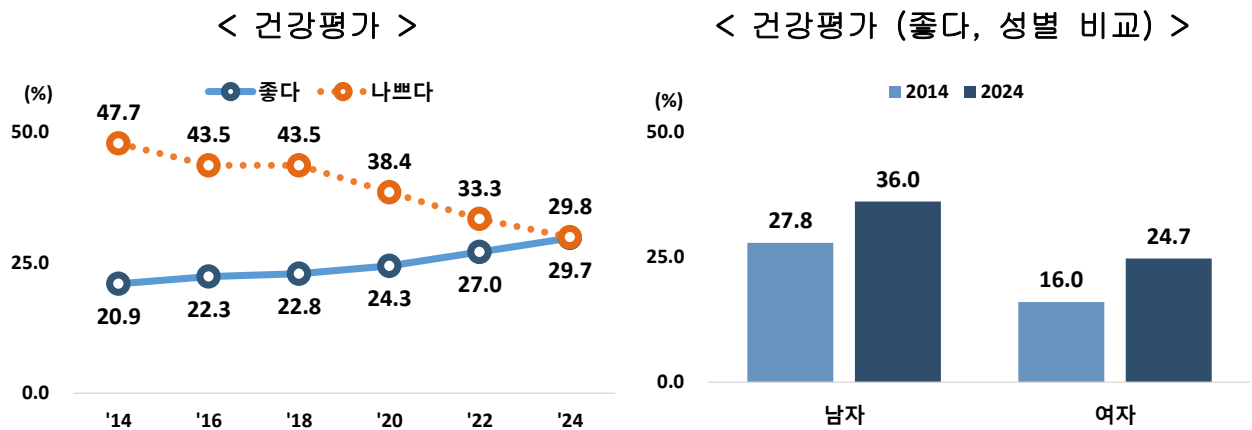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6. 건강평가

2024년 고령자의 29.7%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0년간 그 비중은 8.8%p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4~2024)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중은 20.9%에서 29.7%로 8.8%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11.3%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8.2%p, 여자 8.7%p 각각 증가함
-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중은 47.7%에서 29.8%로 17.9%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24년 남자가 여자보다 10.6%p 낮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14.6%p, 여자 19.9%p 각각 감소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건강평가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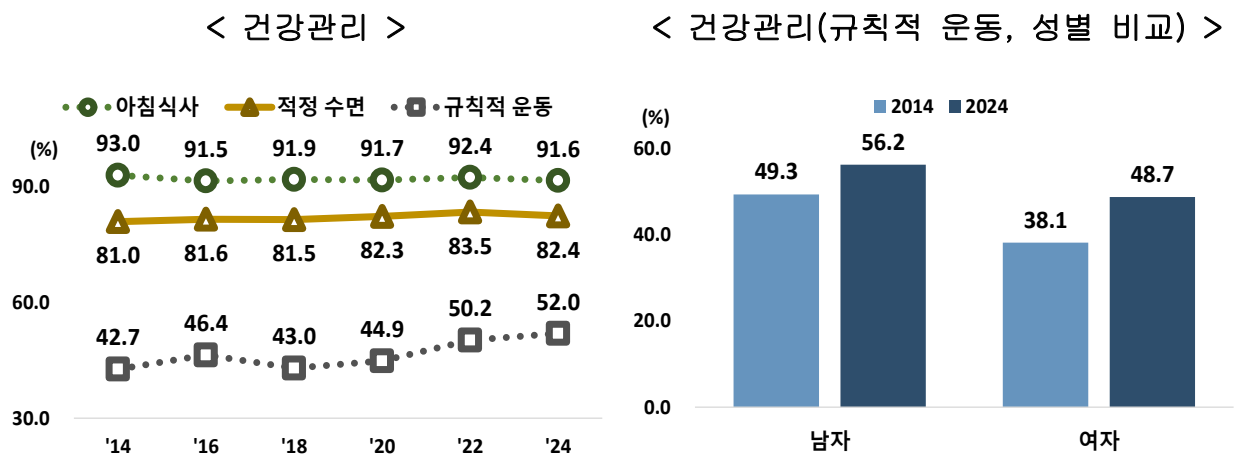
		계	좋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65세 이상	2014	100.0	20.9	2.7	18.2	31.4	47.7	38.4	9.4
	2016	100.0	22.3	3.1	19.2	34.2	43.5	35.5	7.9
	2018	100.0	22.8	2.5	20.3	33.6	43.5	35.1	8.4
	2020	100.0	24.3	3.0	21.3	37.3	38.4	33.2	5.2
	2022	100.0	27.0	2.8	24.2	39.7	33.3	28.8	4.4
	2024	100.0	29.7	3.0	26.7	40.5	29.8	26.2	3.6
남자	2014	100.0	27.8	3.8	24.0	33.7	38.5	30.8	7.7
	2024	100.0	36.0	3.7	32.3	40.1	23.9	21.1	2.7
여자	2014	100.0	16.0	2.0	14.0	29.7	54.4	43.8	10.6
	2024	100.0	24.7	2.5	22.2	40.9	34.5	30.1	4.3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7. 건강관리

2024년 고령자의 걱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10년 전보다 증가함

- '24년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하기를 실천하는 고령자 비중이 91.6%로 가장 높고, 걱정 수면 82.4%, 규칙적인 운동 52.0% 순으로 실천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2014~2024) 규칙적 운동 실천 비중은 9.3%p, 걱정 수면 실천 비중은 1.4%p 증가한 반면, 아침 식사하기는 1.4%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24년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7.5%p 높으며, 지난 10년간 남자 6.9%p, 여자 10.6%p 각각 증가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건강관리 >

(단위: %)

		아침 식사하기		걱정 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2014	93.0	7.0	81.0	19.0	42.7	57.3
	2016	91.5	8.5	81.6	18.4	46.4	53.6
	2018	91.9	8.1	81.5	18.5	43.0	57.0
	2020	91.7	8.3	82.3	17.7	44.9	55.1
	2022	92.4	7.6	83.5	16.5	50.2	49.8
	2024	91.6	8.4	82.4	17.6	52.0	48.0
남자	2014	93.2	6.8	84.1	15.9	49.3	50.7
	2024	91.5	8.5	85.5	14.5	56.2	43.8
여자	2014	92.8	7.2	78.8	21.2	38.1	61.9
	2024	91.7	8.3	80.0	20.0	48.7	51.3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8. 생활비 마련 방법

2025년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74.7%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그 비중은 16.2%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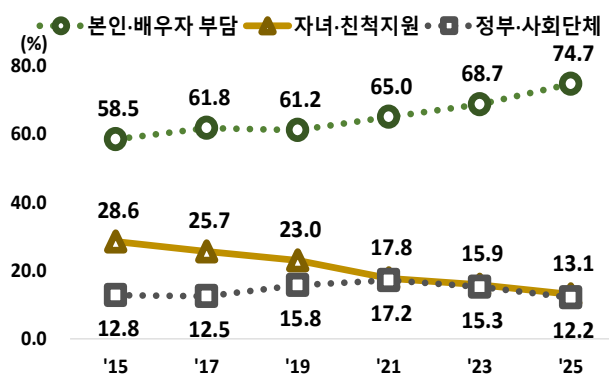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2015~2025)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58.5%에서 74.7%로 16.2%p 증가함

○ '25년 자녀·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는 13.1%로 지난 10년간 15.5%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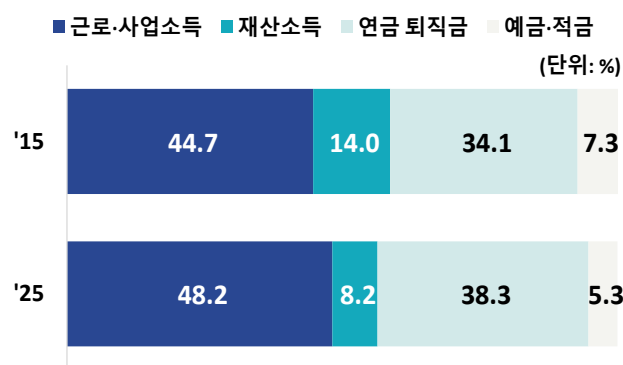
□ '25년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사업소득이 48.2%로 가장 많았고, 연금·퇴직금 38.3%, 재산소득 8.2% 순임

○ 지난 10년간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된 방법에서 연금·퇴직금의 비중은 4.2%p 증가함

< 생활비 마련 주된 방법 >



< 본인, 배우자 부담 생활비 마련 주된 방법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생활비 마련 주된 방법(65세 이상)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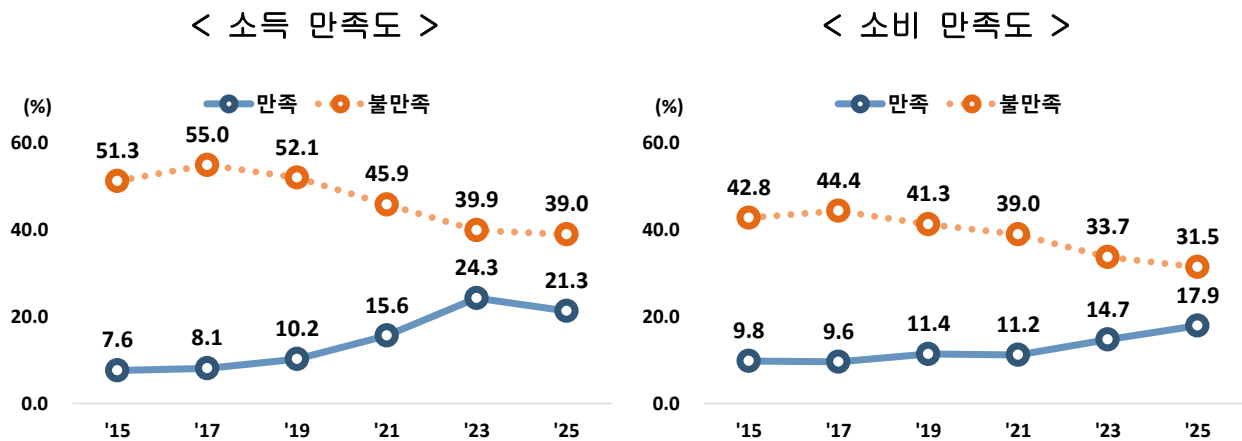
	계	본인· 배우자 부담	소계	근로·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기타	자녀· 친척지원	정부· 사회단체	기타
2015	100.0	58.5	100.0	44.7	14.0	34.1	7.3	-	28.6	12.8	0.1
2017	100.0	61.8	100.0	44.7	12.9	33.2	9.1	0.0	25.7	12.5	-
2019	100.0	61.2	100.0	47.4	12.8	32.1	7.7	0.0	23.0	15.8	-
2021	100.0	65.0	100.0	48.3	10.5	35.1	6.2	0.0	17.8	17.2	-
2023	100.0	68.7	100.0	48.3	10.3	35.6	5.5	0.3	15.9	15.3	0.1
2025	100.0	74.7	100.0	48.2	8.2	38.3	5.3	0.1	13.1	12.2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9. 소득 및 소비 만족도

2025년 고령자의 21.3%는 소득에 만족, 17.9%는 소비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소득 만족 비중은 13.7%p, 소비 만족 비중은 8.1%p 각각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5~2025) 소득에 만족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7.6%에서 21.3%로 13.7%p 증가함
 - 소득에 불만족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51.3%에서 39.0%로 12.3%p 감소함
- 지난 10년간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9.8%에서 17.9%로 8.1%p 증가함
 - 소비생활에 불만족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42.8%에서 31.5%로 11.3%p 감소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소득 및 소비 만족도 >

(단위: %)

		소득 만족도 ¹⁾			소비 만족도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65세 이상	2015	7.6	41.1	51.3	9.8	47.4	42.8
	2017	8.1	36.9	55.0	9.6	46.0	44.4
	2019	10.2	37.7	52.1	11.4	47.3	41.3
	2021	15.6	38.5	45.9	11.2	49.8	39.0
	2023	24.3	35.8	39.9	14.7	51.5	33.7
	2025	21.3	39.7	39.0	17.9	50.6	31.5
남자	2015	8.6	42.5	48.9	11.2	47.8	40.9
	2025	23.7	37.2	39.0	19.8	49.5	30.6
여자	2015	6.6	39.9	53.4	8.7	47.0	44.2
	2025	19.0	42.0	38.9	16.4	51.4	32.2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2)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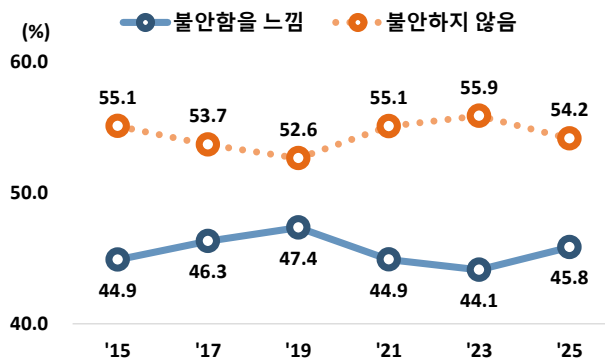
3) '매우 불만족한다'와 '약간 불만족한다'를 합한 수치임

10. 고용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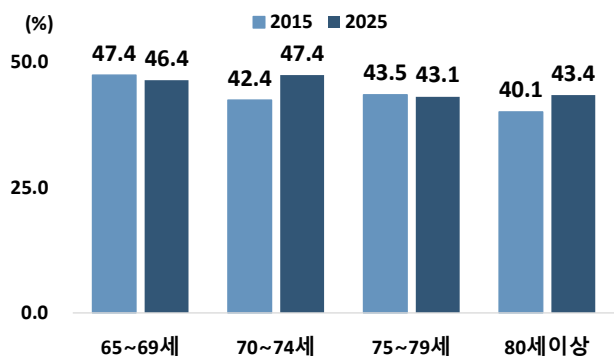
2025년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고령 취업자는 45.8%이며, 지난 10년간 0.9%p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5~2025)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고령자 중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비중은 44.9%에서 45.8%로 0.9%p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46.4%, 70~74세 47.4%, 75~79세 43.1%, 80세 이상 43.4%가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지난 10년간 고용 불안감은 70~74세에서 5.0%p, 80세 이상에서 3.3%p 각각 증가함

< 고용 안정성 >



< 연령별 고용 안정성 (불안함을 느낌)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고용 안정성¹⁾ >

(단위: %)

		전체	불안함을 느낌	매우	약간	불안함을 느끼지 않음	별로	전혀
65세 이상	2015	100.0	44.9	11.9	32.9	55.1	40.3	14.8
	2017	100.0	46.3	12.9	33.4	53.7	35.7	18.0
	2019	100.0	47.4	11.8	35.6	52.6	39.7	12.9
	2021	100.0	44.9	12.3	32.6	55.1	37.4	17.7
	2023	100.0	44.1	9.7	34.4	55.9	38.6	17.2
	2025	100.0	45.8	9.8	36.1	54.2	39.3	14.8
65~69세	2015	100.0	47.4	11.4	36.0	52.6	39.4	13.2
	2025	100.0	46.4	10.5	35.8	53.6	39.8	13.8
70~74세	2015	100.0	42.4	11.6	30.8	57.6	41.9	15.7
	2025	100.0	47.4	8.9	38.5	52.6	36.8	15.8
75~79세	2015	100.0	43.5	13.8	29.7	56.5	41.7	14.9
	2025	100.0	43.1	10.4	32.7	56.9	39.2	17.7
80세 이상	2015	100.0	40.1	13.0	27.1	59.9	37.2	22.7
	2025	100.0	43.4	7.5	35.9	56.6	44.5	12.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조사 기준일 직전 지난 일주일간 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25년은 5.7.~5.13.까지 일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

11. 사회적 관계망

2025년 몸이 아플 때 부탁할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72.5%이며, 지난 10년간 1.4%p 감소, 우울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71.3%이며, 지난 10년간 1.3%p 감소

□ 지난 10년간(2015~2025)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73.9%에서 72.5%로 1.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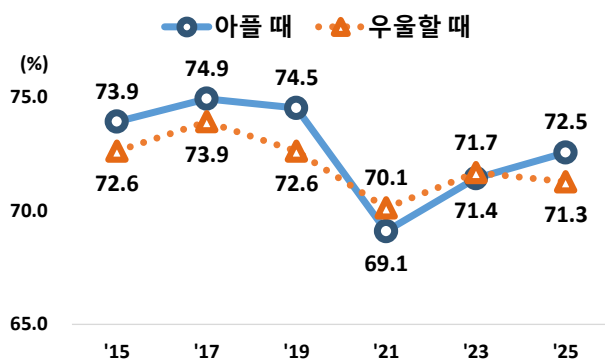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자가 4.8%p 감소한 반면, 여자는 1.2%p 증가함

□ 지난 10년간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72.6%에서 71.3%로 1.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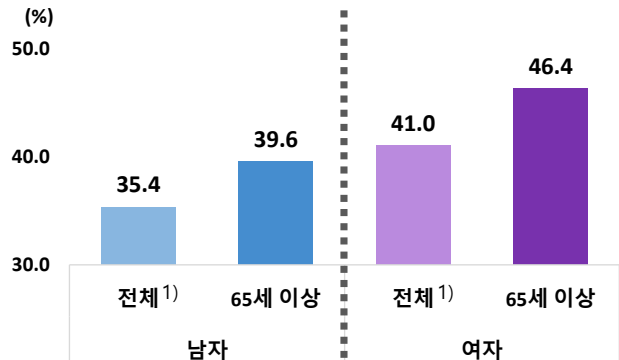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자가 4.7%p 감소한 반면, 여자는 1.4%p 증가함

□ '25년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43.4%로 전체보다 5.1%p 높았음

< 사회적 관계망(아플 때, 우울할 때) >



< 사회적 관계망(외로움)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사회적 관계망 >

(단위: %, 명)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외로움 ¹⁾
		도움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65세 이상	2015	73.9	2.0	35.2	2.0	72.6	2.3	-
	2017	74.9	2.1	36.0	2.0	73.9	2.3	-
	2019	74.5	2.0	33.4	1.9	72.6	2.2	-
	2021	69.1	2.0	33.3	1.9	70.1	2.2	-
	2023	71.4	2.0	36.2	1.9	71.7	2.3	-
	2025	72.5	2.0	35.4	1.8	71.3	2.2	43.4
남자	2015	76.1	2.0	35.6	2.0	71.9	2.3	-
	2025	71.3	2.0	34.4	1.8	67.2	2.2	39.6
여자	2015	72.4	2.0	34.9	2.0	73.1	2.4	-
	2025	73.6	2.0	36.2	1.8	74.5	2.3	46.4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2025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12. 여가생활

2025년 고령자의 주말 여가생활은 동영상 시청 80.3%, 휴식 78.4% 순이고, 지난 10년간 휴식은 27.1%p 증가한 반면, 동영상 시청은 2.8%p 감소함

□ '25년 고령자의 주말(휴일) 여가 활동은 동영상 시청 80.3%, 휴식 78.4% 순이고, 지난 10년간 휴식은 27.1%p 증가한 반면, 동영상 시청은 2.8%p 감소함

< 주말(휴일 포함) 여가 활동¹⁾(65세 이상) >

(단위: %)

	동영상 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인터넷·게임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 활동	기타
2015	83.1	3.0	1.0	1.1	6.4	3.7	2.0	7.1	51.3	15.4	2.3
2017	86.2	4.5	1.2	1.3	11.0	8.0	3.3	11.8	70.0	18.9	0.5
2019	87.3	4.1	1.3	1.9	9.7	6.8	4.6	12.1	74.8	23.5	0.3
2021	88.3	2.4	1.8	1.1	12.7	2.5	7.5	15.0	77.5	14.2	0.7
2023	81.5	3.8	1.6	2.5	8.3	8.1	6.2	13.7	80.0	19.6	0.9
2025	80.3	4.0	1.6	1.8	8.5	10.5	6.8	12.9	78.4	21.2	0.2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1순위, 2순위, 3순위 복수응답

□ '25년 고령자의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27.1%, 10년 전보다 10.5%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하는 비중은 22.4%로 10년 전보다 6.7%p 감소함

□ '25년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42.6%, 건강, 체력 문제 39.3%, 시간 부족 7.6% 순임

○ 지난 10년간 경제적 부담은 9.5%p 감소한 반면, 건강·체력문제는 5.0%p 증가함

< 여가 활용 만족도(65세 이상) >

(단위: %)

	계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프로그램 부족 ³⁾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문제	함께 할 사람 없음	기타 ⁴⁾
2015	100.0	16.6	54.3	29.1	52.1	5.4	0.7	0.7	0.6	-	3.6	34.3	2.2	0.3
2017	100.0	17.8	49.7	32.5	53.0	4.7	1.6	0.9	1.0	-	3.7	33.0	2.0	0.0
2019	100.0	19.2	50.4	30.4	45.5	5.6	0.8	0.8	1.0	-	4.3	40.0	2.1	0.0
2021	100.0	17.2	55.3	27.5	43.8	4.9	1.1	2.4	1.1	1.6	5.0	33.3	2.4	4.5
2023	100.0	22.9	52.9	24.2	42.0	7.7	0.7	1.3	0.6	0.8	4.9	39.2	2.5	0.2
2025	100.0	27.1	50.5	22.4	42.6	7.6	1.3	1.2	0.7	0.4	3.7	39.3	2.4	0.7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수치임

2) '매우 불만족한다'와 '약간 불만족한다'를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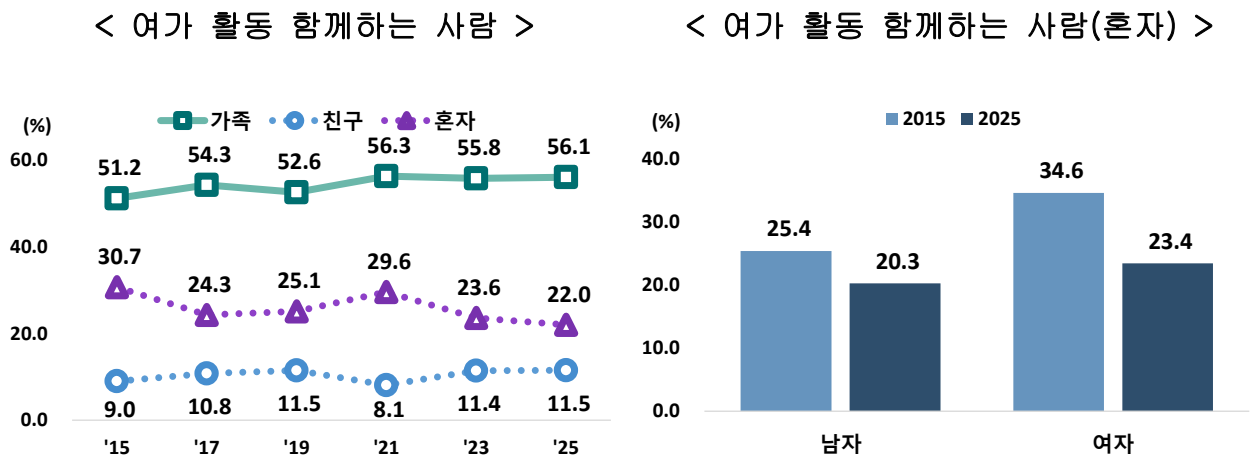
3) 2021년 신설 항목임

4)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사유로 불만족한 경우 '기타'에 포함

13. 여가 활동 함께하는 사람

2025년 고령자가 주말·휴일에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 56.1%, 혼자 22.0%, 친구 11.5% 순이며 10년 전에 비해 가족, 친구 비중은 증가한 반면 혼자는 감소함

- '25년 고령자의 주말(휴일)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 56.1%, 혼자 22.0%, 친구 11.5%, 동호회 활동 9.7% 순임
- 지난 10년간 가족과 여가 활동을 즐기는 비중은 4.9%p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여자는 9.3%p 증가한 반면, 남자는 1.3%p 감소함
 - 10년 전에 비해 혼자는 8.7%p 감소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 5.1%p, 여자 11.2%p 각각 감소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주말·휴일) >

(단위: %)

		계	가족	친구	동호회 활동	혼자	직장 동료 ¹⁾	기타
65세 이상	2015	100.0	51.2	9.0	8.9	30.7	-	0.2
	2017	100.0	54.3	10.8	10.2	24.3	0.4	0.1
	2019	100.0	52.6	11.5	10.2	25.1	0.6	0.0
	2021	100.0	56.3	8.1	5.7	29.6	0.3	0.1
	2023	100.0	55.8	11.4	8.7	23.6	0.3	0.2
	2025	100.0	56.1	11.5	9.7	22.0	0.4	0.2
남자	2015	100.0	59.6	7.9	7.0	25.4	-	0.1
	2025	100.0	58.3	11.4	9.3	20.3	0.6	0.1
여자	2015	100.0	45.0	9.8	10.3	34.6	-	0.2
	2025	100.0	54.3	11.6	10.1	23.4	0.3	0.3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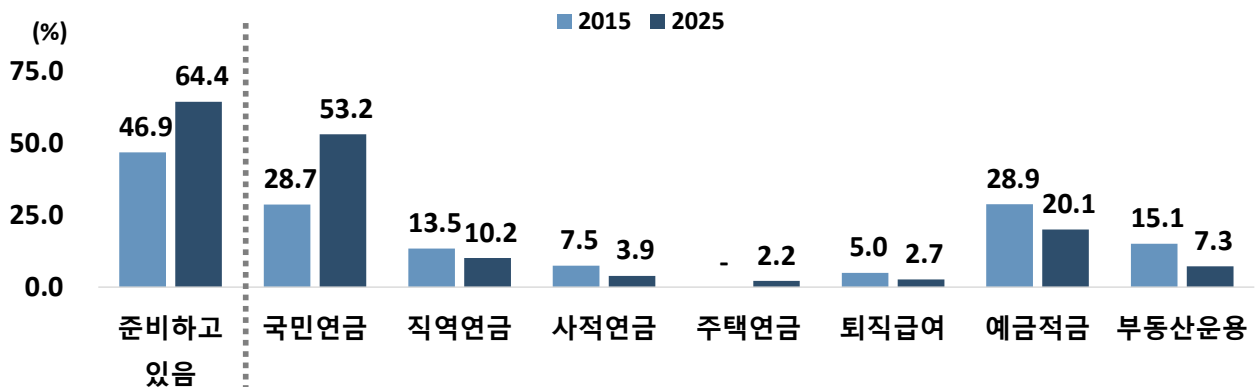
주: 1) 2017년 신설 항목임

14. 노후 준비 방법

2025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64.4%로 지난 10년간 17.5%p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5~2025)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는 고령자는 46.9%에서 64.4%로 17.5%p 증가함
 - '25년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53.2%, 예·적금 20.1%, 직역연금 10.2% 순이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24.5%p 증가하였으나, 예·적금은 8.8%p 감소함
- 지난 10년간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는 고령자는 53.1%에서 35.6%로 17.5%p 감소함
 - '25년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 64.3%, 자녀에게 의탁 25.2% 순이고,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의탁은 9.4%p 감소함

< 노후 준비 방법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노후 준비 방법¹⁾ >

(단위: %)

	계	준비하고 있음	소계	국민연금	직역연금 ²⁾	사적연금	주택연금 ³⁾	퇴직급여	예·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⁴⁾	준비하고 있지 않음	소계	아직 생각 안 함	앞으로 준비	준비 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기타
2015	100.0	46.9	100.0	28.7	13.5	7.5	-	5.0	28.9	15.1	1.2	53.1	100.0	3.0	6.1	56.3	34.6	-
2017	100.0	48.0	100.0	29.9	14.7	8.3	-	4.3	27.4	15.2	0.2	52.0	100.0	3.2	4.9	58.0	33.5	0.3
2019	100.0	48.6	100.0	31.1	13.0	8.1	-	4.7	27.9	14.6	0.6	51.4	100.0	3.4	6.2	61.1	29.2	0.1
2021	100.0	56.7	100.0	48.4	11.1	5.2	4.1	3.7	17.1	9.9	0.4	43.3	100.0	3.3	8.3	59.1	29.0	0.2
2023	100.0	59.5	100.0	47.5	11.0	4.6	3.3	3.5	19.8	9.9	0.5	40.5	100.0	3.1	6.7	60.9	28.5	0.8
2025	100.0	64.4	100.0	53.2	10.2	3.9	2.2	2.7	20.1	7.3	0.4	35.6	100.0	3.3	7.0	64.3	25.2	0.3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주된 응답 기준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3) 2021년 신설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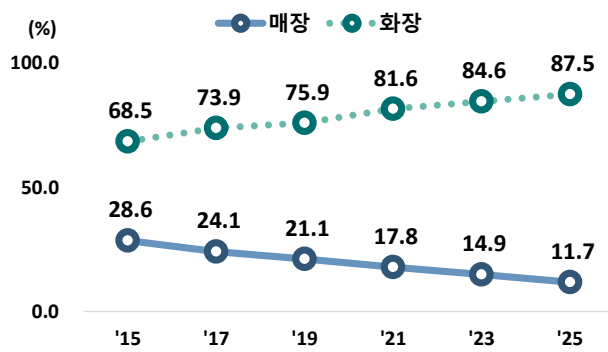
4) '주식, 채권 등'과 '기타' 응답을 합한 비중임

15. 선호하는 장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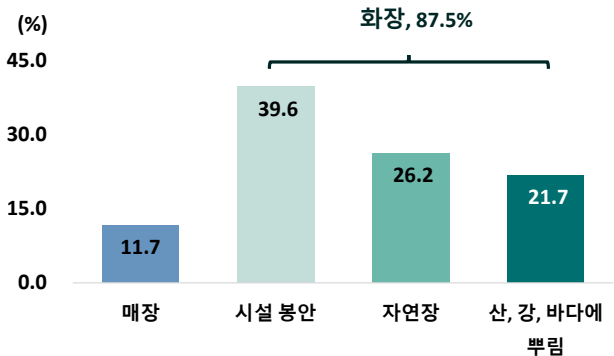
2025년 고령자 본인의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87.5%, 매장 11.7%이고, 지난 10년간 화장은 19.0%p 증가, 매장은 16.9%p 감소함

- 지난 10년간(2015~2025) 고령자 본인의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68.5%에서 87.5%로 19.0%p 증가하였고, 매장 28.6%에서 11.7%로 16.9%p 감소함
-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고령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25년 선호하는 화장 방법으로 화장 후 시설 봉안이 39.6%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 26.2%, 산·강·바다에 뿌림 21.7% 순임

< 선호하는 장례 방법 >



< 선호하는 장례 방법 (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선호하는 장례 방법(65세 이상) >

(단위: %)

	계	매장	화장	시설 봉안	자연장	산·강·바다에 뿌림 ¹⁾	기타
2015	100.0	28.6	68.5	37.3	31.2	-	2.9
2017	100.0	24.1	73.9	45.1	28.7	-	2.0
2019	100.0	21.1	75.9	43.0	32.9	-	3.0
2021	100.0	17.8	81.6	37.9	22.2	21.5	0.6
2023	100.0	14.9	84.6	39.4	23.8	21.5	0.6
2025	100.0	11.7	87.5	39.6	26.2	21.7	0.8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2021년 신설 항목임

2026 고령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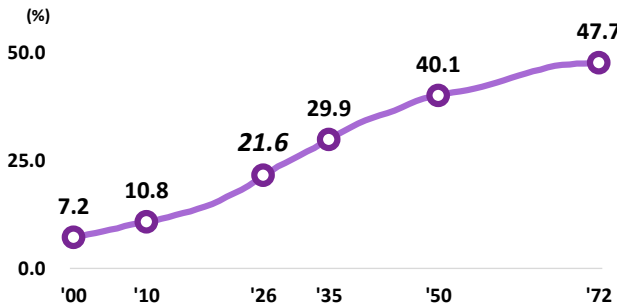
2026 고령자 통계 (요약)

I 인구 · 가구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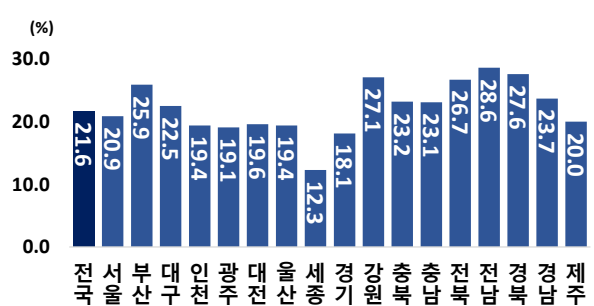
-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6%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36년에 30%, '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22쪽)
- '26년 고령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여자 중 고령인구 23.9%, 남자 중 고령인구 19.2%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7%p 높음(23쪽)
- '26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21.6%)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28.6%), 경북(27.6%), 강원(27.1%), 전북(26.7%), 부산(25.9%), 경남(23.7%) 등 총 9곳임(24쪽)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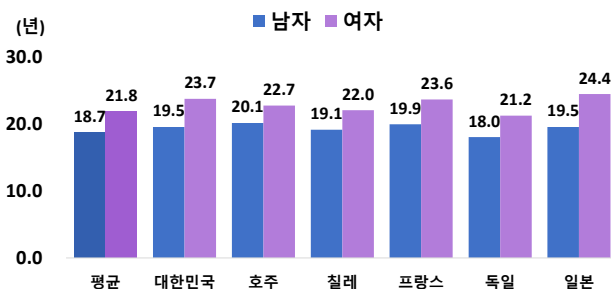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II 건강

2024년 65세 기대여명은 21.7년, 75세 기대여명은 1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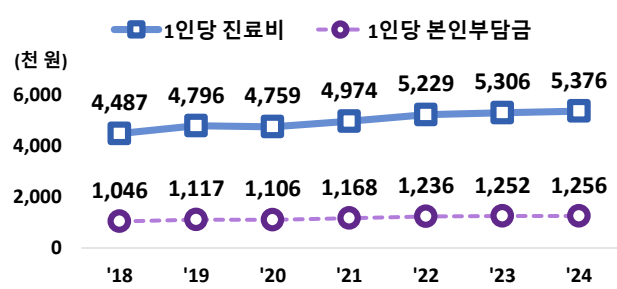
- '24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7년(남자 19.5년, 여자 2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0.8년, 여자는 1.9년 더 높은 수준임(28쪽)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7만 6천 원, 본인부담금은 125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만 원, 4천 원 증가함(30쪽)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함(31쪽)

< 기대여명(65세, 2024)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6.9.1. 기준)

< 고령자(65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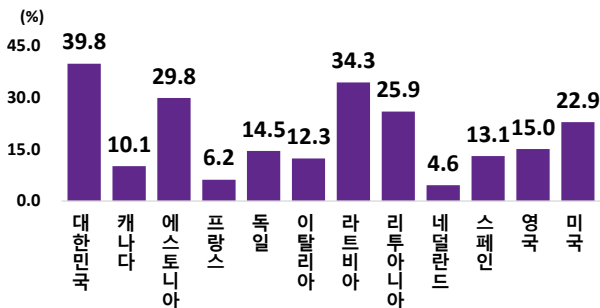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III 소득보장

2025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4억 9,279만 원,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률은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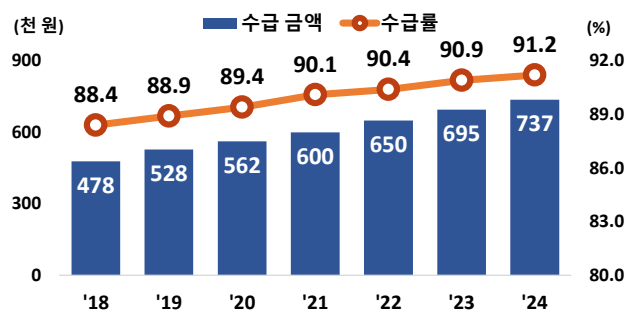
- '25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9,2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5만 원 증가함(35쪽)
- '24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고, 지니계수는 0.377, 소득 5분위 배율은 6.9배임(36쪽)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1.2%, 월평균 수급 금액은 73만 7천 원임(37쪽)

<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23)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6.9.1. 기준)

< 연금 수급률 및 월평균 수급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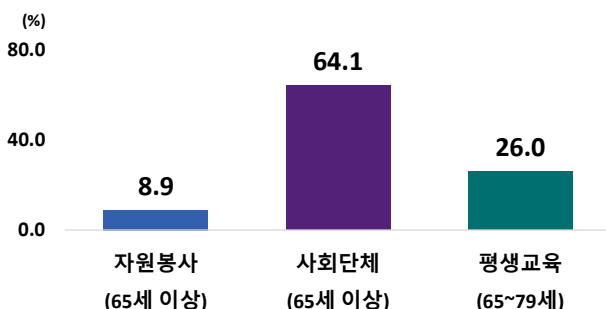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IV 사회참여·관계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8.9%, 19세 이상 성인 중 11.9%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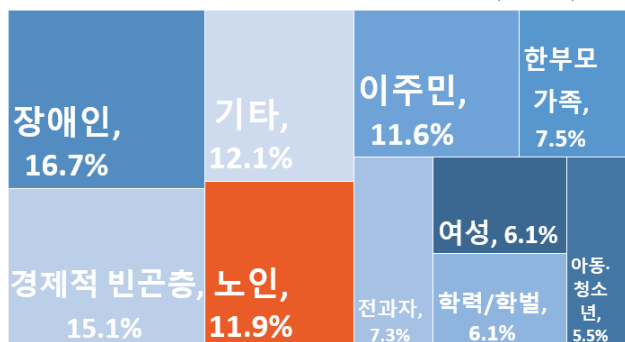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8.9%, 단체 참여율은 64.1%, 평생교육 참여율(65~79세)은 26.0%임(41~43쪽)
- '25년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11.9%가 「노인」을 꼽았으며, 장애인(16.7%), 경제적 빈곤층(15.1%) 다음으로 높음(44쪽)

< 사회참여(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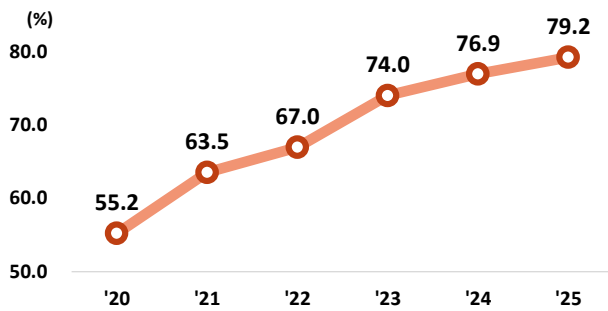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V 생활환경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79.2%,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96.0%,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 부상률은 10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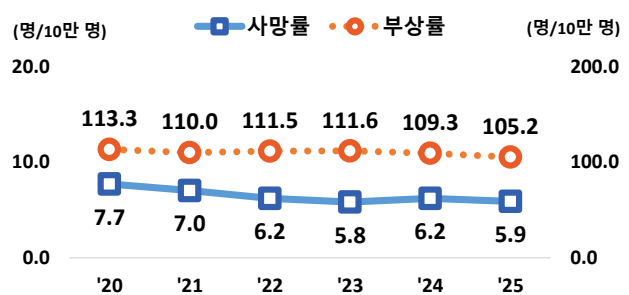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9.2%가 인터넷을 이용하였고, 96.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카카오톡(99.5%), 네이버밴드 메신저(9.2%) 등을 사용함(46·47쪽)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감소하였고, 부상률은 105.2명으로 4.1명 감소함(49쪽)
- '25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33.1%이며, 부상자 비중은 23.4%로 전년 대비 각각 2.9%p, 1.9%p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50쪽)

< 인터넷 이용률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 및 부상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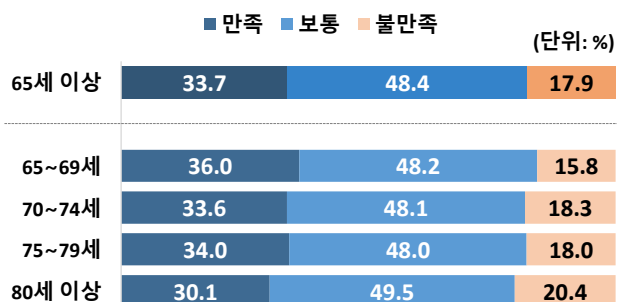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VI 주관적 웰빙

2025년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33.7%이고,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고령자는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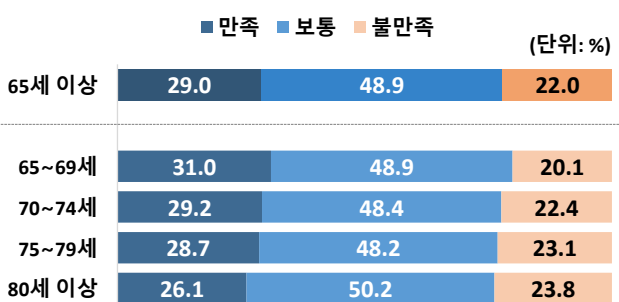
- '25년 65세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3.7%로 전년 대비 1.8%p 감소함(53쪽)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9.0%로 전년 대비 4.2%p 증가함(54쪽)

< 삶에 대한 만족도(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성취에 대한 만족도(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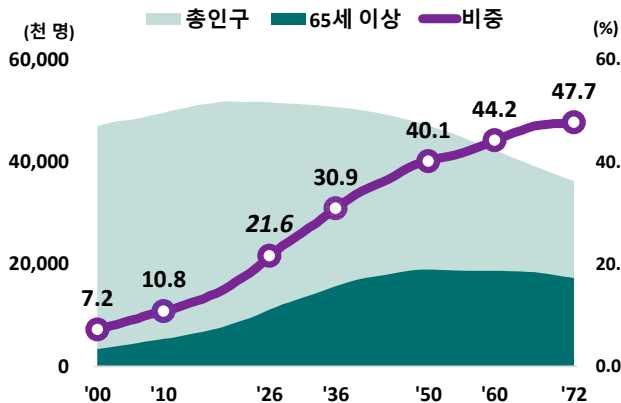
I. 인구 · 가구

1.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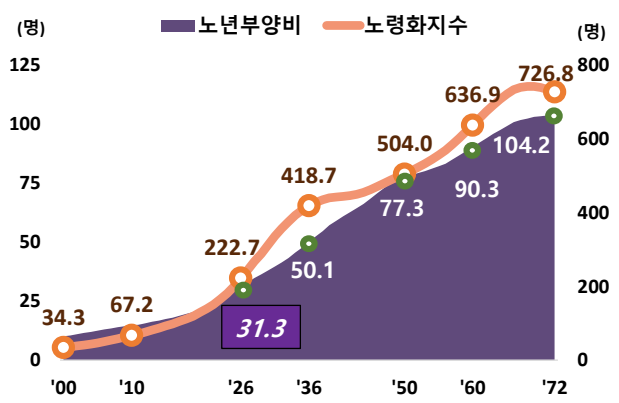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함

-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6%인 1,112만 5천 명임
 -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36년 30%, '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6년 31.3명이며, '36년 50.1명, '66년 10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	3,395	7.2	10.1	34.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6	51,609	11,125	21.6	31.3	222.7
2030	51,306	12,980	25.3	38.0	312.0
2036	50,701	15,674	30.9	50.1	418.7
2040	50,059	17,151	34.3	59.1	442.2
2050	47,107	18,908	40.1	77.3	504.0
2060	42,302	18,682	44.2	90.3	636.9
2072	36,222	17,271	47.7	104.2	726.8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통계표 (57쪽) 참조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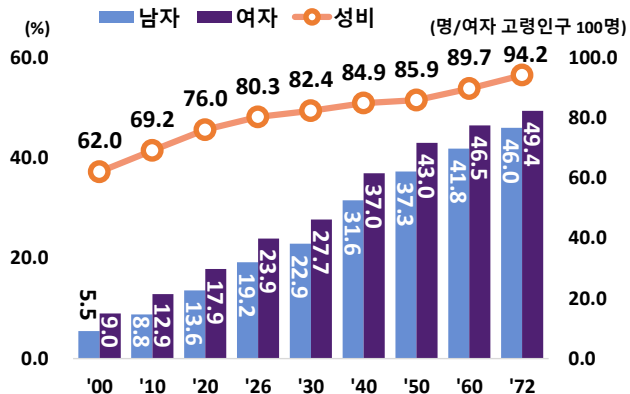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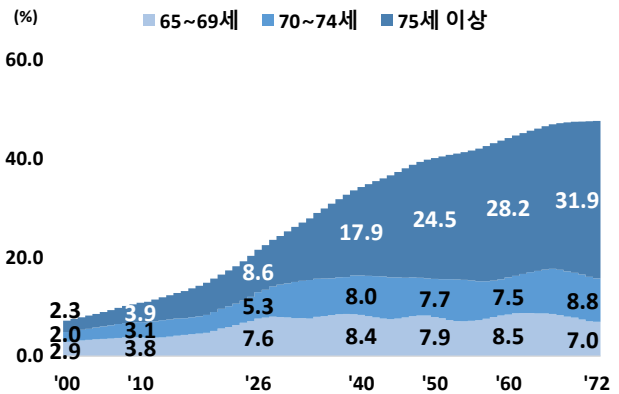
2026년 65세 이상 성별 고령인구 비중은 여자 23.9%, 남자 19.2%로 여자 비중이 높음

- '26년 고령인구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중 고령인구 23.9%, 남자 중 고령인구 19.2%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7%p 높음
 -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6년 80.3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50년 85.9명으로 전망됨
-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21.6%)를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7.6%, 70~74세 5.3%, 75세 이상 8.6%임
 - '26년 65~74세 인구(669만 명)가 75세 이상 인구(443만 5천 명)보다 많으나, '38년부터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65세 이상	성별					연령대별					
		남자	비중 ¹⁾	여자	비중 ¹⁾	성비 ²⁾	65~69세	비중 ³⁾	70~74세	비중 ³⁾	75세 이상	비중 ³⁾
2000	3,395	1,300	5.5	2,095	9.0	62.0	1,381	2.9	922	2.0	1,091	2.3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1,878	3.8	1,540	3.1	1,948	3.9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662	5.1	1,990	3.8	3,499	6.8
2026	11,125	4,954	19.2	6,171	23.9	80.3	3,937	7.6	2,753	5.3	4,435	8.6
2030	12,980	5,862	22.9	7,118	27.7	82.4	4,037	7.9	3,528	6.9	5,415	10.6
2038	16,492	7,559	30.1	8,933	35.3	84.6	4,329	8.6	3,765	7.5	8,399	16.7
2040	17,151	7,874	31.6	9,277	37.0	84.9	4,185	8.4	3,987	8.0	8,979	17.9
2050	18,908	8,738	37.3	10,170	43.0	85.9	3,743	7.9	3,632	7.7	11,533	24.5
2060	18,682	8,834	41.8	9,848	46.5	89.7	3,583	8.5	3,155	7.5	11,943	28.2
2072	17,271	8,377	46.0	8,894	49.4	94.2	2,534	7.0	3,173	8.8	11,564	31.9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

☞ 통계표 (58~59쪽) 참조

주: 1) 성별 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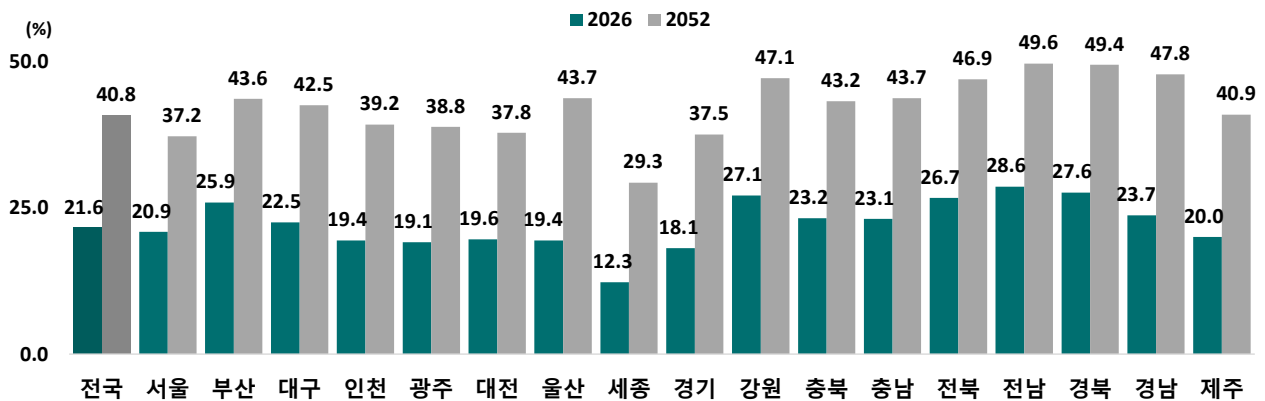
3) 연령대별 비중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인구} × 100

2. 지역별 고령인구

2026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8.6%),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2.3%)임

- '26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21.6%)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28.6%), 경북(27.6%), 강원(27.1%), 전북(26.7%), 부산(25.9%), 경남(23.7%), 충북(23.2%) 등 총 9곳임
- '52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9.6%), 경북(49.4%), 경남(47.8%) 순으로 높고, 세종(29.3%), 서울(37.2%), 경기(37.5%) 순으로 낮음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2026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28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38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52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11,125	21.6		12,125	23.6		16,492	32.7		18,861	40.8	
서울	1,942	20.9	10	2,080	22.6	10	2,669	30.3	14	2,950	37.2	16
부산	831	25.9	5	887	28.1	5	1,065	36.6	6	1,068	43.6	8
대구	521	22.5	9	565	24.8	9	733	34.8	7	762	42.5	10
인천	596	19.4	13	666	21.6	13	964	30.8	12	1,161	39.2	12
광주	274	19.1	15	297	20.9	15	406	30.4	13	458	38.8	13
대전	285	19.6	12	310	21.5	14	419	30.3	14	472	37.8	14
울산	210	19.4	14	235	22.0	11	336	34.2	10	361	43.7	7
세종	50	12.3	17	57	13.5	17	98	20.2	17	157	29.3	17
경기	2,545	18.1	16	2,843	20.1	16	4,229	29.1	16	5,176	37.5	15
강원	411	27.1	3	447	29.5	3	596	39.2	3	677	47.1	4
충북	379	23.2	7	414	25.3	7	570	34.8	8	667	43.2	9
충남	515	23.1	8	560	25.0	8	780	34.3	9	955	43.7	6
전북	463	26.7	4	494	28.8	4	628	38.8	4	680	46.9	5
전남	498	28.6	1	528	30.6	1	672	40.8	1	742	49.6	1
경북	709	27.6	2	763	30.0	2	988	40.7	2	1,071	49.4	2
경남	761	23.7	6	831	26.2	6	1,125	37.8	5	1,241	47.8	3
제주	135	20.0	11	149	21.9	12	213	31.5	11	263	40.9	11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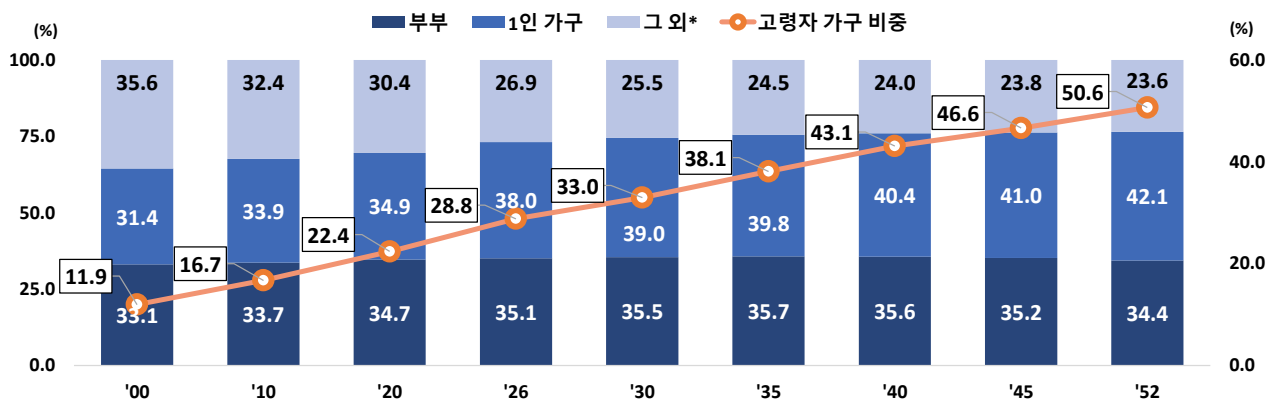
☞ 통계표 (60~61쪽) 참조

3. 고령자 가구

2026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8%임

- '26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650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8%임
- '26년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가구가 38.0%로 가장 많고, 부부가구 35.1%, 부부+미혼자녀가구 9.1%, 부(모)+미혼자녀가구 5.6% 순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8년에는 천만 가구를 넘고, '52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6%로 전망됨

<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 그 외: 부부+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기타

<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기타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 미혼자녀	구성비	부(모)+ 미혼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6	22,598	6,507	28.8	2,282	35.1	593	9.1	363	5.6	2,476	38.0	793	12.2
2030	23,349	7,694	33.0	2,728	35.5	667	8.7	427	5.5	3,004	39.0	868	11.3
2035	24,020	9,151	38.1	3,269	35.7	753	8.2	509	5.6	3,642	39.8	979	10.7
2038	24,274	10,025	41.3	3,578	35.7	808	8.1	562	5.6	4,022	40.1	1,055	10.5
2040	24,358	10,491	43.1	3,736	35.6	828	7.9	589	5.6	4,236	40.4	1,102	10.5
2045	24,221	11,291	46.6	3,978	35.2	847	7.5	639	5.7	4,632	41.0	1,196	10.6
2052	23,277	11,788	50.6	4,050	34.4	841	7.1	672	5.7	4,961	42.1	1,265	10.7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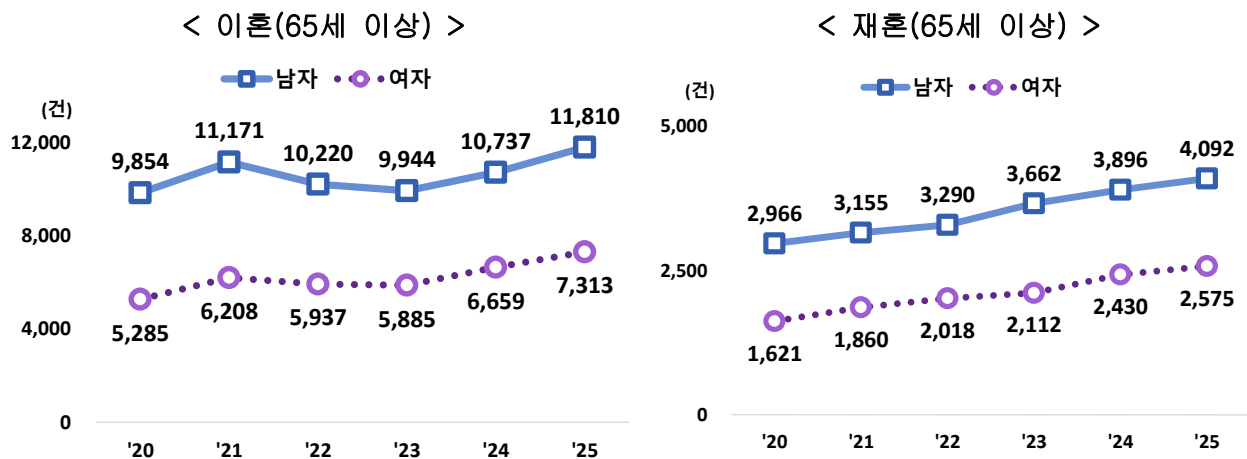
☞ 통계표 (62쪽) 참조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2025년 전체 이혼과 재혼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은 모두 증가함

- '25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0.0%, 9.8% 증가함
 -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4%, 8.3%로 나타남
- '25년 전체 재혼 건수는 남녀 각각 5.4%, 4.4%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5.0%, 6.0% 증가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이혼 및 재혼(65세 이상)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2021	101,673	11,171	11.0	6,208	6.1	31,059	3,155	35,597	1,860
2022	93,232	10,220	11.0	5,937	6.4	31,204	3,290	35,000	2,018
2023	92,394	9,944	10.8	5,885	6.4	31,644	3,662	35,223	2,112
2024	91,151	10,737	11.8	6,659	7.3	31,329	3,896	34,306	2,430
2025	88,130	11,810	13.4	7,313	8.3	29,642	4,092	32,785	2,575
전년대비 증감률	-3.3	10.0	-	9.8	-	-5.4	5.0	-4.4	6.0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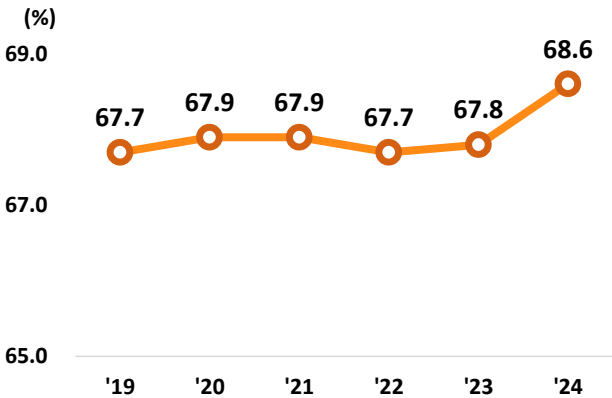
통계표 (63쪽) 참조

5. 주택 소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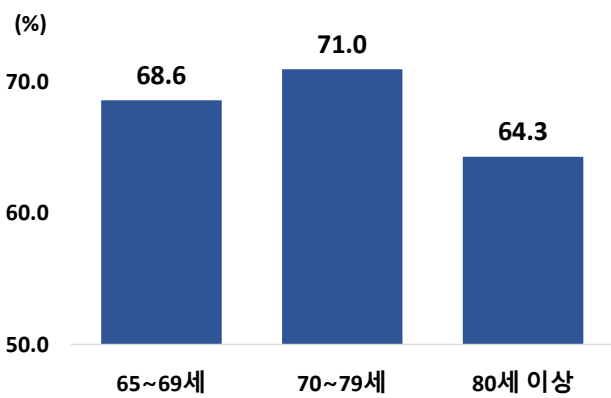
2024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68.6%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4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68.6%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임
-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71.0%로 가장 높고, 65~69세(68.6%), 80세 이상(64.3%) 순임
- '18년까지 65~69세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70대, 8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20년부터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았음

<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 >



<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202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 가구의 주택 소유율(65세 이상)¹⁾²⁾ >

(단위: %)

	65세 이상	가구주 연령대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2021	67.9	69.2	70.4	60.7
2022	67.7	68.7	70.4	61.2
2023	67.8	68.4	70.6	62.1
2024	68.6	68.6	71.0	64.3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표 (64쪽) 참조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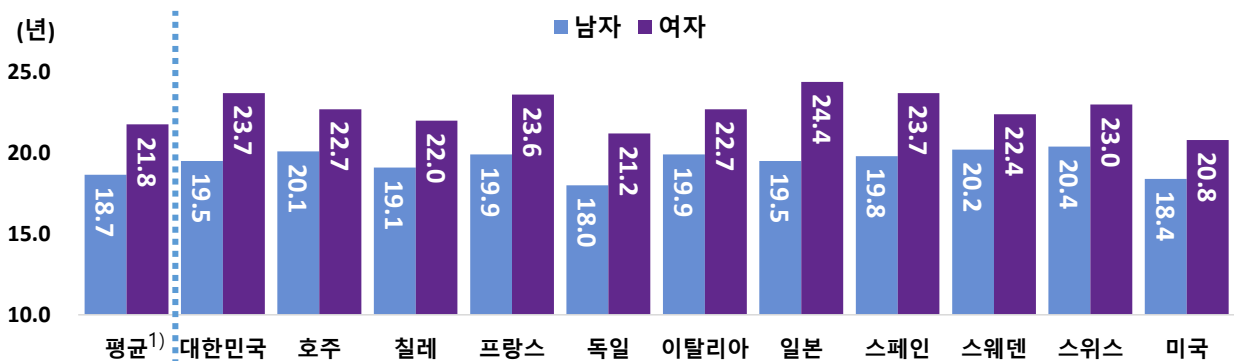
II. 건강

6. 기대여명

2024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7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5년

- '24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7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5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년, 0.3년 늘어남
- 65세 여자(23.7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9.5년)보다 4.2년 더 길고, 75세 여자(14.9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1.8년)보다 3.0년 더 길었음
- '24년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9년 높으며, 남자는 0.8년 더 높음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24)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6.9.1. 기준)

주: 1) OECD 38개국 중 2024년 기준의 자료가 공표된 36개국의 산술평균임

< 연령별 기대여명¹⁾²⁾ >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2000	16.4	14.3	18.2	3.9	9.8	8.5	10.7	2.2
2010	19.1	16.8	21.2	4.4	11.6	10.0	12.9	2.9
2015	20.3	18.2	22.4	4.2	12.4	10.8	13.7	2.9
2020	21.5	19.2	23.6	4.3	13.3	11.6	14.7	3.1
2021	21.6	19.3	23.7	4.4	13.4	11.7	14.9	3.2
2022	20.7	18.6	22.8	4.1	12.6	11.0	14.0	2.9
2023	21.5	19.2	23.6	4.3	13.2	11.6	14.7	3.1
2024	21.7	19.5	23.7	4.2	13.5	11.8	14.9	3.0

자료: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 통계표 (65쪽) 참조

주: 1) 특정 연령(x세)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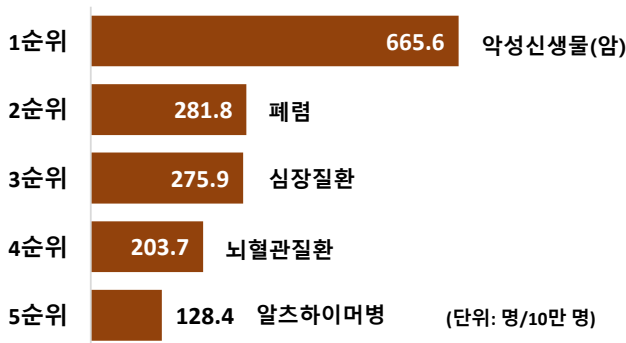
2)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7. 사망원인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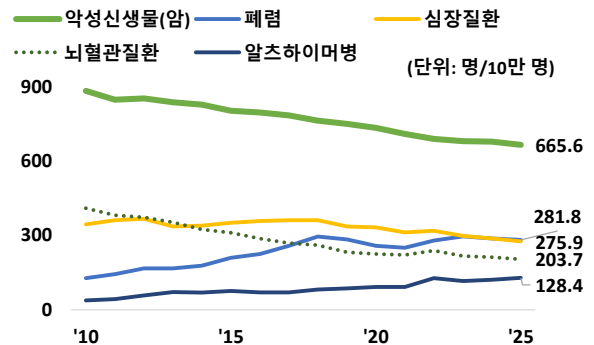
2025년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폐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순임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665.6명, 폐렴 281.8명, 심장질환 275.9명 순임
-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20년 91.4명에서 '25년 128.4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3.8배, 폐렴 4.6배, 심장질환 4.2배, 뇌혈관질환 4.2배 수준임

<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 순위(2025) >



<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65세 이상)¹⁾²⁾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2000	2010	2020	2024	2025
전체 인구	1순위	악성신생물(암) (122.4)	악성신생물(암) (144.4)	악성신생물(암) (160.1)	악성신생물(암) (174.3)	악성신생물(암) (177.1)
	2순위	뇌혈관질환 (73.6)	뇌혈관질환 (53.2)	심장질환 (63.0)	심장질환 (65.7)	심장질환 (66.3)
	3순위	심장질환 (38.7)	심장질환 (46.9)	폐렴 (43.3)	폐렴 (59.0)	폐렴 (60.8)
	4순위	간질환 (23.0)	고의적 자해(자살) (31.2)	뇌혈관질환 (42.6)	뇌혈관질환 (48.2)	뇌혈관질환 (48.7)
	5순위	당뇨병 (22.7)	당뇨병 (20.7)	고의적 자해(자살) (25.7)	고의적 자해(자살) (29.1)	고의적 자해(자살) (27.8)
고령 인구 (65세 이상)	1순위	악성신생물(암) (937.3)	악성신생물(암) (882.4)	악성신생물(암) (733.3)	악성신생물(암) (678.8)	악성신생물(암) (665.6)
	2순위	뇌혈관질환 (789.9)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31.9)	폐렴 (288.0)	폐렴 (281.8)
	3순위	심장질환 (363.5)	심장질환 (344.0)	폐렴 (257.5)	심장질환 (287.3)	심장질환 (275.9)
	4순위	당뇨병 (220.0)	당뇨병 (153.1)	뇌혈관질환 (225.3)	뇌혈관질환 (211.5)	뇌혈관질환 (203.7)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210.3)	폐렴 (127.6)	알츠하이머병 (91.4)	알츠하이머병 (121.0)	알츠하이머병 (128.4)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 통계표 (66~6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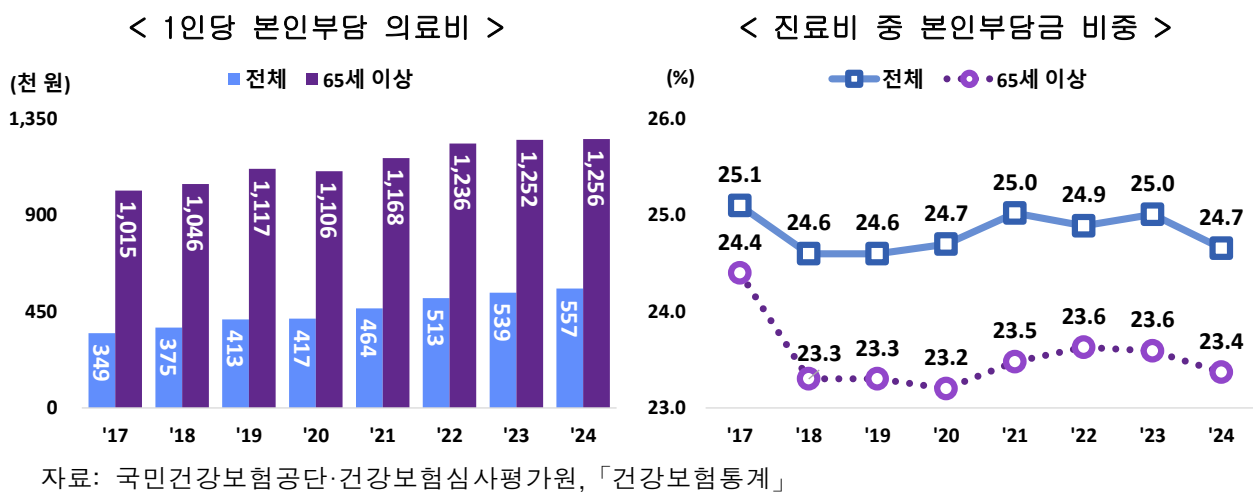
주: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2) 만성하기도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8. 본인부담 의료비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7만 6천 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125만 6천 원으로 나타남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1인당 537만 6천 원,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5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만 원, 4천 원 증가함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본인부담금 23.4%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함
 - 1인당 본인부담금은 65~74세 10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천 원 증가하였고, 75세 이상 15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5천 원 증가함



<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단위: 천 원, %)

	전체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1인당 진료비 ¹⁾	1인당 본인부담금 ²⁾	본인부담금 비중 ³⁾	1인당 진료비	1인당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중	1인당 진료비	1인당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중	1인당 진료비	1인당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중
2016	1,284	324	25.2	3,921	955	24.4	3,205	784	24.5	4,941	1,200	24.3
2017	1,389	349	25.1	4,162	1,015	24.4	3,372	838	24.8	5,233	1,255	24.0
2018	1,526	375	24.6	4,487	1,046	23.3	3,614	849	23.5	5,659	1,310	23.2
2019	1,676	413	24.6	4,796	1,117	23.3	3,881	912	23.5	6,039	1,395	23.1
2020	1,689	417	24.7	4,759	1,106	23.2	3,851	904	23.5	6,049	1,393	23.0
2021	1,856	464	25.0	4,974	1,168	23.5	4,070	968	23.8	6,284	1,458	23.2
2022	2,059	513	24.9	5,229	1,236	23.6	4,271	1,029	24.1	6,624	1,536	23.2
2023	2,153	539	25.0	5,306	1,252	23.6	4,314	1,037	24.0	6,756	1,566	23.2
2024	2,260	557	24.7	5,376	1,256	23.4	4,357	1,038	23.8	6,888	1,581	2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통계표 (68~69쪽) 참조

주: 1)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2)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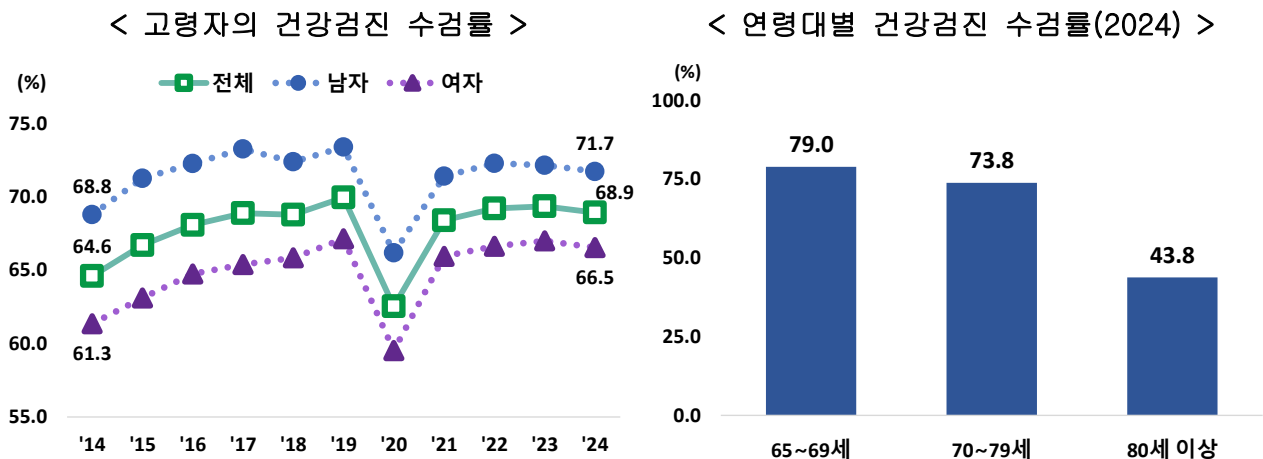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 2024년 건강보험 적용인구(65세 이상: 9,709,366명, 65~74세: 5,802,757명, 75세 이상: 3,906,609명)

9. 건강검진 수검률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함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함
-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79.0%)가 가장 높았고, 70~79세(73.8%), 80세 이상(43.8%)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음
 - 전년 대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 0.4%p 감소, 70~79세 0.3%p 감소, 80세 이상 0.3%p 감소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건강검진 수검률(65세 이상)¹⁾ >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2021	68.4	71.4	65.9	79.4	78.2	80.5	73.0	74.0	72.0	42.9	51.3	38.0
2022	69.2	72.3	66.6	79.5	78.5	80.5	73.9	74.8	73.1	44.7	53.8	39.4
2023	69.3	72.1	67.0	79.4	78.4	80.4	74.1	75.0	73.4	44.1	52.3	39.1
2024	68.9	71.7	66.5	79.0	77.9	80.0	73.8	74.6	73.1	43.8	52.1	38.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통계표 (7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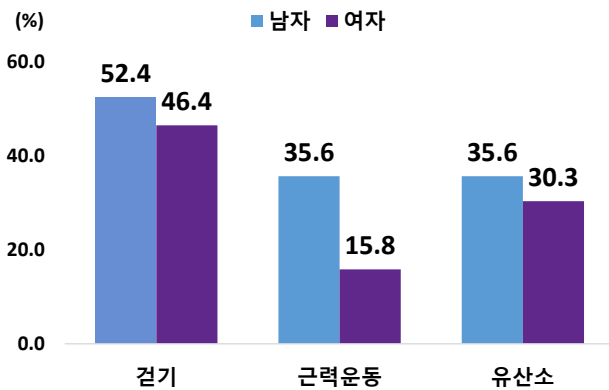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일반검진 수검인원 ÷ 일반검진 대상인원) × 100

10. 운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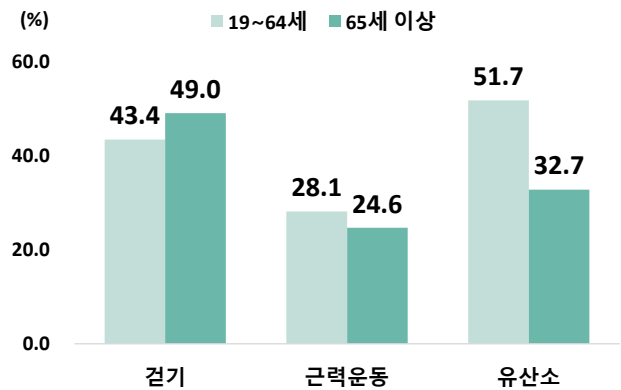
2024년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9.0%, 유산소 신체활동 32.7%, 근력운동 24.6% 순임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49.0%), 유산소 신체활동(32.7%), 근력운동(24.6%) 순이고, 걷기 실천율은 전년 대비 3.2%p 증가한 반면, 근력운동과 유산소 신체활동은 각각 0.2%p, 0.3%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특히 근력운동(19.8%p)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65세 이상 고령자는 19~64세보다 걷기 실천율이 5.6%p 높았으나,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실천율은 각각 19.0%p, 3.5%p 낮게 나타남

< 고령자의 성별 운동 실천율(2024) >



< 연령대별 운동 실천율(2024)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운동 실천율 >

(단위: %)

	걷기 실천율 ¹⁾				근력운동 실천율 ²⁾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³⁾			
	19~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2017	39.2	35.7	42.2	30.8	22.1	17.5	28.8	9.0	49.8	29.4	32.6	26.9
2018	39.7	37.3	46.1	30.8	23.1	18.3	30.3	9.5	48.3	28.1	33.4	24.3
2019	43.4	39.9	44.3	36.5	24.3	18.3	30.5	8.7	48.2	33.0	36.6	30.1
2020	38.6	42.3	44.8	40.2	24.4	22.5	35.0	12.5	46.1	33.2	40.8	27.0
2021	39.1	44.4	46.7	42.5	25.7	21.0	30.0	13.8	48.6	28.7	30.4	27.3
2022	41.2	44.6	47.7	42.2	25.8	22.5	33.4	14.0	53.9	33.1	38.3	29.1
2023	44.3	45.8	49.7	42.8	27.1	24.8	37.6	14.7	53.1	33.0	37.7	29.3
2024	43.4	49.0	52.4	46.4	28.1	24.6	35.6	15.8	51.7	32.7	35.6	30.3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표 (71쪽) 참조

주: 1)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2)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3)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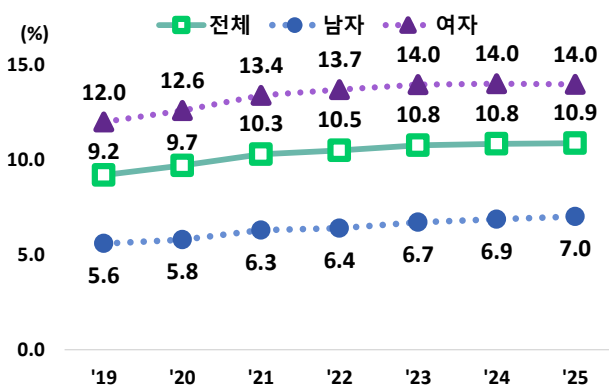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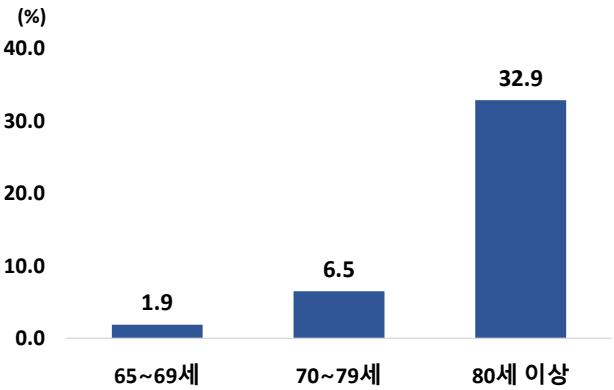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9%로 전년보다 0.1%p 증가함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9%로 전년보다 0.1%p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
-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14.0%)가 남자(7.0%)의 2배 수준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80세 이상 32.9%, 70~79세 6.5%, 65~69세 1.9%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 연령대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025)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65세 이상)¹⁾²⁾³⁾ >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2022	10.5	6.4	13.7	1.7	1.9	1.6	6.9	5.3	8.3	29.2	18.2	34.9
2023	10.8	6.7	14.0	1.8	1.9	1.6	6.8	5.4	8.0	30.9	19.7	36.9
2024	10.8	6.9	14.0	1.8	2.0	1.6	6.6	5.4	7.6	31.9	20.5	38.1
2025	10.9	7.0	14.0	1.9	2.1	1.7	6.5	5.4	7.4	32.9	21.3	3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통계표 (72쪽) 참조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기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기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2. 노인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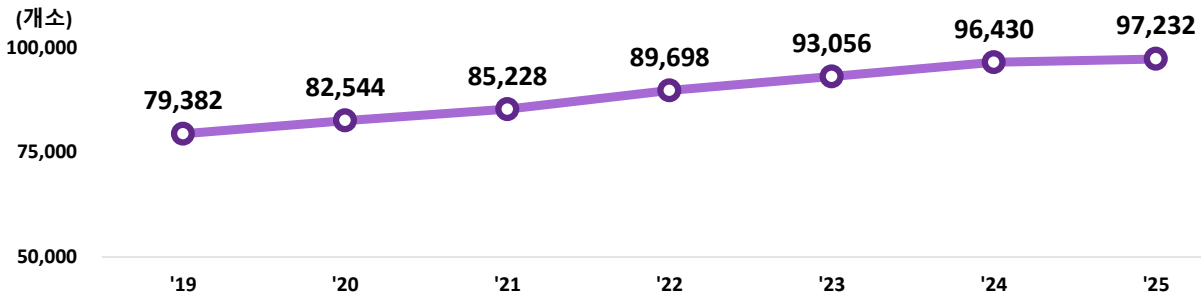
2025년 노인 복지시설은 9만 7,232개소로 전년 대비 0.8% 증가함

□ '25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9만 7,232개소로 전년 대비 0.8% 증가함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5년 1만 9,146개소이며, 전년 대비 401개소(2.1%) 증가함

- 방문목욕서비스는 '25년 4,135개소이며, 전년 대비 659개소(-13.7%) 감소함

< 노인 복지시설 수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 복지시설 수 >

(단위: 개소)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79,382	82,544	85,228	89,698	93,056	96,430	97,232
노인주거복지시설	소계	382	352	337	308	297	281	283
	양로시설	232	209	192	180	175	166	171
	노인공동생활가정	115	107	107	89	82	72	65
	노인복지주택	35	36	38	39	40	43	47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5,529	5,725	5,821	6,069	6,139	6,195	6,211
	노인요양시설	3,595	3,844	4,057	4,346	4,525	4,640	4,75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34	1,881	1,764	1,723	1,614	1,555	1,453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계	68,413	69,005	68,823	69,786	70,455	70,935	71,309
	노인복지관	391	398	357	366	438	454	459
	경로당	66,737	67,316	67,211	68,180	68,792	69,260	69,687
	노인교실	1,285	1,291	1,255	1,240	1,225	1,221	1,163
재가노인복지시설 ¹⁾	소계	4,821	7,212	9,984	13,272	15,896	18,745	19,146
	단기보호서비스	78	73	69	70	60	60	51
	방문간호서비스 ²⁾	60	95	158	234	295	376	435
	방문목욕서비스	942	1,596	2,415	3,394	4,070	4,794	4,135
	방문요양서비스	1,513	2,656	4,156	5,808	7,192	8,668	9,266
	복지옹구지원서비스 ³⁾	0	86	208	368	540	718	78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⁴⁾	412	385	360	363	342	339	414
	주·야간보호서비스	1,816	2,321	2,618	3,035	3,397	3,790	4,056
노인보호전문기관		34	35	37	37	38	39	4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⁵⁾		184	196	206	206	211	215	223
학대피해노인쉼터 ⁶⁾		19	19	20	20	20	20	2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표 (73쪽) 참조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6.7.1.)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12.12.)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0.2.24.)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3.12.15.)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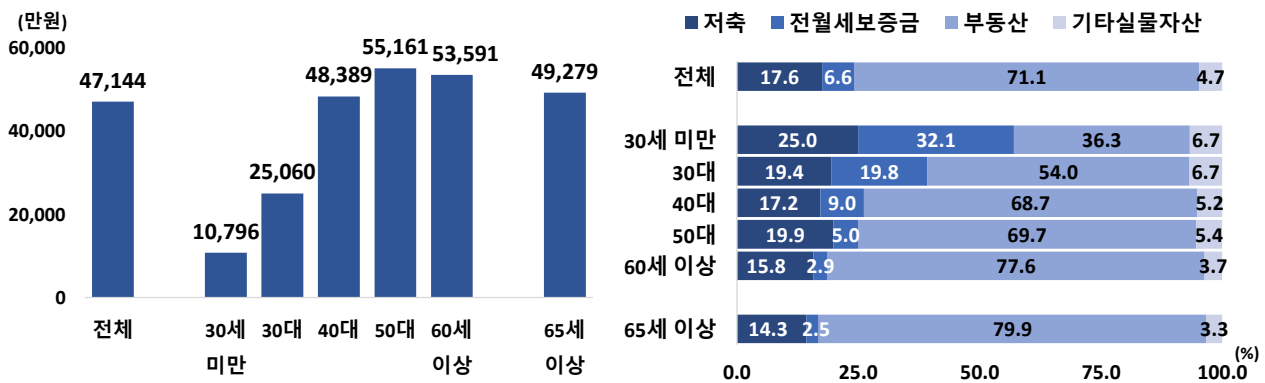
Ⅲ. 소득보장

13. 자산 소유액 및 구성

2025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평균액은 4억 9,2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5만 원 증가함

- '25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평균액은 4억 9,2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5만 원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4억 7,144만 원)보다 2,135만 원 높은 수준임
-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9.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4.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음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2025) >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구성비(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자¹⁾ 가구 평균 자산 소유액 및 구성²⁾ >

(단위: 만 원)

	순자산 ³⁾	자산	금융 자산	저 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 물 자산	부 동 산	기 타 실 물 자산	부 채	금 융 부 채	임 대 보증금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2022	45,364	50,289	7,488	6,243	1,245	42,801	41,453	1,348	4,925	2,685	2,240
2023	45,540	50,714	8,080	6,566	1,514	42,635	41,242	1,393	5,174	2,909	2,265
2024	46,594	51,517	8,701	7,324	1,378	42,815	41,278	1,537	4,923	2,837	2,085
2025	49,279	54,272	9,147	7,766	1,382	45,125	43,345	1,780	4,993	2,938	2,055

자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74쪽) 참조

주: 1)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가구

2)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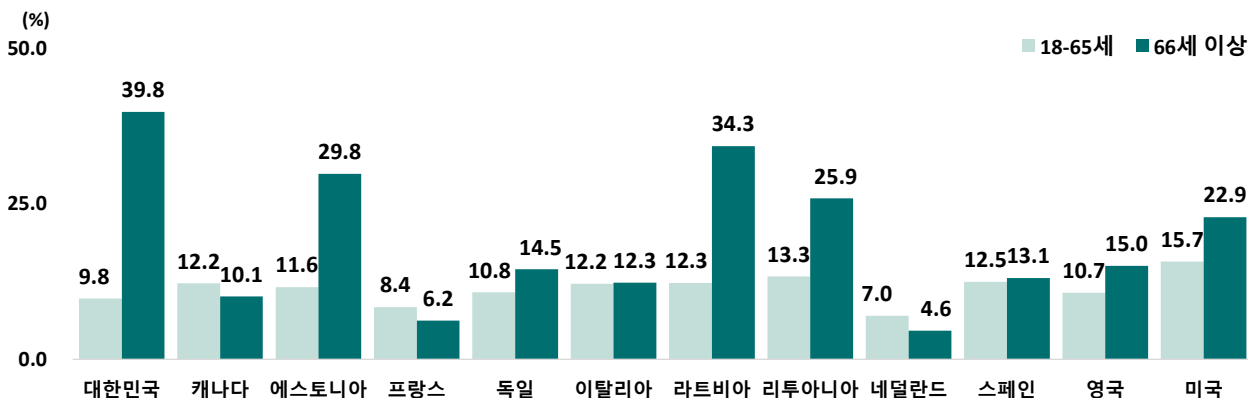
3) 순자산 = 자산 - 부채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2024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함

- '24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 지니계수는 0.377, 소득 5분위 배율은 6.9배로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음
- '23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23)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6.9.1. 기준)

주: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자료임

< 은퇴연령층 주요 소득분배지표¹⁾²⁾ >

(단위: %, 배)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³⁾		지니계수 ⁴⁾		소득 5분위 배율 ⁵⁾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2017	12.3	43.8	0.334	0.418	5.98	8.80
2018	11.5	43.3	0.322	0.405	5.56	7.94
2019	10.9	43.2	0.314	0.388	5.31	7.24
2020	10.3	40.5	0.309	0.376	5.07	6.64
2021	10.1	39.3	0.310	0.378	5.15	6.92
2022	10.0	39.7	0.303	0.383	4.98	7.11
2023	9.8	39.8	0.302	0.380	4.93	7.11
2024	10.3	37.7	0.303	0.377	5.01	6.90

자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75쪽) 참조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2011년 이후 소득분배지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11~'14년)은 통계적 추정 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

3)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4)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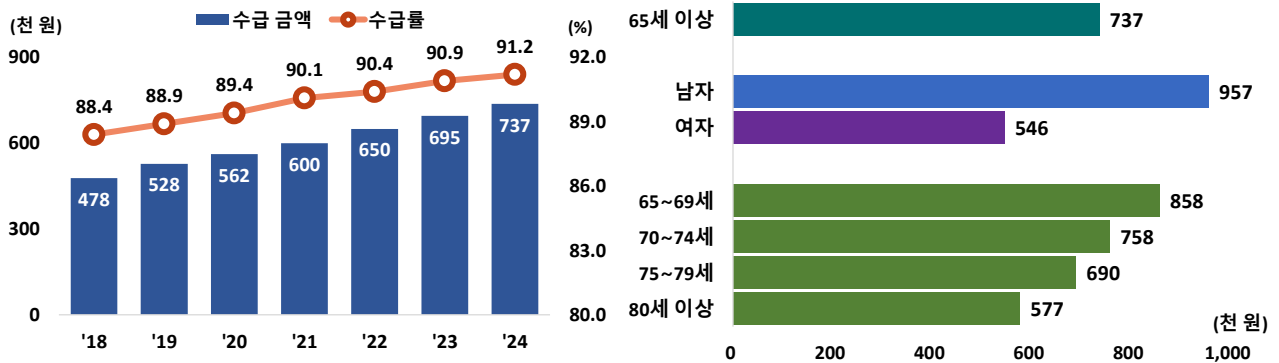
5)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15.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91.2%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전년보다 0.3%p 증가함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전체 고령자의 91.2%가 월평균 73만 7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음
- 성별로는, 남자(95.5%)의 연금 수급률이 여자(87.8%)보다 7.8%p 높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92.8%)의 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75~79세(92.1%), 70~74세(90.4%), 65~69세(90.2%) 순으로 나타남

< 연금 월평균 수급 금액 및 수급률(65세 이상) > < 성 및 연령대별 연금 수급 금액(202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 연금¹⁾ 수급 현황(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천 원, %p)

	수급자 수	수급률	월평균 수급 금액	전년 대비		미수급자 수	미수급률
				수급률 (%p)	월평균 수급 금액 증감액		
2018	6,536	88.4	478	0.8	33	858	11.6
2019	6,885	88.9	528	0.5	50	861	11.1
2020	7,335	89.4	562	0.5	34	871	10.6
2021	7,768	90.1	600	0.7	38	852	9.9
2022	8,182	90.4	650	0.3	50	864	9.6
2023	8,636	90.9	695	0.5	45	860	9.1
2024	9,122	91.2	737	0.3	42	878	8.8
남자	4,231	95.5	957	0.1	55	197	4.5
여자	4,891	87.8	546	0.4	29	681	12.2
65~69세	3,171	90.2	858	0.5	51	343	9.8
70~74세	2,113	90.4	758	0.3	40	224	9.6
75~79세	1,613	92.1	690	-0.1	40	138	7.9
80세 이상	2,225	92.8	577	0.2	29	173	7.2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 통계표 (7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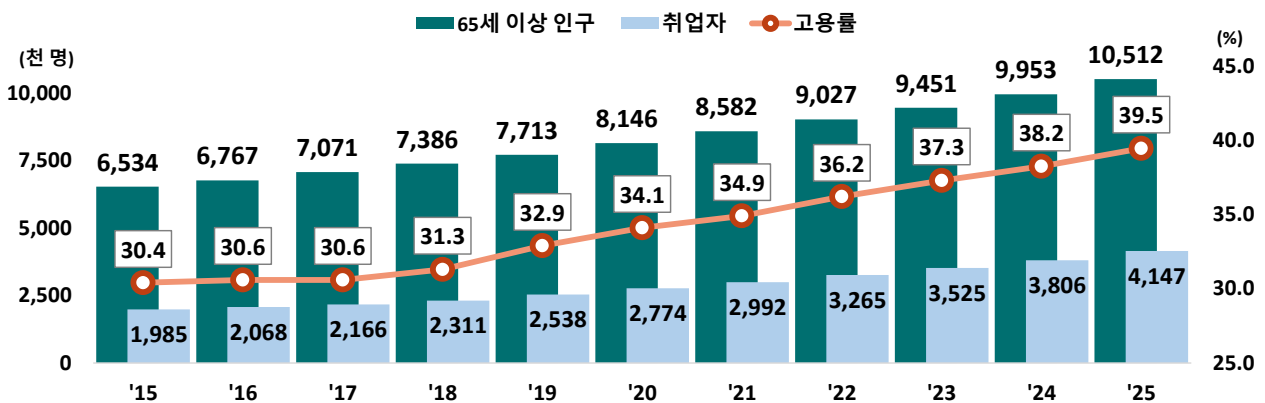
주: 1)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11종의 연금

16. 고용률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9.5%, 실업률은 3.0%임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9.5%로 전년(38.2%) 대비 1.3%p 상승함
- 고령자의 고용률은 '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고령자의 실업률은 '25년 3.0%로 전년(3.1%) 대비 0.1%p 하락함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 현황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2015	6,534	2,034	1,985	30.4	2.4
2016	6,767	2,116	2,068	30.6	2.3
2017	7,071	2,228	2,166	30.6	2.8
2018	7,386	2,381	2,311	31.3	2.9
2019	7,713	2,622	2,538	32.9	3.2
2020	8,146	2,879	2,774	34.1	3.6
2021	8,582	3,112	2,992	34.9	3.8
2022	9,027	3,365	3,265	36.2	3.0
2023	9,451	3,623	3,525	37.3	2.7
2024	9,953	3,926	3,806	38.2	3.1
2025	10,512	4,275	4,147	39.5	3.0
전체 ³⁾ (2025년)	45,762	29,599	28,769	62.9	2.8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7쪽) 참조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15세 이상 인구

- (산업별 취업자) '25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6.7%), 농림어업(19.3%), 도소매·숙박음식업(13.8%) 순임
- 고령층을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령자(65세 이상)의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사업·개 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 수·통신· 금융업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6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2022	3,265	100.0	24.7	5.9	5.9	69.4	4.9	12.9	43.8	7.8
2023	3,525	100.0	23.6	6.0	6.0	70.4	4.8	13.5	44.2	7.8
2024	3,806	100.0	22.1	6.5	6.5	71.4	5.0	13.5	44.7	8.2
2025	4,147	100.0	19.3	7.5	7.4	73.2	4.8	13.8	46.7	7.9
전체 ²⁾ (2025년)	28,769	100.0	4.8	15.3	15.2	79.9	6.7	19.2	40.9	13.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8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2024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

- (직업별 취업자) '25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4.6%), 서비스·판매 종사자(19.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9.2%),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5.9%) 순임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4	36.1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7
2022	3,265	100.0	5.1	3.3	16.7	24.2	15.2	35.6
2023	3,525	100.0	5.8	3.5	17.7	23.3	15.0	34.6
2024	3,806	100.0	6.8	3.4	17.9	21.8	15.3	34.8
2025	4,147	100.0	7.3	3.8	19.2	19.2	15.9	34.6
전체 ²⁾ (2025년)	28,769	100.0	24.5	17.9	21.2	4.7	18.0	13.6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9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 개정(2024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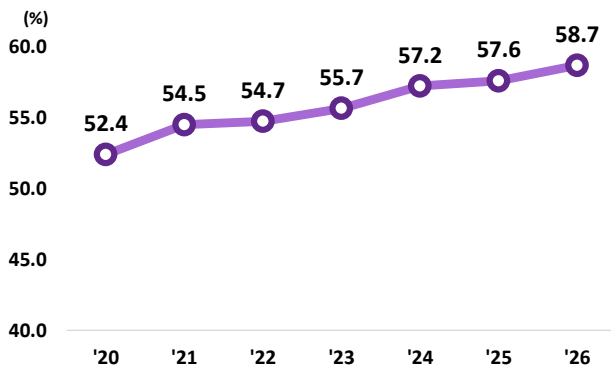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

17.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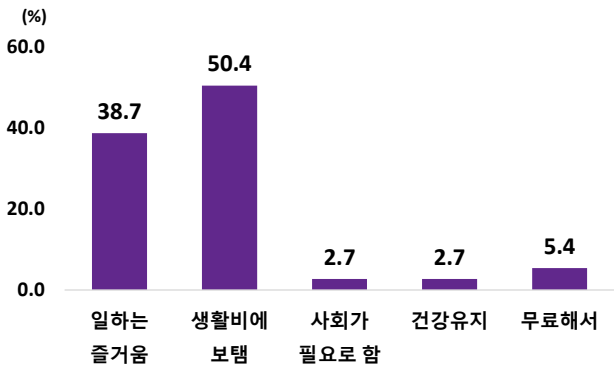
2026년 65~79세 고령자의 58.7%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고,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으나 일하는 즐거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6년 6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58.7%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함
-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하는 즐거움 38.7%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66.5%)가 여자(51.8%)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고 근로 희망 사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 보탬, 일하는 즐거움 순임

< 장래 근로 원함(65~79세) >



< 취업을 원하는 이유(65~79세, 2026)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65~79세) >

(단위: %)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2020	52.4	100.0	37.2	54.4	1.5	2.4	4.4	0.0
2021	54.5	100.0	36.2	54.7	1.5	2.8	4.9	0.0
2022	54.7	100.0	37.3	53.3	1.2	3.0	5.2	-
2023	55.7	100.0	38.0	52.2	1.5	2.9	5.3	0.0
2024	57.2	100.0	37.7	52.0	1.6	3.1	5.6	0.0
2025	57.6	100.0	38.1	51.3	2.4	2.9	5.3	0.0
2026	58.7	100.0	38.7	50.4	2.7	2.7	5.4	0.0
남자	66.5	100.0	41.8	47.6	4.0	2.7	3.9	0.0
여자	51.8	100.0	35.2	53.6	1.2	2.8	7.2	0.1
65~69세	68.3	100.0	37.7	51.8	3.0	2.6	4.8	0.0
70~74세	55.4	100.0	39.7	49.1	2.7	2.7	5.8	0.1
75~79세	44.3	100.0	40.0	48.6	1.7	3.0	6.7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 통계표 (8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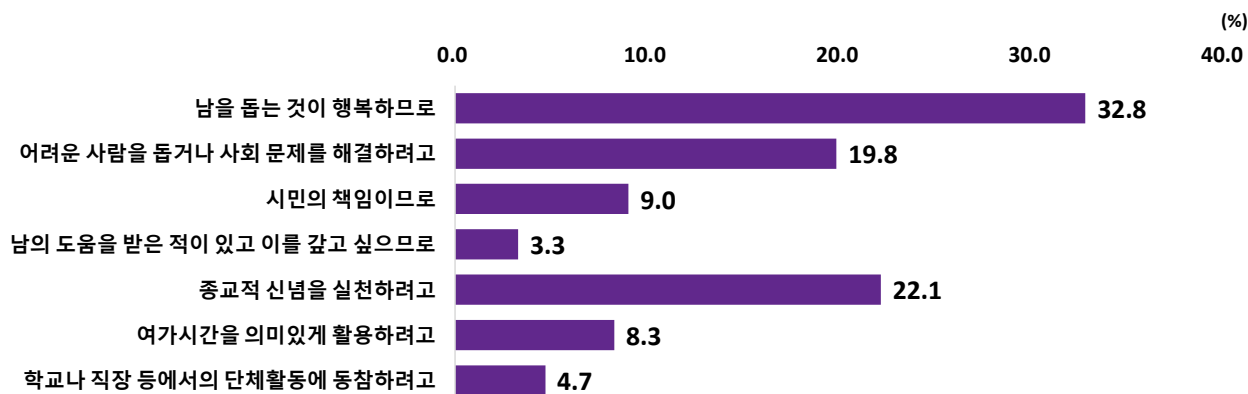
IV. 사회참여 · 관계

1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8.9%로 2023년 대비 1.5%p 증가함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8.9%로 '23년 보다 1.5%p 증가함
-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 참여율(14.4%)보다 5.5%p 낮음
- 자원봉사 참여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32.8%),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22.1%),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19.8%) 순임

< 자원봉사 참여 이유(65세 이상, 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65세 이상) >

(단위: %)

	참여율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의 책임이므로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갚고 싶으므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	진학, 취업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
2021	5.2	38.1	16.7	13.2	4.7	15.2	10.1	1.9	0.1	-
2023	7.4	36.9	14.6	6.6	2.4	22.2	11.7	5.3	0.1	0.2
2025	8.9	32.8	19.8	9.0	3.3	22.1	8.3	4.7	-	-
남자	9.8	31.0	21.6	12.8	3.5	16.4	7.8	7.0	-	-
여자	8.2	34.5	18.2	5.4	3.1	27.6	8.8	2.5	-	-
65~69세	12.0	31.8	20.8	7.6	4.3	22.2	7.5	5.9	-	-
70~74세	11.8	31.6	21.3	10.2	2.2	22.9	8.4	3.4	-	-
75~79세	7.0	34.8	17.7	9.9	4.0	21.6	6.3	5.6	-	-
80세 이상	2.7	40.6	10.7	11.0	-	19.4	17.5	0.9	-	-
전체 ¹⁾ (2025년)	14.4	21.2	13.3	5.8	2.1	9.8	6.1	35.0	6.6	0.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통계표(8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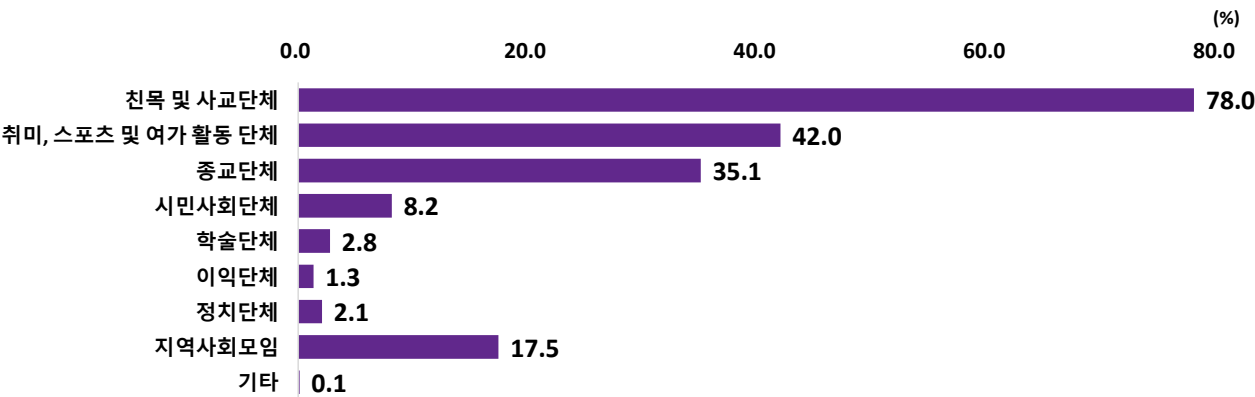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9. 단체 참여율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4.1%는 단체에 참여 경험이 있음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4.1%는 지난 1년간 단체 참여 경험이 있고, 전체 참여율(69.2%)보다 5.1%p 낮았음
- 유형별 단체 참여 비중은 친목 및 사교단체(78.0%),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42.0%), 종교단체(35.1%) 순임

< 단체 유형별 참여 비중(65세 이상, 20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단체 참여율(65세 이상, 복수 응답) >

(단위: %)

	참여율	친목 및 사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단체	종교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2019	58.7	72.7	29.6	43.0	8.4	2.3	1.4	0.9	20.4	0.0
2021	28.7	55.8	33.3	43.0	7.5	1.0	1.0	1.0	11.5	-
2023	57.1	74.7	38.1	38.2	8.6	2.8	1.0	1.5	18.8	0.2
2025	64.1	78.0	42.0	35.1	8.2	2.8	1.3	2.1	17.5	0.1
남자	67.5	83.7	46.1	25.8	8.7	3.8	2.1	3.0	19.3	0.1
여자	61.5	73.1	38.5	43.2	7.7	1.9	0.7	1.3	15.9	0.1
65~69세	74.4	84.3	47.2	30.6	9.8	3.9	2.3	2.8	15.6	0.1
70~74세	72.5	79.8	43.6	34.1	9.0	3.1	1.2	1.7	17.8	0.1
75~79세	60.1	77.2	37.5	38.1	6.8	0.9	0.3	1.9	18.5	0.1
80세 이상	42.9	59.5	30.8	45.0	4.1	1.4	0.4	1.2	20.5	0.2
전체 ¹⁾ (2025년)	69.2	80.4	55.8	22.6	8.6	7.3	3.6	2.2	9.6	0.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통계표(8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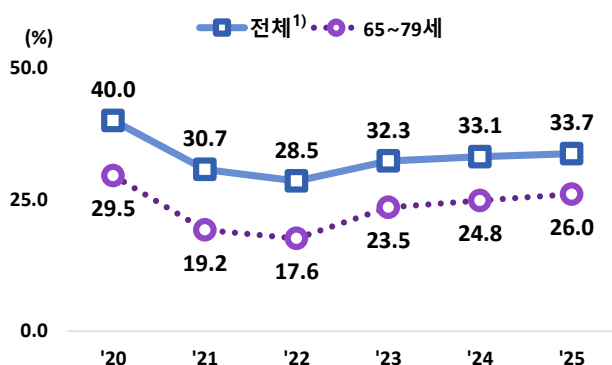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 평생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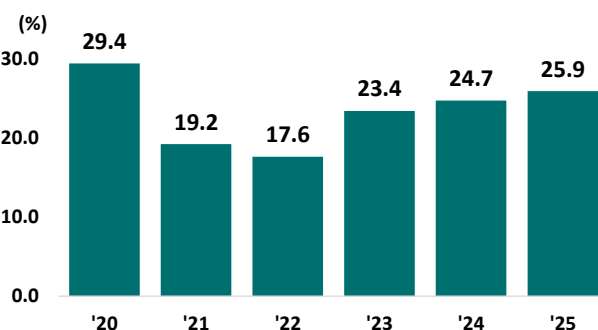
2025년 65~79세 고령자의 26.0%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전년 대비 1.2%p 증가함

- '25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자는 26.0%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함
-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고령자의 비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25.9%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함
- 직업관련 목적의 비형식 교육을 받은 고령자는 6.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함

< 평생교육 참여율 >



< 고령층(65~79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 평생교육 참여율¹⁾ >

(단위: %)

	전체				65~79세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8	41.2	2.3	40.4	18.8	32.7	0.1	32.6	5.5
2019	41.7	1.5	40.9	18.7	32.5	0.1	32.4	4.9
2020	40.0	1.4	39.3	20.1	29.5	0.1	29.4	6.0
2021	30.7	0.8	30.2	17.1	19.2	0.2	19.2	4.9
2022	28.5	0.6	28.0	13.6	17.6	X ⁶⁾	17.6	5.4
2023	32.3	0.6	31.9	15.0	23.5	0.1	23.4	6.9
2024	33.1	0.5	32.7	14.5	24.8	0.2	24.7	6.2
2025	33.7	0.4	33.5	14.5	26.0	0.1	25.9	6.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통계표 (82쪽) 참조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6) 사례수가 적어 공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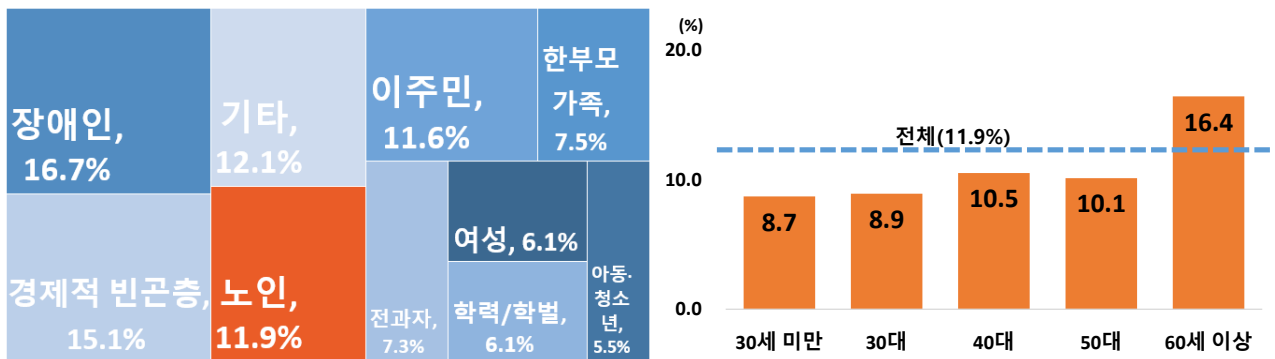
21. 노인차별

2025년 성인의 11.9%는 노인이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 생각함

- '25년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11.9%가 「노인」을 꼽았으며, 장애인(16.7%), 경제적 빈곤층(15.1%) 다음으로 높음
- 노인 차별에 대한 성별 인식을 보면 남자 11.4%, 여자 12.3%로 여자가 남자보다 0.9%p 높게 나타남
- 노인차별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은 60세 이상(16.4%), 40대(10.5%), 50대(10.1%) 순임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5) >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5, 노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5)¹⁾²⁾ >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민	학력·학벌	전과자	경제적 빈곤층	기타 ³⁾
전체	6.1	5.5	11.9	16.7	7.5	11.6	6.1	7.3	15.1	12.1
남자	4.4	5.4	11.4	17.3	6.9	11.7	6.6	7.6	15.7	12.9
여자	7.8	5.7	12.3	16.0	8.0	11.5	5.7	7.0	14.6	11.4
30세 미만	7.3	6.7	8.7	17.8	8.7	10.5	6.8	5.8	15.1	12.5
30대	6.3	7.1	8.9	17.2	7.0	11.2	6.2	7.1	15.5	13.5
40대	6.1	6.6	10.5	16.8	7.5	12.2	6.4	6.3	15.8	11.8
50대	6.5	5.4	10.1	16.8	7.3	12.2	5.3	7.1	15.2	14.1
60세 이상	5.3	3.9	16.4	15.7	7.3	11.6	6.1	8.8	14.6	10.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 통계표 (82쪽) 참조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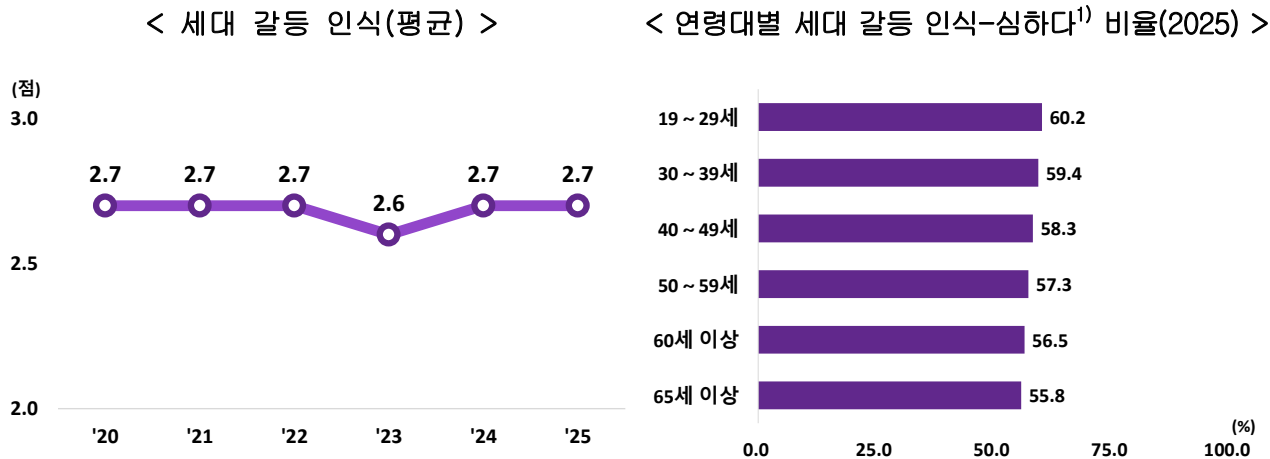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3) 기타: 성소수자, 병력, 비정규직 근로자, 기타

22. 세대 갈등

2025년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2.7점으로 전년과 동일함

- '25년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2.7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 평균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에 대해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

< 세대 갈등¹⁾ 인식 >

(단위: 점, %)

	평균 ²⁾	전혀 심하지 않다(1점)	별로 심하지 않다(2점)	약간 심하다(3점)	매우 심하다(4점)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2022	2.7	2.7	37.7	49.3	10.3
2023	2.6	5.4	39.4	46.6	8.6
2024	2.7	3.1	38.7	48.4	9.9
2025	2.7	3.2	38.8	46.1	11.8
19 ~ 29세	2.7	2.7	37.1	48.4	11.8
30 ~ 39세	2.7	2.5	38.2	47.3	12.1
40 ~ 49세	2.7	3.2	38.5	45.1	13.2
50 ~ 59세	2.7	3.2	39.5	46.2	11.1
60세 이상	2.6	3.9	39.6	45.1	11.4
65세 이상	2.6	3.6	40.6	44.6	11.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통계표 (83쪽) 참조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

2)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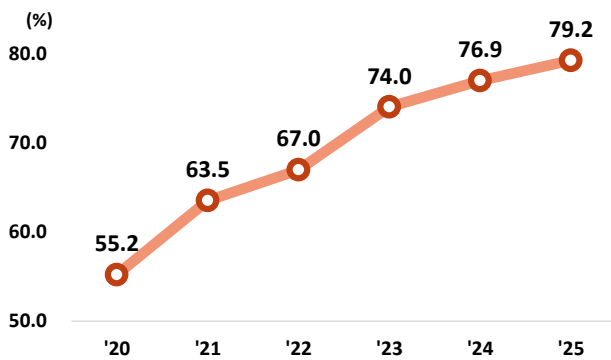
V. 생활환경

23.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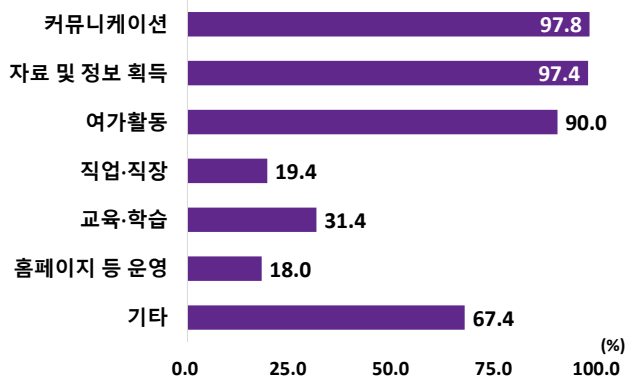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9.2%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9.2%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연령대 이용률(95.0%)보다 15.8%p 낮았음
-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97.8%)이 가장 많았고, 자료 및 정보 획득(97.4%), 여가 활동(90.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터넷 이용률은 낮아짐

< 인터넷 이용률 >



< 이용 목적(2025)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터넷 이용률¹⁾ 및 이용 목적(65세 이상, 항목별 응답) >

(단위: %)

	이용률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직업·직장	교육·학습	홈페이지 등 운영	기타
2020	55.2	95.3	91.5	81.1	3.5	9.7	26.3	31.4
2021	63.5	96.1	99.7	84.5	2.5	10.8	25.2	72.9
2022	67.0	98.1	99.8	94.3	3.5	10.7	25.7	75.3
2023	74.0	96.8	88.1	89.3	15.8	34.7	30.7	37.0
2024	76.9	97.3	90.1	84.8	9.8	23.2	30.9	53.0
2025	79.2	97.8	97.4	90.0	19.4	31.4	18.0	67.4
남자	82.7	98.2	98.3	92.5	24.0	34.0	18.9	70.9
여자	76.3	97.5	96.7	87.7	15.3	29.1	17.2	64.4
65~69세	95.0	99.9	98.6	93.4	26.9	40.4	23.1	86.0
70~74세	81.9	98.2	97.5	92.5	19.4	27.5	17.7	60.2
75~79세	73.3	96.1	94.7	85.0	11.4	25.2	14.5	51.8
80세 이상	55.3	92.9	96.4	81.0	6.1	19.0	8.0	42.7
전체 ²⁾ (2025년)	95.0	98.3	97.5	96.8	38.7	63.9	35.1	86.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통계표(8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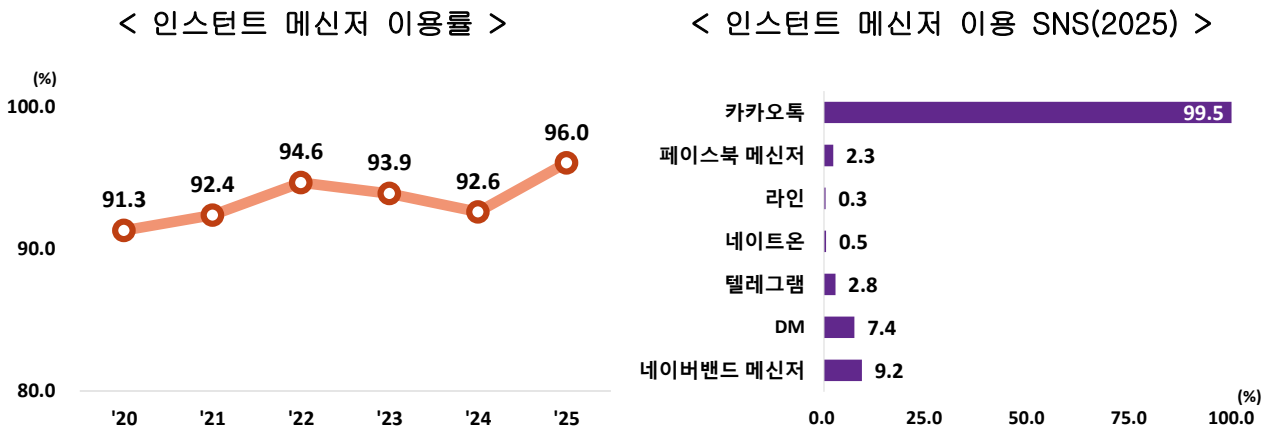
주: 1)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기준

2) 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함

24.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및 이용 SNS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96.0%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음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96.0%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고, 전체 연령대 참여율(98.0%)보다 2.0%p 낮았음
- 평소 자주 이용하는 SNS 서비스는 카카오톡 99.5%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밴드 메신저 9.2%,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DM) 7.4% 순임
-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낮아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스턴트 메신저¹⁾ 이용률²⁾ 및 이용 SNS(65세 이상, 복수 응답³⁾) >

(단위: %)

	이용률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네이버밴드 메신저	기타
2020	91.3	99.4	2.9	0.9	0.6	0.2	1.2	3.4	1.2
2021	92.4	99.6	3.0	0.4	0.3	0.3	0.4	3.7	-
2022	94.6	99.6	4.0	0.6	0.5	0.6	0.7	3.8	0.0
2023	93.9	98.8	5.6	3.1	1.7	1.6	3.3	4.8	0.1
2024	92.6	98.5	4.3	1.2	1.6	2.1	2.4	6.6	0.1
2025	96.0	99.5	2.3	0.3	0.5	2.8	7.4	9.2	-
남자	96.3	99.4	3.2	0.5	0.5	3.3	7.5	10.4	-
여자	95.8	99.7	1.4	0.2	0.4	2.3	7.3	8.1	-
65~69세	99.8	99.1	3.7	0.5	0.9	6.0	16.5	16.5	-
70~74세	97.3	99.9	1.4	0.3	0.2	0.6	0.6	5.1	-
75~79세	94.7	99.6	1.2	0.1	0.3	0.1	0.3	3.0	-
80세 이상	84.8	100.0	0.6	0.1	0.0	-	-	1.4	-
전체 ⁴⁾ (2025년)	98.0	98.0	10.1	5.2	5.0	5.4	28.8	9.9	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통계표(84쪽) 참조

주: 1)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DM 등)

2) 최근 1년 이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기준

3) 2024년까지는 1, 2, 3순위 응답, 2025년은 1, 2순위 응답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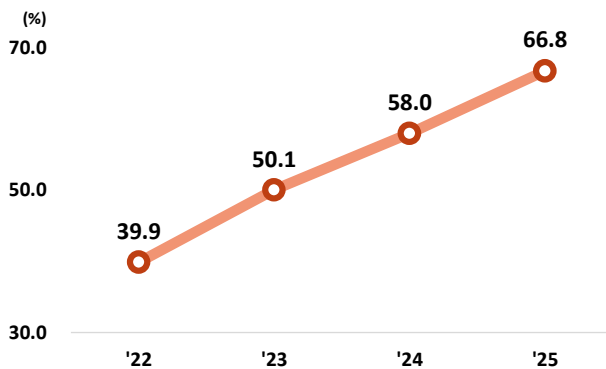
4)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5. 인공지능 서비스 인지율 및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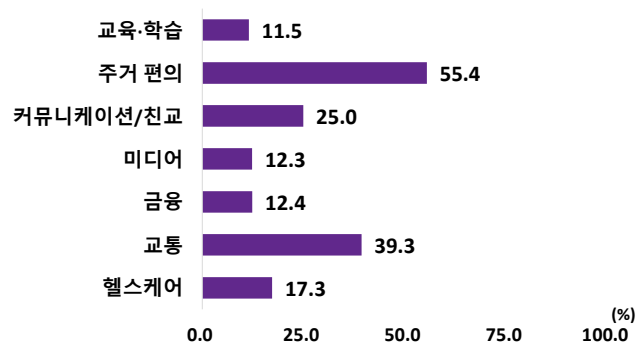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66.8%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6.8%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고, 전체 연령대 인지율(87.9%)보다 21.1%p 낮았음
- 주거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 인지율이 55.4%로 가장 높았고, 교통 39.3%, 커뮤니케이션/친교 25.0% 순임
-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 서비스 인지율은 낮아짐

< 인공지능 서비스 인지율 >



< 인공지능 인지 분야(2025)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공지능 서비스¹⁾ 인지율²⁾ 및 분야(65세 이상) >

(단위: %)

	인지율 ²⁾	교육·학습	주거 편의	커뮤니케이션/친교	미디어	금융	교통	헬스케어
2022	39.9	7.4	32.8	13.6	5.5	6.6	20.3	9.0
2023	50.1	12.9	37.8	18.0	8.8	9.6	26.1	12.3
2024	58.0	10.0	44.5	16.8	7.2	8.4	32.4	13.2
2025	66.8	11.5	55.4	25.0	12.3	12.4	39.3	17.3
남자	72.8	14.8	58.4	28.9	16.0	16.1	52.1	21.7
여자	61.8	8.8	52.9	21.7	9.3	9.3	28.7	13.6
65~69세	82.1	18.0	68.2	34.1	18.6	18.6	54.0	24.9
70~74세	71.1	11.5	59.3	27.6	14.5	13.0	43.5	17.7
75~79세	57.5	6.6	46.2	19.6	7.5	7.8	28.7	12.2
80세 이상	44.0	4.7	37.1	11.2	3.2	4.8	18.8	8.2
전체 ³⁾ (2025년)	87.9	45.0	74.0	45.4	38.3	32.2	59.6	37.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8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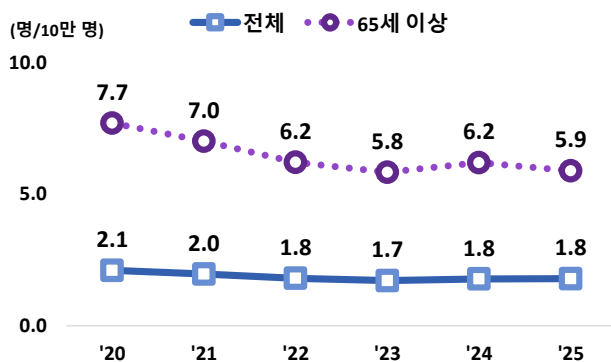
- 주: 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각 산업 및 생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예) 음성·생체인식 서비스,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차량 등
 2) 해당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
 3) 6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6. 보행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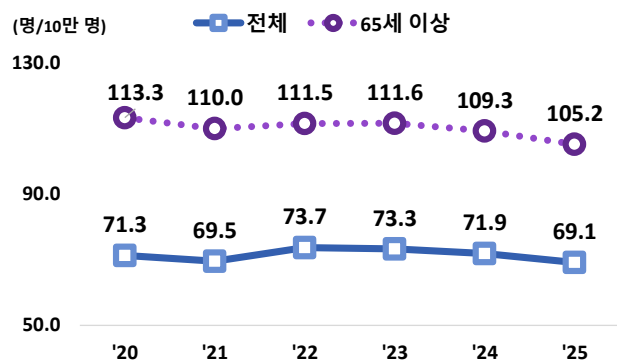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 부상률은 105.2명임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감소하였고, 부상률은 105.2명으로 4.1명 감소함
-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의 3.3배, 부상률은 1.5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 >



< 보행 교통사고 부상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전체	2020	1,093	2.1	36,939	71.3
	2021	1,018	2.0	36,001	69.5
	2022	933	1.8	38,088	73.7
	2023	886	1.7	37,899	73.3
	2024	920	1.8	37,211	71.9
	2025	926	1.8	35,735	69.1
65세 이상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10.0
	2022	558	6.2	10,016	111.5
	2023	550	5.8	10,529	111.6
	2024	616	6.2	10,861	109.3
	2025	619	5.9	11,059	105.2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표 (86쪽) 참조

주: 1)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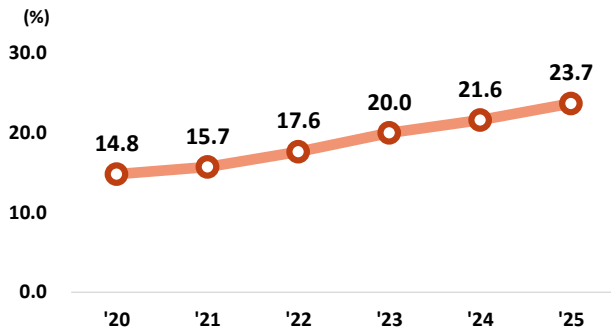
2) 보행 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 교통사고 부상자 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000

27. 운전자 사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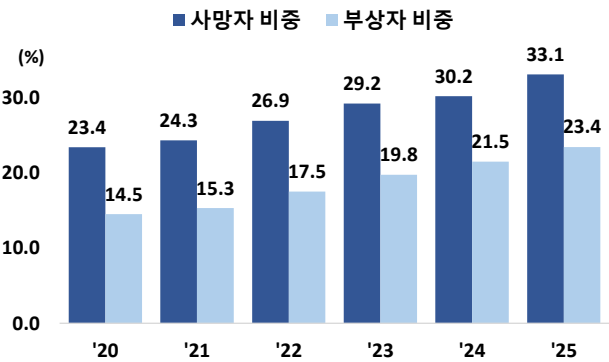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23.7%이며, 전년보다 2.1%p 증가함

- '25년 전체 운전자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23.7%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함
-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33.1%이며, 부상자 비중은 23.4%로 전년 대비 각각 2.9%p, 1.9%p 증가함
 - 고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1.8%로 전년과 동일하고, 전체 연령 치사율보다 0.5%p 높음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 >



<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상자 비중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¹⁾ >

(단위: 건, 명, %)

	전 체				65세 이상							
	사고 건수	사망자	치사율 ²⁾	부상자	사고 건수	비중 ³⁾	사망자	비중 ⁴⁾	치사율 ²⁾	부상자	비중 ⁵⁾	
2020	209,654	3,081	1.5	306,194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203,130	2,916	1.4	291,608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2022	196,836	2,735	1.4	281,803	34,652	17.6	735	26.9	2.1	49,281	17.5	
2023	198,296	2,551	1.3	283,799	39,614	20.0	745	29.2	1.9	56,067	19.8	
2024	196,349	2,521	1.3	278,482	42,369	21.6	761	30.2	1.8	59,776	21.5	
2025	193,889	2,549	1.3	271,751	45,873	23.7	843	33.1	1.8	63,640	23.4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표(87쪽) 참조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2) 치사율 = (해당 연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해당 연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 × 100

3) 사고 건수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 ÷ 전체 운전자 사고 건수) × 100

4) 사망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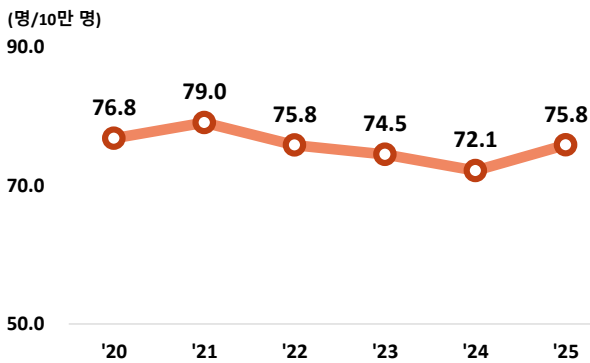
5) 부상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100

28.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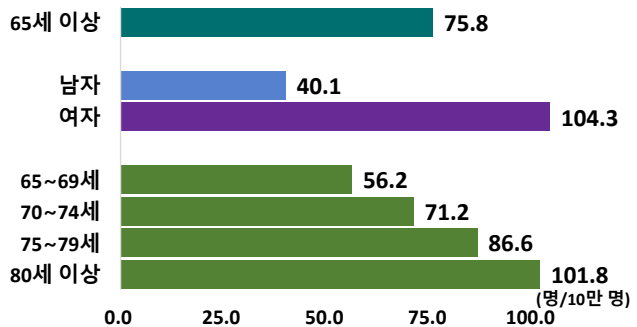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75.8명은 학대 피해를 경험함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75.8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증가함
- 여자(104.3명)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남자(40.1명)보다 2.6배 높음
- 학대 피해 경험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80세 이상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101.8명임

<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2025)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학대 피해¹⁾²⁾ 경험률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학대 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대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2022	75.8	39.8	103.7	47.9	66.5	85.9	117.3
2023	74.5	40.8	100.8	50.5	70.5	82.7	106.6
2024	72.1	38.2	98.9	51.6	67.1	82.7	99.5
2025	75.8	40.1	104.3	56.2	71.2	86.6	101.8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표 (87쪽) 참조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연령대별 추계인구) × 100,000

29. 주거 만족도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5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2.96점임

- '24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5점,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6점으로 전년보다 각각 0.02점, 0.03점 증가함
- 전체 가구에 비해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 0.08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0.05점 낮았음
- 대기오염, 지역유대(이웃과의 관계) 항목에서 고령자 가구의 만족도는 높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체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점)

	전체 가구					고령자 가구 ³⁾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주택 만족도 ¹⁾	3.00	3.00	3.00	3.01	3.03	2.92	2.93	2.93	2.93	2.95
주거환경 만족도 ²⁾	2.97	2.96	2.96	2.99	3.01	2.93	2.92	2.93	2.93	2.96
편의시설	2.93	2.96	2.91	2.91	2.95	2.78	2.82	2.78	2.78	2.83
의료·복지시설	2.91	2.93	2.89	2.91	2.95	2.75	2.79	2.74	2.76	2.81
공공시설	2.95	2.96	2.92	2.92	2.98	2.82	2.83	2.79	2.81	2.86
문화시설	2.65	2.65	2.68	2.70	2.75	2.51	2.53	2.55	2.58	2.63
공원·녹지	3.01	3.00	3.00	2.99	3.05	2.94	2.93	2.94	2.94	2.98
대중교통	2.99	2.99	2.96	2.95	2.99	2.89	2.89	2.86	2.86	2.88
주차시설	2.85	2.82	2.80	2.83	2.85	2.83	2.79	2.78	2.81	2.83
보행안전	3.05	3.03	3.03	3.03	3.06	3.02	3.01	2.99	2.99	3.02
교육환경	2.95	2.95	2.96	2.96	3.01	2.85	2.87	2.87	2.86	2.91
치안문제	3.07	3.07	3.06	3.06	3.10	3.02	3.03	3.02	3.01	3.05
소음문제	2.91	2.93	2.91	2.95	2.98	2.94	2.94	2.92	2.95	2.96
주변청결	3.08	3.09	3.07	3.07	3.11	3.05	3.07	3.04	3.04	3.07
대기오염	3.05	3.05	3.05	3.04	3.07	3.08	3.08	3.07	3.06	3.08
지역유대	3.06	3.05	3.06	3.05	3.07	3.14	3.11	3.09	3.08	3.09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통계표 (88쪽) 참조

주: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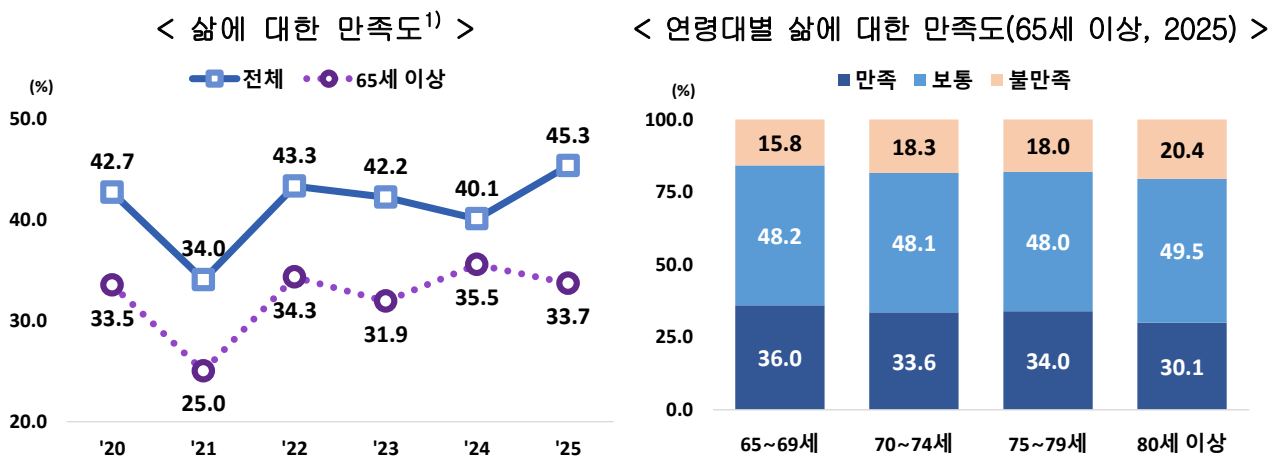
3)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VI. 주관적 웰빙

30. 삶에 대한 만족도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33.7%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음

- '25년 65세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3.7%로 전년 대비 1.8%p 감소함
- 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45.3%)보다 낮은 수준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삶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 삶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단위: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0	33.5	8.6	25.0	50.9	15.6	12.7	2.9
2021	25.0	6.5	18.6	49.7	25.3	20.4	4.9
2022	34.3	7.7	26.5	48.5	17.2	14.1	3.1
2023	31.9	7.6	24.3	50.1	17.9	14.5	3.4
2024	35.5	7.7	27.8	50.7	13.8	11.4	2.4
2025	33.7	8.0	25.7	48.4	17.9	14.9	3.0
65~69세	36.0	9.6	26.4	48.2	15.8	13.3	2.6
70~74세	33.6	9.3	24.2	48.1	18.3	15.1	3.2
75~79세	34.0	6.3	27.7	48.0	18.0	15.3	2.6
80세 이상	30.1	5.6	24.5	49.5	20.4	16.6	3.8
전체(2025년) ¹⁾	45.3	13.9	31.4	41.4	13.3	10.5	2.8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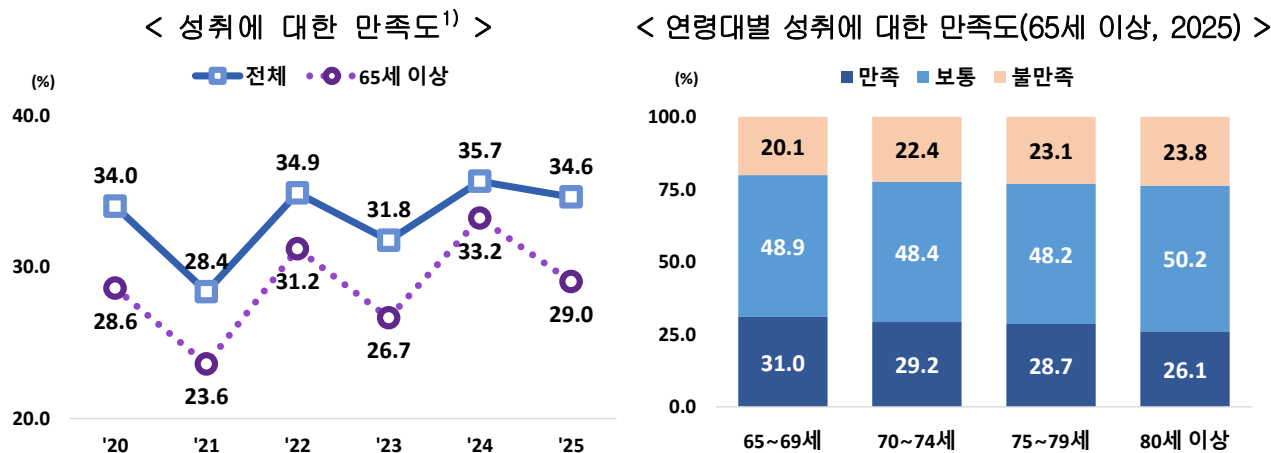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표(89쪽) 참조

31. 성취에 대한 만족도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29.0%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9.0%로 전년보다 4.2%p 감소함
- 고령자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34.6%)보다 낮은 수준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 성취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단위: %)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불만족	
2020	28.6	5.7	23	48.1	23.3	18.7	4.6
2021	23.6	5.3	18.3	51.4	25.0	19.6	5.5
2022	31.2	5.4	25.8	49.8	19.0	15.5	3.5
2023	26.7	5.1	21.6	50.3	23.0	18.3	4.7
2024	33.2	5.8	27.5	47.2	19.6	16.3	3.3
2025	29.0	5.7	23.4	48.9	22.0	18.2	3.8
65~69세	31.0	6.4	24.7	48.9	20.1	16.4	3.6
70~74세	29.2	6.3	22.9	48.4	22.4	18.3	4.0
75~79세	28.7	5.6	23.0	48.2	23.1	19.8	3.3
80세 이상	26.1	4.0	22.1	50.2	23.8	19.5	4.3
전체(2025년) ¹⁾	34.6	7.8	26.8	45.1	20.2	15.7	4.6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표(90쪽) 참조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1-1. 인구 추이	57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58
2. 지역별 고령인구	60
3. 고령자 가구	62
4. 이혼 및 재혼	63
5. 주택 소유율	64

II. 건강

6. 기대여명	65
7. 사망원인별 사망률	66
8. 본인부담 의료비	68
9. 건강검진 수검률	70
10. 운동 실천율	71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72
12. 노인 복지시설	73

III. 소득보장

13. 평균 자산 및 구성	74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75
15.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76
16. 고용률	
16-1. 고용률	77
16-2. 산업별 취업자 분포	78
16-3. 직업별 취업자 분포	79
17.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80

IV. 사회참여·관계

1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81
19. 단체 참여율	81
20. 평생교육 참여율	82
21. 노인차별	82
22. 세대 갈등	83

V. 생활환경

23.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 목적	84
24.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및 이용 기능	84
25. 인공지능 서비스 인지율 및 분야	85
26. 보행 안전성	86
27. 운전자 사고 비중	87
28.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87
29. 주거 만족도	88

VI. 주관적 웰빙

30. 삶에 대한 만족도	89
31. 성취에 대한 만족도	90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91
2.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92

1-1. 인구 추이

(단위: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111	3,394,896	7.2	10.1	34.3
2005	48,184,561	4,320,787	9.0	12.5	46.8
2010	49,554,112	5,366,109	10.8	14.8	67.2
2015	51,014,947	6,541,168	12.8	17.5	93.0
2020	51,836,239	8,151,867	15.7	21.8	129.3
2021	51,769,539	8,569,865	16.6	23.1	139.4
2022	51,672,569	8,981,133	17.4	24.4	151.0
2023	51,712,619	9,435,816	18.2	25.8	165.4
2024	51,751,065	9,938,235	19.2	27.4	181.2
2025	51,684,564	10,513,907	20.3	29.3	199.9
2026	51,609,121	11,125,016	21.6	31.3	222.7
2027	51,534,551	11,597,067	22.5	33.0	244.0
2028	51,459,877	12,125,349	23.6	34.8	267.6
2029	51,384,052	12,521,322	24.4	36.3	288.2
2030	51,305,713	12,980,219	25.3	38.0	312.0
2031	51,223,269	13,417,660	26.2	39.7	336.0
2032	51,135,265	13,832,534	27.1	41.4	356.8
2033	51,040,632	14,259,858	27.9	43.2	375.1
2034	50,937,726	14,763,385	29.0	45.5	393.1
2035	50,824,868	15,208,221	29.9	47.7	406.7
2036	50,701,389	15,674,083	30.9	50.1	418.7
2037	50,567,057	16,091,402	31.8	52.4	427.6
2038	50,417,167	16,491,853	32.7	54.7	434.6
2039	50,247,657	16,862,009	33.6	57.1	439.8
2040	50,059,218	17,151,313	34.3	59.1	442.2
2045	48,835,031	18,235,107	37.3	68.4	462.1
2050	47,106,960	18,907,853	40.1	77.3	504.0
2055	44,867,534	18,705,468	41.7	82.1	555.6
2060	42,302,086	18,681,892	44.2	90.3	636.9
2065	39,685,210	18,481,573	46.6	99.1	721.0
2070	37,181,774	17,677,335	47.5	103.3	738.6
2072	36,222,293	17,270,735	47.7	104.2	726.8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65세 이상	성별				
		남자	고령인구 비중 ¹⁾	여자	고령인구 비중 ¹⁾	성비 ²⁾
2000	3,395	1,300	5.5	2,095	9.0	62.0
2005	4,321	1,721	7.1	2,600	10.9	66.2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2015	6,541	2,749	10.7	3,793	14.9	72.5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021	8,570	3,723	14.4	4,847	18.7	76.8
2022	8,981	3,925	15.2	5,057	19.6	77.6
2023	9,436	4,146	16.0	5,290	20.5	78.4
2024	9,938	4,387	17.0	5,551	21.5	79.0
2025	10,514	4,661	18.0	5,853	22.6	79.6
2026	11,125	4,954	19.2	6,171	23.9	80.3
2027	11,597	5,184	20.1	6,413	24.9	80.8
2028	12,125	5,447	21.2	6,679	25.9	81.6
2029	12,521	5,640	22.0	6,881	26.8	82.0
2030	12,980	5,862	22.9	7,118	27.7	82.4
2031	13,418	6,077	23.8	7,340	28.6	82.8
2032	13,833	6,278	24.6	7,555	29.5	83.1
2033	14,260	6,479	25.4	7,781	30.4	83.3
2034	14,763	6,720	26.4	8,043	31.5	83.5
2035	15,208	6,935	27.3	8,273	32.5	83.8
2036	15,674	7,162	28.3	8,512	33.5	84.1
2037	16,091	7,367	29.2	8,724	34.4	84.4
2038	16,492	7,559	30.1	8,933	35.3	84.6
2039	16,862	7,736	30.9	9,126	36.2	84.8
2040	17,151	7,874	31.6	9,277	37.0	84.9
2045	18,235	8,390	34.5	9,845	40.1	85.2
2050	18,908	8,738	37.3	10,170	43.0	85.9
2055	18,705	8,708	39.0	9,997	44.4	87.1
2060	18,682	8,834	41.8	9,848	46.5	89.7
2065	18,482	8,858	44.6	9,624	48.6	92.0
2070	17,677	8,550	45.8	9,127	49.3	93.7
2072	17,271	8,377	46.0	8,894	49.4	94.2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성별 고령 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인구} × 100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연령대별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00	1,381	2.9	922	2.0	1,091	2.3
2005	1,690	3.5	1,215	2.5	1,416	2.9
2010	1,878	3.8	1,540	3.1	1,948	3.9
2015	2,106	4.1	1,780	3.5	2,656	5.2
2020	2,662	5.1	1,990	3.8	3,499	6.8
2021	2,895	5.6	2,091	4.0	3,584	6.9
2022	3,064	5.9	2,165	4.2	3,753	7.3
2023	3,274	6.3	2,235	4.3	3,927	7.6
2024	3,509	6.8	2,323	4.5	4,106	7.9
2025	3,689	7.1	2,527	4.9	4,298	8.3
2026	3,937	7.6	2,753	5.3	4,435	8.6
2027	4,022	7.8	2,919	5.7	4,655	9.0
2028	4,134	8.0	3,124	6.1	4,868	9.5
2029	4,088	8.0	3,351	6.5	5,082	9.9
2030	4,037	7.9	3,528	6.9	5,415	10.6
2031	3,931	7.7	3,772	7.4	5,715	11.2
2032	3,937	7.7	3,857	7.5	6,039	11.8
2033	3,902	7.6	3,968	7.8	6,391	12.5
2034	4,071	8.0	3,927	7.7	6,765	13.3
2035	4,123	8.1	3,882	7.6	7,204	14.2
2036	4,217	8.3	3,784	7.5	7,673	15.1
2037	4,287	8.5	3,794	7.5	8,011	15.8
2038	4,329	8.6	3,765	7.5	8,399	16.7
2039	4,268	8.5	3,933	7.8	8,661	17.2
2040	4,185	8.4	3,987	8.0	8,979	17.9
2045	3,726	7.6	4,064	8.3	10,445	21.4
2050	3,743	7.9	3,632	7.7	11,533	24.5
2055	3,219	7.2	3,659	8.2	11,827	26.4
2060	3,583	8.5	3,155	7.5	11,943	28.2
2065	3,440	8.7	3,522	8.9	11,520	29.0
2070	2,759	7.4	3,388	9.1	11,531	31.0
2072	2,534	7.0	3,173	8.8	11,564	31.9

2. 지역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10	고령인구 비중	2015	고령인구 비중	2020	고령인구 비중	2026	고령인구 비중	2030	고령인구 비중
전국	5,366	10.8	6,541	12.8	8,152	15.7	11,125	21.6	12,980	25.3
서울	928	9.2	1,209	12.2	1,477	15.4	1,942	20.9	2,198	24.2
부산	391	11.3	495	14.3	628	18.7	831	25.9	925	29.7
대구	247	10.0	308	12.5	388	16.1	521	22.5	600	26.7
인천	230	8.5	303	10.5	398	13.5	596	19.4	728	23.5
광주	130	8.7	164	10.9	204	13.8	274	19.1	317	22.6
대전	128	8.5	162	10.5	206	13.8	285	19.6	330	23.2
울산	74	6.7	99	8.5	138	12.1	210	19.4	257	24.4
세종	—	—	20	10.8	32	9.2	50	12.3	64	14.6
경기	990	8.5	1,281	10.3	1,720	12.8	2,545	18.1	3,114	21.8
강원	223	15.0	253	16.7	304	20.0	411	27.1	475	31.3
충북	204	13.4	229	14.4	277	17.0	379	23.2	443	27.1
충남	309	14.9	330	15.7	390	17.9	515	23.1	602	26.7
전북	284	15.8	321	17.5	372	20.6	463	26.7	518	30.6
전남	349	19.7	370	20.6	410	22.9	498	28.6	554	32.5
경북	424	16.1	466	17.4	551	20.8	709	27.6	808	32.0
경남	386	12.0	450	13.5	556	16.6	761	23.7	887	28.2
제주	68	12.4	82	13.7	101	15.1	135	20.0	160	23.6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35	고령인구 비중	2040	고령인구 비중	2045	고령인구 비중	2050	고령인구 비중	2052	고령인구 비중
전국	15,208	29.9	17,151	34.3	18,235	37.3	18,908	40.1	18,861	40.8
서울	2,493	28.0	2,751	31.6	2,878	34.1	2,959	36.6	2,950	37.2
부산	1,019	34.1	1,083	38.0	1,097	40.7	1,088	43.2	1,068	43.6
대구	688	31.9	753	36.5	775	39.5	775	42	762	42.5
인천	877	28.1	1,011	32.4	1,094	35.5	1,156	38.5	1,161	39.2
광주	374	27.4	423	32.1	449	35.4	462	38.2	458	38.8
대전	386	27.6	435	31.8	461	34.7	474	37.2	472	37.8
울산	311	30.8	347	36.1	363	39.9	367	43.0	361	43.7
세종	83	17.8	107	21.7	129	25.0	150	28.3	157	29.3
경기	3,812	26.3	4,451	30.7	4,856	33.8	5,148	36.8	5,176	37.5
강원	552	36.3	620	40.9	657	43.9	679	46.5	677	47.1
충북	525	32.0	596	36.5	639	39.7	667	42.6	667	43.2
충남	711	31.3	819	36.0	893	39.6	948	42.9	955	43.7
전북	587	35.6	648	40.5	676	43.8	687	46.4	680	46.9
전남	629	37.7	694	42.6	729	46.0	747	49.0	742	49.6
경북	926	37.5	1,021	42.5	1,065	45.9	1,082	48.8	1,071	49.4
경남	1,041	34.2	1,167	39.8	1,229	43.7	1,256	47.1	1,241	47.8
제주	193	28.4	224	33.2	245	36.8	261	40.1	263	40.9

3.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부부	구성비	부부+ 미혼 자녀	구성비	부(모)+ 미혼 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5	10.0	204	5.6	1,208	33.0	671	18.3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1	21,273	4,920	23.1	1,726	35.1	458	9.3	270	5.5	1,769	36.0	697	14.2
2022	21,664	5,225	24.1	1,830	35.0	479	9.2	286	5.5	1,923	36.8	707	13.5
2023	21,971	5,546	25.2	1,923	34.7	516	9.3	310	5.6	2,058	37.1	740	13.3
2024	22,180	5,867	26.5	2,043	34.8	542	9.2	328	5.6	2,197	37.4	757	12.9
2025	22,389	6,187	27.6	2,163	35.0	567	9.2	346	5.6	2,336	37.8	775	12.5
2026	22,598	6,507	28.8	2,282	35.1	593	9.1	363	5.6	2,476	38.0	793	12.2
2027	22,807	6,828	29.9	2,401	35.2	618	9.0	381	5.6	2,616	38.3	812	11.9
2028	23,000	7,154	31.1	2,521	35.2	640	8.9	398	5.6	2,760	38.6	834	11.7
2029	23,181	7,404	31.9	2,617	35.3	652	8.8	411	5.6	2,875	38.8	849	11.5
2030	23,349	7,694	33.0	2,728	35.5	667	8.7	427	5.5	3,004	39.0	868	11.3
2031	23,506	7,976	33.9	2,842	35.6	682	8.5	442	5.5	3,125	39.2	886	11.1
2032	23,652	8,247	34.9	2,940	35.7	696	8.4	457	5.5	3,248	39.4	906	11.0
2033	23,786	8,526	35.8	3,044	35.7	711	8.3	472	5.5	3,372	39.6	928	10.9
2034	23,909	8,854	37.0	3,162	35.7	735	8.3	491	5.5	3,512	39.7	953	10.8
2035	24,020	9,151	38.1	3,269	35.7	753	8.2	509	5.6	3,642	39.8	979	10.7
2036	24,120	9,463	39.2	3,385	35.8	774	8.2	528	5.6	3,771	39.9	1,005	10.6
2037	24,205	9,749	40.3	3,483	35.7	792	8.1	545	5.6	3,900	40.0	1,030	10.6
2038	24,274	10,025	41.3	3,578	35.7	808	8.1	562	5.6	4,022	40.1	1,055	10.5
2039	24,325	10,283	42.3	3,670	35.7	821	8.0	577	5.6	4,137	40.2	1,078	10.5
2040	24,358	10,491	43.1	3,736	35.6	828	7.9	589	5.6	4,236	40.4	1,102	10.5
2041	24,372	10,666	43.8	3,795	35.6	831	7.8	600	5.6	4,318	40.5	1,122	10.5
2042	24,366	10,821	44.4	3,844	35.5	833	7.7	609	5.6	4,395	40.6	1,140	10.5
2043	24,339	10,970	45.1	3,888	35.4	836	7.6	619	5.6	4,469	40.7	1,158	10.6
2044	24,291	11,114	45.8	3,933	35.4	839	7.6	628	5.7	4,539	40.8	1,175	10.6
2045	24,221	11,291	46.6	3,978	35.2	847	7.5	639	5.7	4,632	41.0	1,196	10.6
2046	24,132	11,461	47.5	4,019	35.1	855	7.5	650	5.7	4,719	41.2	1,218	10.6
2047	24,024	11,620	48.4	4,061	34.9	864	7.4	660	5.7	4,800	41.3	1,235	10.6
2048	23,899	11,731	49.1	4,083	34.8	868	7.4	667	5.7	4,864	41.5	1,249	10.6
2049	23,760	11,788	49.6	4,089	34.7	867	7.4	672	5.7	4,903	41.6	1,257	10.7
2050	23,610	11,801	50.0	4,078	34.6	859	7.3	673	5.7	4,930	41.8	1,261	10.7
2051	23,448	11,804	50.3	4,063	34.4	850	7.2	673	5.7	4,954	42.0	1,264	10.7
2052	23,277	11,788	50.6	4,050	34.4	841	7.1	672	5.7	4,961	42.1	1,265	10.7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단위: 건)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2000	119,455	1,321	1.1	423	0.4	43,370	971	48,132	202
2001	134,608	1,502	1.1	467	0.3	46,739	999	52,374	205
2002	144,910	1,768	1.2	537	0.4	47,013	1,042	52,412	242
2003	166,617	2,332	1.4	778	0.5	49,988	1,177	55,585	277
2004	138,932	2,340	1.7	816	0.6	56,530	1,394	63,452	332
2005	128,035	2,589	2.0	916	0.7	59,662	1,566	66,587	413
2006	124,524	3,061	2.5	1,120	0.9	55,563	1,746	59,661	502
2007	124,072	3,581	2.9	1,412	1.1	57,144	1,992	61,883	606
2008	116,535	4,409	3.8	1,738	1.5	57,217	1,855	62,758	548
2009	123,999	4,370	3.5	1,739	1.4	53,770	2,065	58,825	641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1	114,284	4,484	3.9	1,789	1.6	51,637	2,234	56,430	799
2012	114,316	4,836	4.2	1,955	1.7	51,114	2,449	56,488	912
2013	115,292	5,464	4.7	2,317	2.0	48,948	2,515	54,320	938
2014	115,510	5,914	5.1	2,721	2.4	47,516	2,467	53,927	9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16	107,328	6,101	5.7	2,910	2.7	43,286	2,568	48,899	1,109
2017	106,032	6,883	6.5	3,427	3.2	41,712	2,684	47,374	1,202
2018	108,684	8,032	7.4	4,148	3.8	41,115	2,759	46,747	1,347
2019	110,831	8,867	8.0	4,647	4.2	39,443	2,926	44,500	1,494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2021	101,673	11,171	11.0	6,208	6.1	31,059	3,155	35,597	1,860
2022	93,232	10,220	11.0	5,937	6.4	31,204	3,290	35,000	2,018
2023	92,394	9,944	10.8	5,885	6.4	31,644	3,662	35,223	2,112
2024	91,151	10,737	11.8	6,659	7.3	31,329	3,896	34,306	2,430
2025	88,130	11,810	13.4	7,313	8.3	29,642	4,092	32,785	2,575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5. 주택 소유율¹⁾²⁾

(단위: %)

	65세 이상	가구주 연령대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2021	67.9	69.2	70.4	60.7
2022	67.7	68.7	70.4	61.2
2023	67.8	68.4	70.6	62.1
2024	68.6	68.6	71.0	64.3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6. 기대여명¹⁾²⁾

(단위: 년)

	65세			70세			75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6.4	14.3	18.2	12.9	11.2	14.2	9.8	8.5	10.7
2001	16.6	14.5	18.4	13.1	11.4	14.4	9.9	8.6	10.8
2002	16.8	14.7	18.5	13.2	11.5	14.5	10.0	8.7	10.8
2003	17.1	15.1	18.9	13.5	11.8	14.8	10.3	9.0	11.2
2004	17.4	15.3	19.2	13.7	12.0	15.1	10.4	9.1	11.4
2005	17.7	15.5	19.6	13.9	12.2	15.4	10.6	9.2	11.6
2006	17.9	15.8	19.8	14.2	12.4	15.6	10.8	9.4	11.8
2007	18.2	16.0	20.2	14.4	12.6	16.0	11.0	9.5	12.1
2008	18.6	16.3	20.7	14.7	12.8	16.4	11.3	9.7	12.5
2009	19.0	16.7	21.1	15.1	13.1	16.8	11.6	10.0	12.9
2010	19.1	16.8	21.2	15.2	13.2	16.9	11.6	10.0	12.9
2011	19.4	17.1	21.5	15.4	13.3	17.1	11.8	10.1	13.0
2012	19.5	17.2	21.5	15.4	13.4	17.1	11.8	10.1	13.1
2013	19.9	17.6	21.9	15.8	13.8	17.5	12.1	10.5	13.4
2014	20.2	17.9	22.3	16.1	14.1	17.9	12.4	10.7	13.7
2015	20.3	18.2	22.4	16.2	14.3	17.9	12.4	10.8	13.7
2016	20.6	18.4	22.6	16.4	14.5	18.1	12.6	11.0	13.9
2017	20.8	18.6	22.7	16.6	14.7	18.3	12.7	11.1	14.0
2018	20.8	18.7	22.8	16.7	14.8	18.3	12.7	11.1	14.1
2019	21.3	19.1	23.4	17.1	15.2	18.9	13.2	11.5	14.6
2020	21.5	19.2	23.6	17.3	15.3	19.1	13.3	11.6	14.7
2021	21.6	19.3	23.7	17.4	15.4	19.2	13.4	11.7	14.9
2022	20.7	18.6	22.8	16.6	14.7	18.2	12.6	11.0	14.0
2023	21.5	19.2	23.6	17.2	15.2	19.0	13.2	11.6	14.7
2024	21.7	19.5	23.7	17.5	15.5	19.2	13.5	11.8	14.9

자료: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주: 1) 특정 연령(x세)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2)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7.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³⁾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1	악성신생물(암) 933.2	뇌혈관질환 776.9	심장질환 313.8	만성하기도질환 232.3	당뇨병 229.0
2002	악성신생물(암) 977.0	뇌혈관질환 790.8	심장질환 335.2	만성하기도질환 288.76	당뇨병 231.8
2003	악성신생물(암) 961.7	뇌혈관질환 747.3	심장질환 311.8	당뇨병 224.8	만성하기도질환 217.1
2004	악성신생물(암) 937.0	뇌혈관질환 674.2	심장질환 312.8	당뇨병 210.2	만성하기도질환 187.3
2005	악성신생물(암) 924.5	뇌혈관질환 589.8	심장질환 331.6	당뇨병 200.3	만성하기도질환 161.6
2006	악성신생물(암) 905.6	뇌혈관질환 545.2	심장질환 338.9	당뇨병 194.0	만성하기도질환 143.3
2007	악성신생물(암) 902.0	뇌혈관질환 511.5	심장질환 349.1	당뇨병 181.8	만성하기도질환 146.7
2008	악성신생물(암) 885.5	뇌혈관질환 460.3	심장질환 333.5	당뇨병 158.0	만성하기도질환 136.1
2009	악성신생물(암) 865.4	뇌혈관질환 410.7	심장질환 332.6	당뇨병 146.6	만성하기도질환 124.4
2010	악성신생물(암) 882.4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44.0	당뇨병 153.1	폐렴 127.6
2011	악성신생물(암) 847.8	뇌혈관질환 381.1	심장질환 361.2	당뇨병 155.4	폐렴 143.2
2012	악성신생물(암) 852.9	뇌혈관질환 372.9	심장질환 367.1	폐렴 166.4	당뇨병 163.0
2013	악성신생물(암) 836.6	뇌혈관질환 353.0	심장질환 335.6	폐렴 166.6	당뇨병 148.5
2014	악성신생물(암) 827.4	심장질환 339.0	뇌혈관질환 323.6	폐렴 177.5	당뇨병 136.1
2015	악성신생물(암) 803.0	심장질환 351.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09.1	당뇨병 133.2
2016	악성신생물(암) 796.2	심장질환 357.7	뇌혈관질환 286.9	폐렴 225.1	당뇨병 119.5
2017	악성신생물(암) 784.4	심장질환 361.3	뇌혈관질환 268.6	폐렴 257.6	당뇨병 108.2
2018	악성신생물(암) 763.0	심장질환 360.8	폐렴 295.3	뇌혈관질환 260.1	당뇨병 98.5
2019	악성신생물(암) 750.5	심장질환 335.7	폐렴 283.1	뇌혈관질환 232.0	당뇨병 87.1
2020	악성신생물(암) 733.3	심장질환 331.9	폐렴 257.5	뇌혈관질환 225.3	알츠하이머병 91.4
2021	악성신생물(암) 709.3	심장질환 312.0	폐렴 250.3	뇌혈관질환 220.6	알츠하이머병 92.0
2022	악성신생물(암) 689.3	코로나19 318.9	심장질환 318.2	폐렴 279.1	뇌혈관질환 238.8
2023	악성신생물(암) 679.9	심장질환 297.3	폐렴 296.1	뇌혈관질환 217.1	알츠하이머병 115.8
2024	악성신생물(암) 678.8	폐렴 288.0	심장 환 287.3	뇌혈관질환 211.5	알츠하이머병 121.0
2025	악성신생물(암) 665.6	폐렴 281.8	심장질환 275.9	뇌혈관질환 203.7	알츠하이머병 128.4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주: 1) 사망률 = {사망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2)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3)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01	고혈압성 질환 121.2	간 질환 84.4	폐렴 66.9	운수사고 62.0	호흡기 결핵 51.4
2002	고혈압성 질환 124.1	간 질환 80.0	폐렴 61.9	운수사고 61.4	고의적 자해(자살) 56.2
2003	고혈압성 질환 119.8	고의적 자해(자살) 72.7	간 질환 72.1	폐렴 63.0	운수사고 60.8
2004	고혈압성 질환 107.6	고의적 자해(자살) 79.3	폐렴 76.3	간 질환 63.1	운수사고 59.1
2005	고혈압성 질환 93.3	폐렴 87.3	고의적 자해(자살) 80.9	간 질환 58.4	운수사고 55.6
2006	폐렴 92.1	고혈압성 질환 91.9	고의적 자해(자살) 72.4	운수사고 54.0	간 질환 52.4
2007	고혈압성 질환 104.0	폐렴 87.7	고의적 자해(자살) 75.5	운수사고 52.2	간 질환 48.7
2008	폐렴 98.7	고혈압성 질환 86.1	고의적 자해(자살) 71.7	운수사고 48.2	간 질환 46.6
2009	폐렴 111.5	고혈압성 질환 83.7	고의적 자해(자살) 78.8	운수사고 47.6	간 질환 43.4
2010	만성하기도질환 122.8	고혈압성 질환 82.9	고의적 자해(자살) 81.9	운수사고 44.7	간 질환 43.8
2011	만성하기도질환 117.5	고혈압성 질환 85.0	고의적 자해(자살) 79.7	알츠하이머병 42.9	간 질환 42.2
2012	만성하기도질환 127.4	고혈압성 질환 85.8	고의적 자해(자살) 69.8	알츠하이머병 57.3	운수사고 41.5
2013	만성하기도질환 109.7	고혈압성 질환 74.4	알츠하이머병 70.8	고의적 자해(자살) 64.2	간 질환 39.9
2014	만성하기도질환 106.8	고혈압성 질환 76.3	알츠하이머병 69.1	고의적 자해(자살) 55.5	간 질환 38.1
2015	만성하기도질환 108.7	알츠하이머병 76.0	고혈압성 질환 73.7	고의적 자해(자살) 58.6	패혈증 40.4
2016	만성하기도질환 97.3	고혈압성 질환 75.9	알츠하이머병 70.3	고의적 자해(자살) 53.3	패혈증 46.9
2017	만성하기도질환 90.7	고혈압성 질환 77.7	알츠하이머병 70.2	패혈증 50.4	고의적 자해(자살) 47.7
2018	만성하기도질환 84.3	알츠하이머병 82.1	고혈압성 질환 78.1	패혈증 56.8	고의적 자해(자살) 48.6
2019	알츠하이머병 86.1	만성하기도질환 75.6	고혈압성 질환 69.7	패혈증 57.3	고의적 자해(자살) 46.6
2020	당뇨병 86.6	고혈압성 질환 71.2	패혈증 68.2	만성하기도질환 66.0	고의적 자해(자살) 41.7
2021	당뇨병 87.2	고혈압성 질환 68.4	패혈증 67.6	만성하기도질환 59.2	코로나19 50.7
2022	알츠하이머병 127.3	당뇨병 104.4	고혈압성 질환 81.3	패혈증 70.2	만성하기도질환 63.0
2023	당뇨병 98.7	고혈압성 질환 79.6	패혈증 75.6	코로나19 73.4	만성하기도질환 63.2
2024	당뇨병 92.6	고혈압성 질환 78.1	패혈증 72.8	만성하기도질환 60.5	고의적 자해(자살) 37.9
2025	당뇨병 90.9	고혈압성 질환 78.8	패혈증 78.2	만성하기도질환 57.3	고의적 자해(자살) 35.3

8. 본인부담 의료비

(단위: 억 원, 천 원, %)

	65세 이상				
	진료비 ¹⁾	1인당 진료비 ²⁾	본인부담금	1인당 본인부담금 ³⁾	본인부담금 비중 ⁴⁾
2005	60,731	1,549	15,155	387	25.0
2006	73,504	1,805	17,515	430	23.8
2007	91,190	2,079	21,653	494	23.7
2008	107,371	2,334	26,350	573	24.5
2009	124,236	2,574	30,286	627	24.4
2010	141,350	2,839	32,945	662	23.3
2011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357,925	4,796	83,351	1,117	23.3
2020	376,135	4,759	87,412	1,106	23.2
2021	413,829	4,974	97,156	1,168	23.5
2022	457,647	5,229	108,140	1,236	23.6
2023	489,011	5,306	115,366	1,252	23.6
2024	521,935	5,376	121,977	1,256	23.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 2024년 건강보험 적용인구(65세 이상: 9,709,366명, 65~74세: 5,802,757명, 75세 이상: 3,906,609명)

(단위: 억 원, 천 원, %)

	65~74세					75세 이상				
	진료비	1인당 진료비	본인 부담금	1인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진료비	1인당 진료비	본인 부담금	1인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2005	41,414	1,544	10,415	388	25.1	19,316	1,561	4,741	383	24.5
2006	49,297	1,766	11,778	422	23.9	24,207	1,888	5,737	447	23.7
2007	59,792	1,988	14,215	473	23.8	31,398	2,276	7,438	539	23.7
2008	67,400	2,160	16,404	526	24.3	39,971	2,702	9,946	672	24.9
2009	75,542	2,352	18,236	568	24.1	48,694	3,017	12,050	747	24.7
2010	82,420	2,548	18,954	586	23.0	58,930	3,378	13,991	802	23.7
2011	86,400	2,619	19,867	602	23.0	67,493	3,579	15,938	845	23.6
2012	89,234	2,593	20,664	601	23.2	75,260	3,713	17,890	883	23.8
2013	94,384	2,650	21,776	611	23.1	86,468	3,969	20,803	955	24.1
2014	99,726	2,728	22,894	626	23.0	99,961	4,257	24,180	1,030	24.2
2015	108,554	2,901	25,616	685	23.6	113,807	4,587	27,809	1,121	24.4
2016	121,391	3,205	29,706	784	24.5	131,301	4,941	31,876	1,200	24.3
2017	132,102	3,372	32,815	838	24.8	151,145	5,233	36,260	1,255	24.0
2018	146,905	3,614	34,517	849	23.5	171,330	5,659	39,667	1,310	23.2
2019	166,774	3,881	39,185	912	23.5	191,151	6,039	44,166	1,395	23.1
2020	178,640	3,851	41,945	904	23.5	197,495	6,049	45,468	1,393	23.0
2021	200,288	4,070	47,618	968	23.8	213,541	6,284	49,538	1,458	23.2
2022	221,590	4,271	53,393	1,029	24.1	236,057	6,624	54,748	1,536	23.2
2023	235,975	4,314	56,700	1,037	24.0	253,036	6,756	58,666	1,566	23.2
2024	252,855	4,357	60,218	1,038	23.8	269,080	6,888	61,759	1,581	23.0

9. 건강검진 수검률¹⁾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2021	68.4	71.4	65.9	79.4	78.2	80.5	73.0	74.0	72.0	42.9	51.3	38.0
2022	69.2	72.3	66.6	79.5	78.5	80.5	73.9	74.8	73.1	44.7	53.8	39.4
2023	69.3	72.1	67.0	79.4	78.4	80.4	74.1	75.0	73.4	44.1	52.3	39.1
2024	68.9	71.7	66.5	79.0	77.9	80.0	73.8	74.6	73.1	43.8	52.1	38.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일반검진 수검인원 ÷ 일반검진 대상인원) × 100

10. 운동 실천율

(단위: %)

65세 이상	걷기 실천율 ¹⁾³⁾			근력운동 실천율 ¹⁾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²⁾⁵⁾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8	50.3	44.4	11.6	19.0	6.5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09	47.1	54.6	41.9	10.7	19.0	5.1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1	35.9	45.4	29.2	13.2	24.4	5.3	-	-	-
2012	33.5	41.4	28.0	15.0	25.5	7.7	-	-	-
2013	35.3	42.2	30.4	18.7	30.7	10.2	-	-	-
2014	41.3	47.6	36.7	16.8	28.5	8.3	41.1	50.9	33.6
2015	35.8	41.1	32.0	17.7	30.7	8.3	33.7	41.7	27.9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2020	42.3	44.8	40.2	22.5	35.0	12.5	33.2	40.8	27.0
2021	44.4	46.7	42.5	21.0	30.0	13.8	28.7	30.4	27.3
2022	44.6	47.7	42.2	22.5	33.4	14.0	33.1	38.3	29.1
2023	45.8	49.7	42.8	24.8	37.6	14.7	33.0	37.7	29.3
2024	49.0	52.4	46.4	24.6	35.6	15.8	32.7	35.6	30.3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주기 1년으로 변경

2) 2014년부터 조사

3)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5)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¹⁾²⁾³⁾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	5.7	3.5	7.3	1.3	1.4	1.3	4.4	3.3	5.2	16.7	10.4	19.4
2014	6.2	3.8	7.9	1.3	1.3	1.3	4.7	3.5	5.6	17.8	11.0	20.8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2022	10.5	6.4	13.7	1.7	1.9	1.6	6.9	5.3	8.3	29.2	18.2	34.9
2023	10.8	6.7	14.0	1.8	1.9	1.6	6.8	5.4	8.0	30.9	19.7	36.9
2024	10.8	6.9	14.0	1.8	2.0	1.6	6.6	5.4	7.6	31.9	20.5	38.1
2025	10.9	7.0	14.0	1.9	2.1	1.7	6.5	5.4	7.4	32.9	21.3	3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2. 노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70,643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85,228	89,698	93,056	96,430	97,232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14	416	435	443	427	425	404	390	382	352	337	308	297	281	283
	양로시설	303	285	285	272	265	265	252	238	232	209	192	180	175	166	171
	노인공동생활가정	87	108	125	142	131	128	119	117	115	107	107	89	82	72	65
	노인복지주택	24	23	25	29	31	32	33	35	35	36	38	39	40	43	47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4,079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5,821	6,069	6,139	6,195	6,211
	노인요양시설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4,057	4,346	4,525	4,640	4,75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1,764	1,723	1,614	1,555	1,453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3,375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68,823	69,786	70,455	70,935	71,309
	노인복지관	281	300	319	344	347	350	364	385	391	398	357	366	438	454	459
	경로당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67,211	68,180	68,792	69,260	69,687
	노인교실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1,255	1,240	1,225	1,221	1,163
재가 노인 복지 시설 ²⁾	소계	2,750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9,984	13,272	15,896	18,745	19,146
	단기보호서비스	95	94	110	96	112	95	80	73	78	73	69	70	60	60	51
	방문간호서비스 ²⁾	-	-	-	-	-	-	10	21	60	95	158	234	295	376	435
	방문목욕서비스	633	633	603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2,415	3,394	4,070	4,794	4,135
	방문요양서비스	1,180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4,156	5,808	7,192	8,668	9,266
	복지옹구지원서비스 ³⁾	-	-	-	-	-	-	-	-	0	86	208	368	540	718	78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⁴⁾	-	323	229	208	332	390	342	387	412	385	360	363	342	339	414
	주야간보호서비스	842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2,618	3,035	3,397	3,790	4,056
노인보호전문기관		25	25	25	28	29	29	32	33	34	35	37	37	38	39	4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⁵⁾		-	-	-	-	129	136	153	160	184	196	206	206	211	215	223
학대피해노인쉼터 ⁶⁾		-	-	-	-	-	-	-	18	19	19	20	20	20	20	2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6.7.1.)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12.12.)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0.2.24.)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3.12.15.)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2.7.)

13. 평균 자산 및 구성¹⁾

(단위: 만 원)

65세 이상	순자산 ²⁾	자산	자산 구성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2012	24,550	27,431	4,049	3,327	722	23,382	22,600	782	2,881	1,494	1,387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2022	45,364	50,289	7,488	6,243	1,245	42,801	41,453	1,348	4,925	2,685	2,240
2023	45,540	50,714	8,080	6,566	1,514	42,635	41,242	1,393	5,174	2,909	2,265
2024	46,594	51,517	8,701	7,324	1,378	42,815	41,278	1,537	4,923	2,837	2,085
2025	49,279	54,272	9,147	7,766	1,382	45,125	43,345	1,780	4,993	2,938	2,055

자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4. 은퇴연령층 빈곤율

(단위: %, 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¹⁾		지니계수 ²⁾		소득 5분위 배율 ³⁾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2011	57.9	47.9	0.560	0.460	40.14	11.44
2012	57.0	46.8	0.556	0.457	40.26	11.46
2013	57.0	47.5	0.555	0.452	39.43	11.25
2014	57.6	45.9	0.567	0.449	47.99	10.69
2015	58.1	44.2	0.564	0.426	46.71	9.23
2016	59.0	44.8	0.568	0.424	49.47	9.02
2017	58.7	43.8	0.564	0.418	45.97	8.80
2018	60.4	43.3	0.560	0.405	41.99	7.94
2019	61.3	43.2	0.554	0.388	42.82	7.24
2020	60.6	40.5	0.554	0.376	43.13	6.64
2021	59.9	39.3	0.552	0.378	41.08	6.92
2022	59.1	39.7	0.551	0.383	39.52	7.11
2023	57.0	39.8	0.540	0.380	36.87	7.11
2024	57.3	37.7	0.541	0.377	37.89	6.90

자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15. 개인의 연금¹⁾ 수급 현황

(단위: 천 명, %, 천 원, %p)

65세 이상	수급자 수	수급률	월평균 수급 금액	전년 대비		미수급자 수	미수급률
				수급률 (%p)	월평균 수급 금액 증감액		
2016	5,897	87.0	423	-	-	878	13.0
2017	6,236	87.6	445	0.6	23	879	12.4
2018	6,536	88.4	478	0.8	33	858	11.6
2019	6,885	88.9	528	0.5	50	861	11.1
2020	7,335	89.4	562	0.5	34	871	10.6
2021	7,768	90.1	600	0.7	38	852	9.9
2022	8,182	90.4	650	0.3	50	864	9.6
2023	8,636	90.9	695	0.5	45	860	9.1
2024	9,122	91.2	737	0.3	42	878	8.8
남자	4,231	95.5	957	0.1	55	197	4.5
여자	4,891	87.8	546	0.4	29	681	12.2
65~69세	3,171	90.2	858	0.5	51	343	9.8
70~74세	2,113	90.4	758	0.3	40	224	9.6
75~79세	1,613	92.1	690	-0.1	40	138	7.9
80세 이상	2,225	92.8	577	0.2	29	173	7.2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주: 1)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11종의 연금

16-1. 고용률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6	4,529	1,381	1,371	10	30.3	0.7
2007	4,759	1,491	1,482	10	31.1	0.7
2008	4,983	1,535	1,523	12	30.6	0.8
2009	5,177	1,571	1,553	18	30.0	1.2
2010	5,361	1,590	1,553	38	29.0	2.4
2011	5,527	1,642	1,606	3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2021	8,582	3,112	2,992	119	34.9	3.8
2022	9,027	3,365	3,265	100	36.2	3.0
2023	9,451	3,623	3,525	98	37.3	2.7
2024	9,953	3,926	3,806	120	38.2	3.1
2025	10,512	4,275	4,147	128	39.5	3.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16-2.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
2014	1,954	100.0	33.6	5.1	5.1	61.3	3.8	17.5	33.1	6.9
2015	1,985	100.0	30.5	5.5	5.5	64.0	3.5	17.8	35.5	7.1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6.9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6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2022	3,265	100.0	24.7	5.9	5.9	69.4	4.9	12.9	43.7	7.9
2023	3,525	100.0	23.6	6.0	6.0	70.4	4.8	13.5	44.2	7.8
2024	3,806	100.0	22.1	6.5	6.5	71.4	5.0	13.5	44.7	8.2
2025	4,147	100.0	19.3	7.5	7.4	73.2	4.8	13.8	46.7	7.9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2024년) 기준임

16-3.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4	1,954	100.0	4.8	2.6	15.2	31.7	11.3	34.4
2015	1,985	100.0	4.9	2.5	16.0	28.7	12.4	35.5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6
2022	3,265	100.0	5.1	3.3	16.7	24.2	15.2	35.6
2023	3,525	100.0	5.8	3.5	17.7	23.3	15.0	34.6
2024	3,806	100.0	6.8	3.4	17.9	21.8	15.3	34.8
2025	4,147	100.0	7.3	3.8	19.2	19.2	15.9	34.6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 개정(2024년) 기준임

17.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

65~79세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2015	43.7	100.0	37.0	54.4	1.2	2.5	4.7	0.1
2016	43.7	100.0	36.5	55.2	1.4	2.4	4.4	0.1
2017	44.8	100.0	36.2	56.0	1.1	2.5	4.1	0.1
2018	47.3	100.0	34.8	57.2	1.1	2.4	4.5	0.0
2019	48.8	100.0	35.7	56.4	1.0	2.4	4.5	0.1
2020	52.4	100.0	37.2	54.4	1.5	2.4	4.4	0.0
2021	54.5	100.0	36.2	54.7	1.5	2.8	4.9	0.0
2022	54.7	100.0	37.3	53.3	1.2	3.0	5.2	—
2023	55.7	100.0	38.0	52.2	1.5	2.9	5.3	0.0
2024	57.2	100.0	37.7	52.0	1.6	3.1	5.6	0.0
2025	57.6	100.0	38.1	51.3	2.4	2.9	5.3	0.0
2026	58.7	100.0	38.7	50.4	2.7	2.7	5.4	0.0
남자	66.5	100.0	41.8	47.6	4.0	2.7	3.9	0.0
여자	51.8	100.0	35.2	53.6	1.2	2.8	7.2	0.1
65~69세	68.3	100.0	37.7	51.8	3.0	2.6	4.8	0.0
70~74세	55.4	100.0	39.7	49.1	2.7	2.7	5.8	0.1
75~79세	44.3	100.0	40.0	48.6	1.7	3.0	6.7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1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단위: %)

65세 이상	참여율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의 책임 이므로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갚고 싶으 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 체활동에 참하려고	진학, 취업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
2021	5.2	38.1	16.7	13.2	4.7	15.2	10.1	1.9	0.1	-
2023	7.4	36.9	14.6	6.6	2.4	22.2	11.7	5.3	0.1	0.2
2025	8.9	32.8	19.8	9.0	3.3	22.1	8.3	4.7	-	-
남자	9.8	31.0	21.6	12.8	3.5	16.4	7.8	7.0	-	-
여자	8.2	34.5	18.2	5.4	3.1	27.6	8.8	2.5	-	-
65~69세	12.0	31.8	20.8	7.6	4.3	22.2	7.5	5.9	-	-
70~74세	11.8	31.6	21.3	10.2	2.2	22.9	8.4	3.4	-	-
75~79세	7.0	34.8	17.7	9.9	4.0	21.6	6.3	5.6	-	-
80세 이상	2.7	40.6	10.7	11.0	-	19.4	17.5	0.9	-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19. 단체 참여율

(단위: %)

65세 이상	참여율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2019	58.7	72.7	29.6	43.0	8.4	2.3	1.4	0.9	20.4	0.0
2021	28.7	55.8	33.3	43.0	7.5	1.0	1.0	1.0	11.5	-
2023	57.1	74.7	38.1	38.2	8.6	2.8	1.0	1.5	18.8	0.2
2025	64.1	78.0	42.0	35.1	8.2	2.8	1.3	2.1	17.5	0.1
남자	67.5	83.7	46.1	25.8	8.7	3.8	2.1	3.0	19.3	0.1
여자	61.5	73.1	38.5	43.2	7.7	1.9	0.7	1.3	15.9	0.1
65~69세	74.4	84.3	47.2	30.6	9.8	3.9	2.3	2.8	15.6	0.1
70~74세	72.5	79.8	43.6	34.1	9.0	3.1	1.2	1.7	17.8	0.1
75~79세	60.1	77.2	37.5	38.1	6.8	0.9	0.3	1.9	18.5	0.1
80세 이상	42.9	59.5	30.8	45.0	4.1	1.4	0.4	1.2	20.5	0.2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0. 평생교육 참여율¹⁾

(단위: %)

65~79세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7	26.9	0.2	26.9	3.0
2018	32.7	0.1	32.6	5.5
2019	32.5	0.1	32.4	4.9
2020	29.5	0.1	29.4	6.0
2021	19.2	0.2	19.2	4.9
2022	17.6	X ⁶⁾	17.6	5.4
2023	23.5	0.1	23.4	6.9
2024	24.8	0.2	24.7	6.2
2025	26.0	0.1	25.9	6.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6) 사례수가 적어 공표하지 않음

21. 노인차별¹⁾²⁾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민	학력·학벌	전과자	경제적 빈곤층	기타 ³⁾
2019	16.4	4.8	13.1	36.2	6.1	14.7	-	-	-	-
2020	13.8	4.8	7.7	21.9	2.5	6.6	6.8	6	17.9	12.0
2021	6.1	5.3	8.7	18.4	4.8	11.2	7.9	7.7	16.3	13.6
2022	5.1	5.1	10.4	18.9	4.9	9.5	7.9	7.3	18.3	12.6
2023	8.2	5.7	10.8	16.5	5.4	8.4	8.6	7.3	17.6	11.5
2024	5.4	7.4	11.7	15.8	5.4	8.3	7.5	6.7	16.3	15.6
2025	6.1	5.5	11.9	16.7	7.5	11.6	6.1	7.3	15.1	12.1
남자	4.4	5.4	11.4	17.3	6.9	11.7	6.6	7.6	15.7	12.9
여자	7.8	5.7	12.3	16.0	8.0	11.5	5.7	7.0	14.6	11.4
30세 미만	7.3	6.7	8.7	17.8	8.7	10.5	6.8	5.8	15.1	12.5
30대	6.3	7.1	8.9	17.2	7.0	11.2	6.2	7.1	15.5	13.5
40대	6.1	6.6	10.5	16.8	7.5	12.2	6.4	6.3	15.8	11.8
50대	6.5	5.4	10.1	16.8	7.3	12.2	5.3	7.1	15.2	14.1
60세 이상	5.3	3.9	16.4	15.7	7.3	11.6	6.1	8.8	14.6	10.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의식 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3) 기타: 성소수자, 병력, 비정규직 근로자, 기타

22. 세대 갈등¹⁾²⁾

(단위: 점, %)

	평균 ³⁾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2013	2.8	2.2	33.7	50.2	13.9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2022	2.7	2.7	37.7	49.3	10.3
2023	2.6	5.4	39.4	46.6	8.6
2024	2.7	3.1	38.7	48.4	9.9
2025	2.7	3.2	38.8	46.1	11.8
남자	2.7	3.0	39.0	45.4	12.6
여자	2.7	3.5	38.6	46.8	11.1
19~29세	2.7	2.7	37.1	48.4	11.8
30~39세	2.7	2.5	38.2	47.3	12.1
40~49세	2.7	3.2	38.5	45.1	13.2
50~59세	2.7	3.2	39.5	46.2	11.1
60세 이상	2.6	3.9	39.6	45.1	11.4
65세 이상	2.6	3.6	40.6	44.6	11.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

23. 인터넷 이용률¹⁾ 및 이용 목적

(단위: %)

65세 이상	이용률 ¹⁾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직업·직장	교육·학습	홈페이지 등 운영	기타
2020	55.2	95.3	91.5	81.1	3.5	9.7	26.3	31.4
2021	63.5	96.1	99.7	84.5	2.5	10.8	25.2	72.9
2022	67.0	98.1	99.8	94.3	3.5	10.7	25.7	75.3
2023	74.0	96.8	88.1	89.3	15.8	34.7	30.7	37.0
2024	76.9	97.3	90.1	84.8	9.8	23.2	30.9	53.0
2025	79.2	97.8	97.4	90.0	19.4	31.4	18.0	67.4
남자	82.7	98.2	98.3	92.5	24.0	34.0	18.9	70.9
여자	76.3	97.5	96.7	87.7	15.3	29.1	17.2	64.4
65~69세	95.0	99.9	98.6	93.4	26.9	40.4	23.1	86.0
70~74세	81.9	98.2	97.5	92.5	19.4	27.5	17.7	60.2
75~79세	73.3	96.1	94.7	85.0	11.4	25.2	14.5	51.8
80세 이상	55.3	92.9	96.4	81.0	6.1	19.0	8.0	4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기준

24. 인스턴트 메신저¹⁾ 이용률²⁾ 및 이용 SNS³⁾

(단위: %)

65세 이상	이용률 ²⁾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네이버밴드 메신저	기타
2020	91.3	99.4	2.9	0.9	0.6	0.2	1.2	3.4	1.2
2021	92.4	99.6	3.0	0.4	0.3	0.3	0.4	3.7	-
2022	94.6	99.6	4.0	0.6	0.5	0.6	0.7	3.8	0.0
2023	93.9	98.8	5.6	3.1	1.7	1.6	3.3	4.8	0.1
2024	92.6	98.5	4.3	1.2	1.6	2.1	2.4	6.6	0.1
2025	96.0	99.5	2.3	0.3	0.5	2.8	7.4	9.2	-
남자	96.3	99.4	3.2	0.5	0.5	3.3	7.5	10.4	-
여자	95.8	99.7	1.4	0.2	0.4	2.3	7.3	8.1	-
65~69세	99.8	99.1	3.7	0.5	0.9	6.0	16.5	16.5	-
70~74세	97.3	99.9	1.4	0.3	0.2	0.6	0.6	5.1	-
75~79세	94.7	99.6	1.2	0.1	0.3	0.1	0.3	3.0	-
80세 이상	84.8	100.0	0.6	0.1	0.0	-	-	1.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DM 등)

2) 최근 1년 이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기준

3) 2024년까지는 1, 2, 3순위 응답, 2025년은 1, 2순위 응답 합계임

25. 인공지능 서비스¹⁾ 인지율²⁾ 및 분야

(단위: %)

65세 이상	인지율 ²⁾	교육 학습	주거 편의	커뮤니케이션/ 친교	미디어	금융	교통	헬스케어
2022	39.9	7.4	32.8	13.6	5.5	6.6	20.3	9.0
2023	50.1	12.9	37.8	18.0	8.8	9.6	26.1	12.3
2024	58.0	10.0	44.5	16.8	7.2	8.4	32.4	13.2
2025	66.8	11.5	55.4	25.0	12.3	12.4	39.3	17.3
남자	72.8	14.8	58.4	28.9	16.0	16.1	52.1	21.7
여자	61.8	8.8	52.9	21.7	9.3	9.3	28.7	13.6
65~69세	82.1	18.0	68.2	34.1	18.6	18.6	54.0	24.9
70~74세	71.1	11.5	59.3	27.6	14.5	13.0	43.5	17.7
75~79세	57.5	6.6	46.2	19.6	7.5	7.8	28.7	12.2
80세 이상	44.0	4.7	37.1	11.2	3.2	4.8	18.8	8.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주: 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각 산업 및 생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예) 음성·생체인식 서비스,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차량 등
 2) 해당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
 3) 6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6. 보행 안전성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2005	991	22.9	6,321	146.3
2006	961	21.2	6,169	136.3
2007	985	20.7	6,541	137.4
2008	903	18.1	7,181	143.9
2009	952	18.4	7,832	151.3
2010	966	18.0	7,924	147.7
2011	883	16.0	8,131	147.4
2012	959	16.6	8,651	150.0
2013	951	15.8	9,413	156.3
2014	919	14.6	10,031	159.8
2015	909	13.9	10,772	164.7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1.0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10.0
2022	558	6.2	10,016	111.5
2023	550	5.8	10,529	111.6
2024	616	6.2	10,861	109.3
2025	619	5.9	11,059	105.2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27. 운전자 사고 비중¹⁾

(단위: 건, 명, %)

65세 이상	사고 건수	비중 ³⁾	사망자 수	비중 ⁴⁾	치사율 ²⁾	부상자 수	비중 ⁵⁾
2015	23,063	9.9	815	17.6	3.5	33,787	9.6
2016	24,429	11.1	759	17.7	3.1	35,687	10.8
2017	26,713	12.3	848	20.3	3.2	38,627	12.0
2018	30,012	13.8	843	22.3	2.8	43,469	13.5
2019	33,239	14.5	769	23.0	2.3	48,223	14.1
2020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2022	34,652	17.6	735	26.9	2.1	49,281	17.5
2023	39,614	20.0	745	29.2	1.9	56,067	19.8
2024	42,369	21.6	761	30.2	1.8	59,776	21.5
2025	45,873	23.7	843	33.1	1.8	63,640	23.4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2) 치사율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 × 100

3) 사고 건수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 ÷ 전체 운전자 사고 건수) × 100

4) 사망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100

5) 부상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100

28. 고령자 학대 피해¹⁾²⁾ 경험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학대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대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7	45.5	35.1	52.5	17.4	40.2	57.2	109.8
2008	44.5	34.4	51.4	16.1	35.8	58.1	111.2
2009	48.3	35.6	57.1	17.4	38.5	65.4	113.8
2010	54.0	42.1	62.2	20.9	44.2	64.4	126.3
2011	58.4	43.4	68.8	24.4	47.4	73.0	123.6
2012	56.0	41.1	66.4	23.6	43.4	64.7	124.1
2013	55.1	36.6	68.3	24.1	41.5	61.3	122.3
2014	53.1	37.5	64.3	22.5	37.1	65.2	114.1
2015	55.2	37.0	68.4	24.9	43.3	64.1	111.1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9	34.8	66.4	79.2	117.8
2019	68.2	38.5	90.6	37.5	63.0	72.8	112.1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2022	75.5	39.7	103.3	47.9	66.4	85.6	115.7
2023	74.5	40.8	100.8	50.5	70.5	82.7	106.6
2024	72.1	38.2	98.9	51.6	67.1	82.7	99.5
2025	75.8	40.1	104.3	56.2	71.2	86.6	101.8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연령대별 추계인구) × 100,000

29. 주거 만족도

(단위: 점)

65세 이상 ¹⁾	주택 만족도 ²⁾	주거 환경 만족도 ³⁾	편의 시설	의료· 복지 시설	공공 시설	문화 시설	공원· 녹지	대중 교통	주차 시설	보행 안전	교육 환경	치안 문제	소음 문제	주변 청결	대기 오염	지역 유대
2018	2.89	2.89	2.78	2.74	2.78	2.59	2.81	2.81	2.76	2.95	2.82	2.95	2.86	2.98	2.98	3.09
수도권 ⁴⁾	2.92	2.91	2.91	2.88	2.91	2.68	2.89	2.94	2.71	2.96	2.94	2.96	2.80	2.96	2.91	3.05
비수도권	2.87	2.87	2.69	2.65	2.70	2.53	2.76	2.73	2.79	2.94	2.74	2.95	2.91	3.00	3.04	3.12
2019	2.92	2.87	2.75	2.72	2.79	2.55	2.89	2.85	2.82	2.98	2.83	2.99	2.92	3.04	3.03	3.13
수도권 ⁴⁾	2.95	2.93	2.87	2.85	2.89	2.67	2.95	2.98	2.81	3.00	2.93	3.00	2.89	3.01	2.96	3.07
비수도권	2.91	2.82	2.67	2.64	2.72	2.47	2.85	2.76	2.83	2.97	2.76	2.98	2.93	3.05	3.08	3.18
2020	2.92	2.93	2.78	2.75	2.82	2.51	2.94	2.89	2.83	3.02	2.85	3.02	2.94	3.05	3.08	3.14
수도권 ⁴⁾	2.95	2.97	2.92	2.89	2.93	2.60	2.96	3.05	2.80	3.03	2.94	3.03	2.88	3.03	2.98	3.07
비수도권	2.91	2.90	2.69	2.65	2.74	2.44	2.92	2.78	2.85	3.01	2.78	3.02	2.97	3.07	3.15	3.18
2021	2.93	2.92	2.82	2.79	2.83	2.53	2.93	2.89	2.79	3.01	2.87	3.03	2.94	3.07	3.08	3.11
수도권 ⁴⁾	2.96	2.97	2.96	2.93	2.95	2.65	3.00	3.02	2.80	3.03	2.96	3.04	2.93	3.06	3.00	3.05
비수도권	2.91	2.88	2.72	2.69	2.75	2.44	2.88	2.79	2.79	2.99	2.80	3.03	2.95	3.09	3.13	3.15
2022	2.93	2.93	2.78	2.74	2.79	2.55	2.94	2.86	2.78	2.99	2.87	3.02	2.92	3.04	3.07	3.09
수도권 ⁴⁾	2.93	2.95	2.87	2.86	2.88	2.62	2.95	2.96	2.73	2.98	2.93	3.00	2.87	3.00	2.98	3.02
비수도권	2.93	2.91	2.71	2.64	2.72	2.50	2.93	2.79	2.81	2.99	2.83	3.04	2.95	3.07	3.13	3.15
2023	2.93	2.93	2.78	2.76	2.81	2.58	2.94	2.86	2.81	2.99	2.86	3.01	2.95	3.04	3.06	3.08
수도권 ⁴⁾	2.94	2.95	2.88	2.88	2.89	2.65	2.95	2.94	2.77	2.99	2.93	2.99	2.90	3.00	2.96	3.01
비수도권	2.93	2.92	2.71	2.67	2.75	2.52	2.92	2.79	2.83	2.99	2.81	3.02	2.98	3.08	3.12	3.14
2024	2.95	2.96	2.83	2.81	2.86	2.63	2.98	2.88	2.83	3.02	2.91	3.05	2.96	3.07	3.08	3.09
수도권 ⁴⁾	2.95	2.98	2.94	2.92	2.97	2.70	3.03	2.99	2.80	3.04	2.98	3.05	2.93	3.05	3.01	3.05
비수도권	2.95	2.94	2.74	2.72	2.78	2.57	2.95	2.80	2.85	3.00	2.85	3.05	2.98	3.08	3.13	3.13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2)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4) 서울, 인천, 경기

30. 삶에 대한 만족도¹⁾

(단위: %)

65세 이상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03	15.9	2.9	13.0	50.0	34.1	25.5	8.6
2006	23.1	4.6	18.5	45.9	31.0	21.2	9.8
2009	12.8	2.3	10.5	38.9	48.3	37.0	11.3
2010	21.3	4.5	16.8	47.7	31.0	24.3	6.7
2011	13.1	3.2	10.0	48.4	38.5	28.6	9.9
2012	22.9	5.0	17.9	43.5	33.6	25.5	8.1
2013	21.2	5.3	16.0	49.4	29.3	22.0	7.4
2014	30.8	7.8	23.0	48.2	21.0	16.8	4.2
2015	21.8	5.0	16.8	52.9	25.2	19.7	5.5
2016	31.2	6.8	24.4	49.7	19.1	16.0	3.1
2017	19.3	3.2	16.1	52.0	28.7	22.3	6.4
2018	29.9	6.1	23.8	47.7	22.4	18.5	3.9
2019	25.0	6.2	18.8	50.3	24.7	19.5	5.3
2020	33.5	8.6	25.0	50.9	15.6	12.7	2.9
2021	25.0	6.5	18.6	49.7	25.3	20.4	4.9
2022	34.3	7.7	26.5	48.5	17.2	14.1	3.1
2023	31.9	7.6	24.3	50.1	17.9	14.5	3.4
2024	35.5	7.7	27.8	50.7	13.8	11.4	2.4
2025	33.7	8.0	25.7	48.4	17.9	14.9	3.0
남자	36.5	8.9	27.6	46.6	16.9	14.0	2.9
여자	31.5	7.4	24.1	49.9	18.6	15.5	3.1
65~69세	36.0	9.6	26.4	48.2	15.8	13.3	2.6
70~74세	33.6	9.3	24.2	48.1	18.3	15.1	3.2
75~79세	34.0	6.3	27.7	48.0	18.0	15.3	2.6
80세 이상	30.1	5.6	24.5	49.5	20.4	16.6	3.8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임

31. 성취에 대한 만족도¹⁾

(단위: %)

65세 이상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18.2	2.8	15.3	52.7	29.2	23.3	5.8
2018	25.3	4.6	20.8	49.6	25.0	20.7	4.3
2019	21.8	4.1	17.7	51.3	26.9	20.8	6.1
2020	28.6	5.7	23.0	48.1	23.3	18.7	4.6
2021	23.6	5.3	18.3	51.4	25.0	19.6	5.5
2022	31.2	5.4	25.8	49.8	19.0	15.5	3.5
2023	26.7	5.1	21.6	50.3	23.0	18.3	4.7
2024	33.2	5.8	27.5	47.2	19.6	16.3	3.3
2025	29.0	5.7	23.4	48.9	22.0	18.2	3.8
남자	32.2	6.4	25.7	47.0	20.8	17.2	3.6
여자	26.6	5.1	21.5	50.4	23.0	19.0	4.0
65~69세	31.0	6.4	24.7	48.9	20.1	16.4	3.6
70~74세	29.2	6.3	22.9	48.4	22.4	18.3	4.0
75~79세	28.7	5.6	23.0	48.2	23.1	19.8	3.3
80세 이상	26.1	4.0	22.1	50.2	23.8	19.5	4.3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임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남자		여자	
	2014	2024	2014	2024
평균 ¹⁾	17.7	18.7	21.1	21.8
호주	19.4	20.1	22.2	22.7
오스트리아	18.2	18.8	21.5	21.7
벨기에	18.1	19.1	21.5	22.0
캐나다	19.1	19.8	22.0	22.5
칠레	17.7	19.1	21.0	22.0
콜롬비아	16.9	-	19.4	-
코스타리카	18.5	19.8	21.0	22.2
체코	15.9	16.9	19.6	20.6
덴마크	17.9	18.7	20.6	21.3
에스토니아	15.1	16.3	20.0	21.3
핀란드	18.0	18.7	21.5	22.2
프랑스	19.3	19.9	23.3	23.6
독일	17.9	18.0	21.1	21.2
그리스	18.0	18.7	21.3	21.8
헝가리	14.5	14.7	18.4	18.6
아이슬란드	19.4	19.7	21.7	21.6
아일랜드	18.3	19.8	20.9	22.2
이스라엘	19.2	20.0	21.5	22.6
이탈리아	18.9	19.9	22.3	22.7
일본	19.3	19.5	24.2	24.4
대한민국	17.9	19.5	22.3	23.7
라트비아	13.7	14.9	18.8	19.8
리투아니아	14.1	15.4	19.1	20.3
룩셈부르크	18.2	19.5	22.0	22.5
멕시코	17.5	18.5	18.8	19.5
네덜란드	18.5	18.9	21.2	20.9
뉴질랜드	19.0	19.7	21.4	21.8
노르웨이	18.7	19.8	21.5	21.9
폴란드	15.7	16.3	20.0	20.3
포르투갈	18.1	19.3	21.8	22.6
슬로바키아	15.0	16.3	18.9	19.9
슬로베니아	17.5	18.3	21.2	21.9
스페인	19.0	19.8	22.9	23.7
스웨덴	18.9	20.2	21.5	22.4
스위스	19.4	20.4	22.4	23.0
튀르키예	16.1	-	19.4	-
영국	18.6	18.9	21.1	21.4
미국	18.0	18.4	20.6	20.8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6.9.1. 기준,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주: 1) OECD 38개국 중 2014년, 2024년 기준의 자료가 공표된 나라의 산술평균임

□ 국제비교: 2.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¹⁾

(단위: %)

	상대적 빈곤율 ²⁾ (중위소득 50% 이하)				지니계수 ³⁾			
	2013년		2023년		2013년		2023년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오스트리아	8.4	9.9	8.4	12.3	0.282	0.276	0.282	0.306
벨기에	-	-	6.0	5.4	-	-	0.254	0.222
캐나다	13.1	8.6	12.2	10.1	0.321	0.278	0.309	0.294
칠레	14.8	15.0	-	-	0.467	0.428	-	-
코스타리카	17.4	24.3	17.3	25.8	0.483	0.526	0.458	0.486
체코	5.5	2.6	5.0	3.6	0.257	0.187	0.238	0.200
덴마크	6.7	3.8	-	-	0.255	0.225	-	-
에스토니아	14.6	22.2	11.6	29.8	0.352	0.268	0.301	0.286
핀란드	7.8	7.8	8.2	4.8	0.262	0.251	0.272	0.246
프랑스	-	-	8.4	6.2	-	-	0.298	0.296
독일	9.1	8.4	10.8	14.5	0.299	0.260	0.309	0.297
그리스	16.1	8.3	12.0	11.5	0.351	0.270	0.330	0.281
헝가리	8.6	1.9	9.1	10.1	0.297	0.212	0.282	0.290
아이슬란드	4.5	2.9	-	-	0.242	0.226	-	-
아일랜드	9.7	7.9	5.3	14.8	0.317	0.287	0.281	0.293
이스라엘	-	-	13.9	16.0	-	-	0.331	0.328
이탈리아	13.4	9.2	12.2	12.3	0.328	0.297	0.323	0.331
대한민국	13.6	47.5	9.8	39.8	0.355	0.452	0.302	0.380
라트비아	12.5	20.8	12.3	34.3	0.344	0.310	0.332	0.340
리투아니아	11.8	13.1	13.3	25.9	0.348	0.298	0.347	0.313
룩셈부르크	-	-	9.2	5.9	-	-	0.298	0.280
네덜란드	8.1	3.3	7.0	4.6	0.290	0.240	0.320	0.293
뉴질랜드	11.8	20.1	-	-	0.333	0.323	-	-
노르웨이	9.0	4.3	9.5	3.2	0.262	0.218	0.271	0.222
폴란드	10.4	7.7	8.5	10.9	0.303	0.253	0.260	0.244
포르투갈	13.3	9.7	9.7	15.2	0.344	0.323	0.308	0.354
슬로바키아	8.0	4.1	7.9	4.7	0.270	0.197	0.217	0.181
슬로베니아	8.8	12.2	7.4	15.8	0.254	0.258	0.242	0.261
스페인	16.5	5.3	12.5	13.1	0.351	0.289	0.309	0.299
스웨덴	8.2	8.7	8.1	7.3	0.261	0.272	0.285	0.294
스위스	6.3	19.7	7.8	17.8	0.287	0.309	0.305	0.305
튀르키예	13.1	18.8	-	-	0.379	0.382	-	-
영국	9.8	13.5	10.7	15.0	0.353	0.322	0.368	0.336
미국	15.3	20.6	15.7	22.9	0.392	0.406	0.386	0.419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6.9.1. 기준,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